경주남산

역사와 예술을 만나다

慶州南山硏究所

경주남산

역사와 예술을 만나다

慶州南山硏究所

慶州南山硏究所
The Research Institute of Mt. Namsan in Gyeongju, Korea(THE RING)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는

많은 사람들이 경주 남산의 아름다움과 곳곳에 깃들어 있는 가치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주 남산의 문화유적을 널리 알리고, 유적을 보전하고 연구하며, 아울러 남산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펴낸이 김구석
펴낸곳 (사)경주남산연구소
www.kjnamsan.org
E-mail. kjnamsan@hanmail.net
경북 경주시 태종로 711번길 15(노서동)
Tel. 054-777-7142
Fax. 054-776-7142
펴낸날 2024년 5월 1일
기획 및 디자인 디자인창 054. 745. 5521
표지사진 김구석, 손남규

이 안내책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후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경주남산

남산은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 분지의 남쪽에 위치하며, 불교유적의 보고이자 신라인들의 영산이며, 신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북의 금오봉(468m)과 남의 고위봉(494m)을 중심으로 동서 너비 4km, 남북 길이 9km의 타원형으로, 한 마리의 거북이 서라벌 깊숙이 들어와 엎드린 형상이다. 골은 깊고 능선은 변화무쌍하여 기암괴석이 만물상을 이루었으니 작으면서도 큰 산이다.

남산에는 온갖 전설이 남아 있고,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역사의 산이며, 선조들의 숨결이 가득한 민족문화의 산실이다.

이 산 주변에는 신석기 말기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신라시조 박혁거세거서간이 탄강하신 나정과 초기 왕궁, 나을신궁, 왕릉이 즐비하며, 도성을 지켜온 남산신성을 비롯한 4곳의 산성과, 망국의 한이 서린 포석정이 있어 남산은 실로 신라 천년의 역사와 함께 한 산이라 할 수 있다.

남산에는 수많은 불상과 탑들이 남아 있다. 그 대부분은 석탑과 석불로서 특히 마애불이 많다. 남산에 탑상(塔像)이 조성되는 것은 7세기 초부터 시작하여 신라말까지 계속된다. 남산의 불교유적은 대부분 폐허가 된 절터와 무너진 탑, 파괴된 불상들이지만, 확인된 유적만 해도 200여 곳이 넘고, 확인된 유적 유물은 700여점에 이르고 있어 신라불교의 대중성과 신라인들의 남산에 대한 신앙의 정열을 짐작할 수 있다.

남산에 있는 불교유적의 가치는 자연과의 조화와 다양성에 있다. 편편한 바위가 있으면 불상을 새기고, 반반한 터가 있으면 절을 세우고, 높은 봉이 있으면 탑을 세우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성하였다. 비록 바위 속에 부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어도 바위가 불상을 새기기에 적정하지 않으면 불상을 새기지 않고 예배하였으며, 절을 세워도 산을 깎고 계곡을 메운 흔적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신라인들은 바위에 부처를 새긴 것이 아니라, 바위 속에 있는 부처를 보고, 정을 들고 바위 속에 숨어 계신 부처님을 찾아낸 것이다.

남산은 자연과 예술이 조화되어 산 전체가 보물이니 세계에 그 유례가 없다.

남산에는 왕릉 13기, 산성터 4개소, 절터 150여 개소, 불상 130여구, 탑 100여기, 석등 22기, 연화대 19점 등 700여 점의 문화유산이 남아 있으며, 이들 문화유산은 국보 1점, 보물 16점, 사적 15개소, 국가민속문화재 1개소 등 55점이 지정되어 있고, 2000년 12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그 가치를 보호받고 있다.

CONTENTS

3 경주남산
6 삼릉 가는 길
8 쉽게 찾아가는 삼릉 가는 길(약도)
10 서남산 코스(삼릉에서 용장까지)
12 쉽게 찾아가는 서남산코스(약도)
14 동남산 가는 길
16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 가는 길(약도)
18 남산탐방길
20 쉽게 찾아가는 남산탐방길(약도)
22 동남산코스
24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코스(약도)
26 고위산 가는 길
28 쉽게 찾아가는 고위산 가는 길(약도)
30 삼국유사 찾아가는 길
32 쉽게 찾아가는 삼국유사 찾아가는 길(약도)
34 ① 월정교
35 ② 도당산과 화백정
36 ③ 천관사지
38 ④ 오릉
39 ⑤ 월암종택
40 ⑥ 나정
41 ⑦ 육부전
42 ⑧ 남간사지
43 ⑨ 일성왕릉
44 ⑩ 창림사지
46 ⑪ 포석정
47 ⑫ 지마왕릉
47 ⑬ 태진지
48 ⑭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49 ⑮ 삼릉
50 ⑯ 경애왕릉
51 ⑰ 입곡 석불두
52 ⑱ 냉곡 석조여래좌상
53 ⑲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54 ⑳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55 ㉑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56 ㉒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57 ㉓ 선각마애불
58 ㉔ 상선암 마애선각보살상
58 ㉕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59 ㉖ 바둑바위
59 ㉗ 상사바위와 소석불
60 ㉘ 금오산 정상
60 ㉙ 대연화대(삼화령)
62 ㉚ 탑 기단석
62 ㉛ 용장사곡 삼층석탑
63 ㉜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64 ㉝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65 ㉞ 탑재와 석등대석
65 ㉟ 용장사지
66 ㊱ 용장계 절골 석조약사여래좌상
67 ㊲ 약수곡 마애입불상
67 ㊳ 약수곡 석조여래좌상
68 ㊴ 비파바위
68 ㊵ 비파곡 삼층석탑
69 ㊶ 인왕동사지
70 ㊷ 춘양교지(일정교)
70 ㊸ 정순임 판소리연구소
71 ㊹ 상서장
72 ㊺ 새벽비
72 ㊻ 고청기념관
73 ㊼ 불곡마애여래좌상
74 ㊽ 탑곡 제1사지 마애조상군
75 ㊾ 옥룡암과 탑곡마애불상군
76 ㊿ 보리사 마애석불
77 (51)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78 (52) 경북천년숲정원
78 (53) 화랑교육원과 석조감실
79 (54) 헌강왕릉
79 (55) 정강왕릉
80 (56) 통일전
80 (57) 서출지
82 (58)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83 (59) 염불사지
84 (60) 국사곡 삼층석탑
85 (61) 굴바위 절터
85 (62) 국사곡 제7사지
86 (63) 오산곡 마애여래상
86 (64)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
87 (65)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
88 (66) 승소곡 절터
88 (67) 천동곡 천동탑
89 (68)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90 (69) 칠불암 마애불상군
92 (70) 전 삼화령
93 (71) 남산신성
94 (72) 금오정
94 (73) 상사바위
95 (74) 사자봉
95 (75) 남산부석
96 (76) 지암곡 마애선각여래입상
97 (77) 윤을곡 마애불좌상
98 (78) 부엉골 마애여래좌상
99 (79) 부흥사
99 (80) 늠비봉 오층석탑
100 (81) 지곡 모전석탑
100 (82) 고위지
101 (83) 열반골
101 (84) 관음사
102 (85) 범굴바위 절터
102 (86) 은적암
103 (87) 와룡통천과 와룡사
104 (88) 천룡사
106 (89) 열암곡(새갓골) 석조여래좌상
107 (90) 열암곡(새갓골) 마애여래입상
108 (91) 열암곡 1사지
109 (92) 열암곡 3사지
109 (93) 봉수대
110 (94) 침식곡 석조여래좌상
111 (95) 백운암과 백운대
112 ◯ 남악(南岳)
113 ◯ 경흥우성
114 ◯ 진신수공
115 (96) 금광사지
115 ◯ 국사방
116 ◯ 쑥두덤골
117 남산팔경/전망 좋은 10곳
117 경주남산의 지정문화재
118 경주남산 재미있게 보는 방법
119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120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 ◯ 내 번호는 약도 번호와 해설 번호가 맞춰져 있습니다.

삼릉 가는 길

삼릉 가는 길은 남산의 서쪽 기슭을 걷는 신라의 역사를 찾아가는 길이다. 특히 억새가 피어나는 가을 들판 풍경은 아련한 고향의 풍경을 느끼게 한다.

최근 복원된 월정교로부터 신라 초기의 유적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도당산, 천관사지, 오릉, 나정, 남간사지, 창림사 등 신라 초기의 역사유적과 망국의 한이 서려있는 포석정을 볼 수 있고, 계속하여 지마왕릉,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삼릉으로 이어진다.

이 길은 군데군데 유적과 쉼터가 있으며, 험한 길은 없으나, 유적지를 이동하는 사이사이 숲길이 적어 햇빛을 가릴 모자와 양산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체 길은 8km 정도 되며, 3~4시간 정도 소요된다.
월정교 주차장에 승용차를 두었으면, 삼릉에서 시내로 향하는 시내버스(모두 가능)를 타고 탑리마을에서 내리면 된다.(걸어서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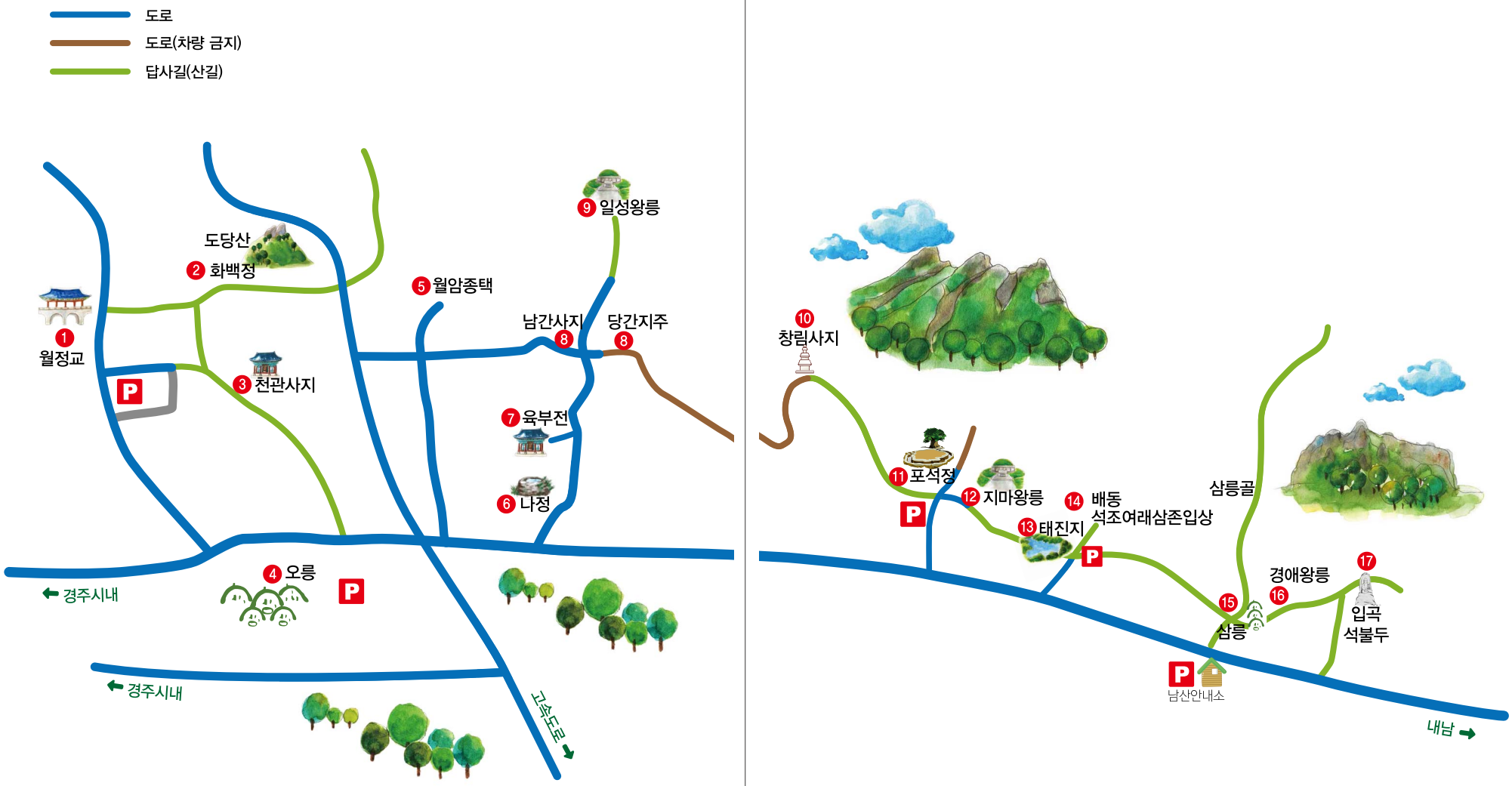
- 월정교 찾아가기 -

- 도　　보 : 버스터미널, 경주역 등에서 약 15~30분 소요.
- 승 용 차 : 고속도로 나와서 3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오릉방향)하여 700m 정도 진행하여 다리(남천교) 직전에서 우회전 하여, 650m 지점에서 월정교가 보이며, 그 앞에 월정교 주차장이 있다.
- 택　　시 : 시내에서 월정교 주차장으로 가면 됨. 5~10분 소요. 요금 3,000~5,000원 정도.
- 시내버스 : 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 앞은 아님), 경주역 등에서 내남행(500, 502, 505, 506, 507, 508번) 버스를 타고 탑리마을에서 하차(약 10분 소요), 월정교 방향 도보로 약 8분 소요. 배차시간은 500번이 30분.

월정교주차장 : 경주시 천원2길 11
서남산주차장 : 경주시 포석로 647

6 삼릉 가는 길
8 쉽게 찾아가는 삼릉 가는 길
34 ① 월정교
35 ② 도당산과 화백정
36 ③ 천관사지
38 ④ 오릉
39 ⑤ 월암종택
40 ⑥ 나정
41 ⑦ 육부전
42 ⑧ 남간사지
43 ⑨ 일성왕릉
44 ⑩ 창림사지
46 ⑪ 포석정
47 ⑫ 지마왕릉
47 ⑬ 태진지
48 ⑭ 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
49 ⑮ 삼릉
50 ⑯ 경애왕릉
51 ⑰ 입곡 석불두

쉽게 찾아가는 삼릉 가는 길



서남산 코스(삼릉에서 용장까지)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에서 시작하여 산기슭을 따라 삼릉을 참배하고, 냉골(삼릉계곡)을 따라 금오산 정상을 거쳐 용장계곡으로 하산하는 과정이다. 산을 오르면서 문화유적 답사도 겸할 수 있는 코스다. 등산복 차림에 도시락과 음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편의상 서남산 주차장에 주차하고 삼릉에서부터 출발해도 좋다.

이 코스는 신라시대의 석불을 시대적으로 모두 만날 수 있는 신라 석불의 보고이다. 먼저 삼국시대의 대표적 걸작인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통일신라의 문화적 성숙기에 조성된 풍만하면서도 늠름한 기상이 보이는 냉곡 석조여래좌상, 하늘에서 하강하는 모습의 마애관음보살상, 힘 있는 붓으로 한 번에 그린 듯한 선각육존불, 신라 말의 선각여래좌상, 8세기 중엽 문화적 성숙기의 기세를 반영한 듯 힘차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름다운 광배를 가졌으며, 최근에 얼굴이 복원된 석조여래좌상, 산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살며시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한 선각마애여래상,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크며 바위 속에서 나오는 듯한 순간을 새긴 마애석가여래좌상,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석탑이면서도 거대한 바위산을 하층기단으로 삼고 우뚝 선 용장사지 삼층석탑, 남산에서 가장 씩씩하고 아름다운 마애여래좌상, 대현스님께서 기도하면서 돌면 불상 또한 고개를 돌렸다는 용장사지 삼륜대좌불, 김시습이 머물면서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를 집필한 용장사지, 9세기에 조성된 방형대좌에 앉아 계신 약사여래좌상 등 실로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말기까지의 불상을 두루 만날 수 있다.(소요시간은 개인 4~5시간, 해설사 동행 6.5시간)

- 대중교통 이용 시 -

경주시내에서 내남행 버스(500, 505, 506, 507, 508번)를 타고(502는 아님), 삼불사 앞(또는 삼릉)에서 내리면 된다. (약 15분 소요) 돌아올 때는 용장리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타면 된다.(약 15분 소요)

삼불사주차장 : 경주시 포석로 692-25
서남산주차장 : 경주시 포석로 647

10 서남산 코스
12 쉽게 찾아가는 서남산 코스
48 ⑭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49 ⑮ 삼릉
52 ⑱ 냉곡 석조여래좌상
53 ⑲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54 ⑳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55 ㉑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56 ㉒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57 ㉓ 선각마애불
58 ㉔ 상선암 마애선각보살상
58 ㉕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59 ㉖ 바둑바위
59 ㉗ 상사바위와 소석불
60 ㉘ 금오산 정상
60 ㉙ 대연화대(삼화령)
62 ㉚ 탑 기단석
62 ㉛ 용장사곡 삼층석탑
63 ㉜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64 ㉝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65 ㉞ 탑재와 석등대석
65 ㉟ 용장사지
66 ㊱ 용장계 절골 석조약사여래좌상
67 ㊲ 약수곡 마애입불상
67 ㊳ 약수곡 석조여래좌상
68 ㊴ 비파바위
68 ㊵ 비파곡 삼층석탑

쉽게 찾아가는
서남산코스(삼릉에서 용장까지)

도로
도로(차량 금지)
답사길(산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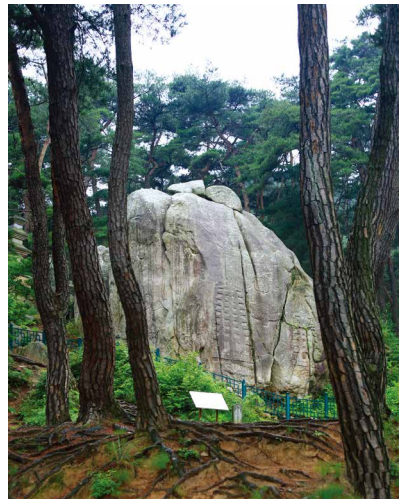
동남산 가는 길

전설이 있다. 신라의 역사가 있다. 유적이 살아 숨쉬는 노천 박물관이 동남산 기슭과 남천을 끼고 옹기종기 모여 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답사의 길 떠나보자.
토함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내동평야를 가로질러 보리사 마애여래좌상의 평온한 미소를 받고 동남산을 감싸면서 흐르는 남천은 서라벌에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고 있다. 신라인들의 불국토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남천은 오늘도 월명사(月明師)가 피리 소리로 달을 멈춘 월명리를 거쳐 월성을 구비 돌아 여유롭게 흐르고 있다.
남천의 모래처럼 우리도 오늘은 물길 따라 월정교, 인용사, 춘양교, 상서장, … 염불사까지 거슬러 올라 가보자.
월정교를 세운 경덕왕이 남산 삼화령에서 미륵 세존께 차공양하고 돌아오는 충담 스님을 만났다. 충담스님은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올렸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시고,
백성들은 어린아이라 여기시면,
백성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줄 알리이다.
굶실거리며 사는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스스로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면,
나라 안이 가히 되어 감을 알리이다.
아 ~ 아 ~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은 태평 할 것입니다.

동남산 아래 돌부처, 유적, 유물들 그리고 화랑교육원, 경북천년숲정원 모두가 안민가의 모습이기에 아침 햇살 받고 솔향기 맡으며 자연과 속삭이면서, 사뿐사뿐 가벼운 발걸음 옮기어 보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와 복원한 염불사지에서 바람결에 실려 오는 염불소리 들으며 평화의 염원으로 탑돌이를 해 보자.

월정교주차장 : 경주시 천원2길 11



14 동남산 가는 길
16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 가는 길
34 ① 월정교
69 ㊶ 인왕동사지
70 ㊷ 춘양교지(일정교)
70 ㊸ 정순임 판소리연구소
71 ㊹ 상서장
72 ㊺ 새벽비
72 ㊻ 고청기념관
73 ㊼ 불곡마애여래좌상
74 ㊽ 탑곡 제1사지 마애조상군
75 ㊾ 옥룡암과 탑곡마애불상군
76 ㊿ 보리사 마애석불
77 (51)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78 (52) 경북천년숲정원
78 (53) 화랑교육원과 석조감실
79 (54) 헌강왕릉
79 (55) 정강왕릉
80 (56) 통일전
80 (57) 서출지
82 (58)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83 (59) 염불사지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 가는 길

남산탐방길

남산은 신라의 도읍이었던 경주 분지의 남쪽에 있으며, 불교유적의 보고(寶庫)이자 신라인들의 영산(靈山)이며, 신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북의 금오봉(金鰲峰, 468m)과 남의 고위봉(高位峰, 494m)을 중심으로 동서 너비 4km, 남북 길이 9km의 타원형으로, 한 마리의 거북이 서라벌 깊숙이 들어와 엎드린 형상이다. 골은 깊고 능선은 변화무쌍하여 기암괴석이 만물상을 이루었으니 작으면서도 큰 산이다.

남산에는 온갖 전설이 남아 있고,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역사의 산이며, 선조들의 숨결이 가득한 민족문화의 산실이다.

이 산 주변에는 신석기 말기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신라시조 박혁거세거서간이 탄강(誕降)하신 나정(蘿井)과 초기 왕궁, 나을신궁(奈乙神宮), 왕릉이 즐비하며, 도성(都城)을 지켜온 남산신성(南山新城)을 비롯한 4곳의 산성과, 망국의 한이 서린 포석정지(鮑石亭址)가 있고, 수많은 불상과 탑들이 남아 있어 남산은 실로 신라 천년의 역사와 함께 한 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서 깊은 산 기슭에 신라궁성의 다리였던 월정교가 복원되고, 도당산터널이 건설되면서 남산탐방길이 조성되어 남산의 유적을 찾기가 한결 쉬워졌다. 이에 남산탐방길을 따라가면서 신라 천년의 역사와 신앙과 정서를 듬뿍 느껴보자.

- 월정교 찾아가기 -

- 도　　보 : 버스터미널, 경주역 등에서 약 15~30분 소요.
- 승 용 차 : 고속도로 나와서 3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오릉방향)하여 700m 정도 진행하여 다리(남천교) 직전에서 우회전 하여, 650m 지점에서 월정교가 보이며, 그 앞에 월정교 주차장이 있다.
- 택　　시 : 시내에서 월정교 주차장으로 가면 됨. 5~10분 소요. 요금 3,000~5,000원 정도.
- 시내버스 : 시외버스터미널(고속버스터미널 앞은 아님), 경주역 등에서 내남행(500, 502, 505, 506, 507, 508번) 버스를 타고 탑리마을에서 하차(약 10분 소요), 월정교 방향 도보로 약 10분 소요. 배차시간은 500번이 30분.

월정교주차장 : 경주시 천원2길 11

18 ○ 남산탐방길
20 ○ 쉽게 찾아가는 남산탐방길
34 ① 월정교
35 ② 도당산과 화백정
92 ⑩ 전 삼화령
93 ⑪ 남산신성
94 ⑫ 금오정

서남산방향 / 금오봉방향 / 동남산방향

94 ⑬ 상사바위
95 ⑭ 사자봉
60 ㉘ 금오산 정상

모든 코스로 연결

99 ㊵ 늠비봉 오층석탑
99 ㊴ 부흥사
98 ㊳ 부엉골 마애여래좌상
97 ㊲ 윤을곡 마애불좌상
46 ⑪ 포석정
44 ⑩ 창림사지
42 ⑧ 남간사지
40 ⑥ 나정
36 ③ 천관사지

○ 일천바위 능선
75 ㊾ 탑곡 마애불상군
73 ㊼ 불곡 마애여래좌상
71 ㊹ 상서장
69 ㊶ 인왕동사지

월정교

쉽게 찾아가는 남산탐방길

도로
도로(차량 금지)
답사길(산길)

동남산코스

금오봉과 고위봉에서 뻗어 내린 60여개의 능선과 골짜기들을 남산이라 하며, 서쪽면을 서남산이라 하고, 동쪽면을 동남산이라 부른다. 서남산은 거치른 바위가 많아 경사가 가파르고 질 좋은 바위가 많아 드러난 마애불과 절터가 많지만, 동남산은 소나무 우거진 깊은 골짜기 속 곳곳에 절터와 탑·불상이 숨어 있다. 북쪽 기슭의 불곡감실여래좌상을 비롯하여, 탑곡 마애불상군, 미륵곡 석조여래좌상과 마애불이 있고, 국사곡·지암곡에 이르러서는 기기묘묘한 바위들과 탑들이 골골이 숨어 만물상을 이루고 있으며, 오산곡, 승소곡, 천동곡 깊은 골에는 절터가 허다하고, 봉화곡 칠불암과 신선암에 이르러서는 기암절벽을 배경으로 하여 부처님의 선경을 이루어 놓았다.
이곳이 바로 원효대사께서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에서 일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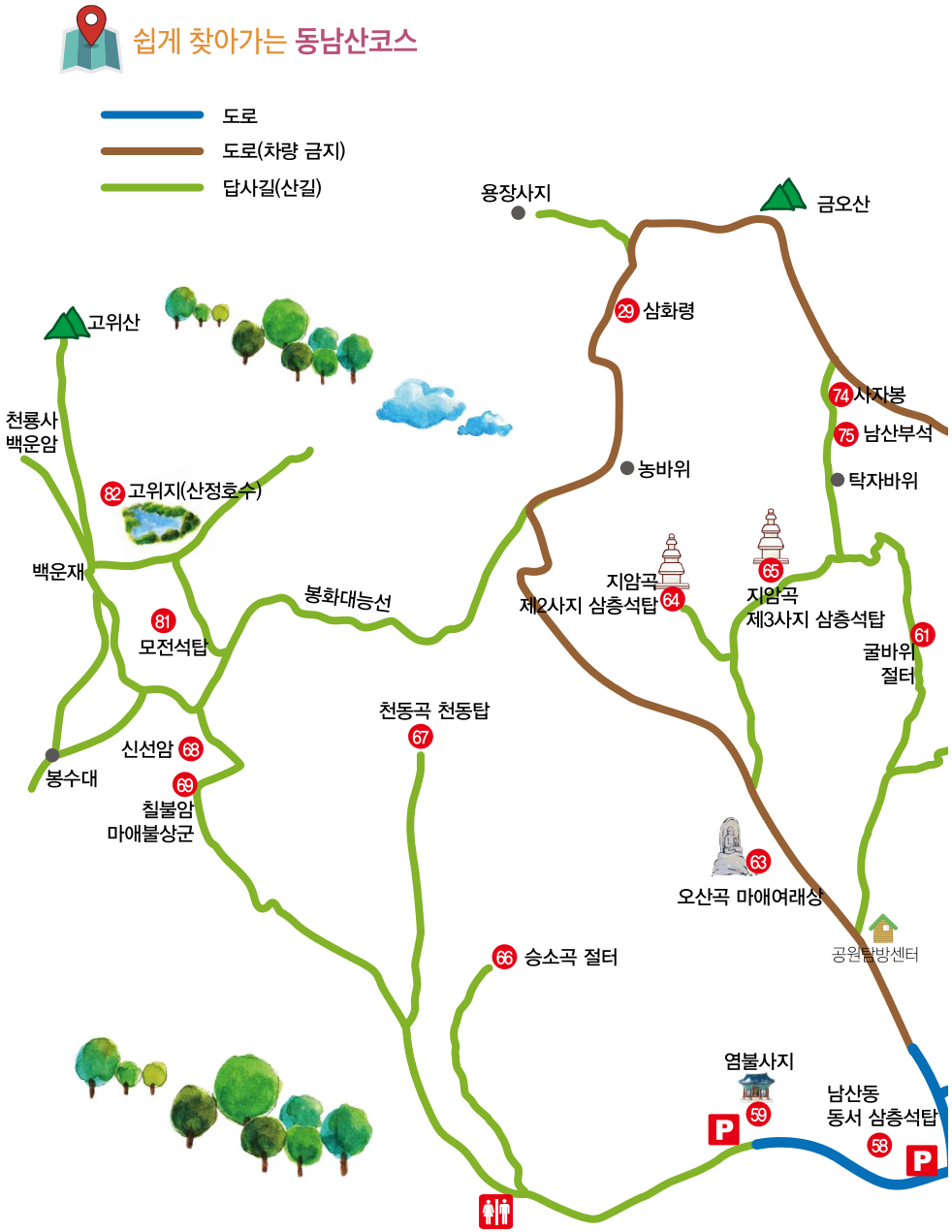
高嶽峩巖은 智人所居요 碧松深谷은 行者所棲니라
助響巖穴로 爲念佛堂하고 哀鳴鴨鳥로 爲歡心友니라
높은 산 솟은 바위 밝은 이가 살 곳이요
푸른 솔숲 깊은 골은 닦는 이의 처소로세
울려주는 바위굴로 염불하는 도량 삼고
슬피 우는 새소리로 마음 속 벗 삼네. 가 아니겠는가?

동남산의 모든 답사는 통일전 주차장에서 시작되며, 주요한 답사길은 다음과 같다.
1. 불곡, 탑곡, 미륵곡
2. 일천바위능선을 올라 금오정으로
3. 철와골에서 금오정으로
4. 국사곡 삼층석탑을 지나 금오정으로
5. 지바위골의 탑을 찾아 사자봉으로
6. 순환도로를 따라 금오봉으로
7. 칠불암 가는 길

통일전주차장 : 경주시 칠불암길 6

22 동남산코스
24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코스
73 ㊼ 불곡마애여래좌상
75 ㊾ 옥룡암과 탑곡마애불상군
76 ㊿ 보리사 마애석불
77 51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78 52 경북천년숲정원
78 53 화랑교육원과 석조감실
79 54 헌강왕릉
79 55 정강왕릉
80 56 통일전
80 57 서출지
82 58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83 59 염불사지
84 60 국사곡 삼층석탑
85 61 굴바위 절터
85 62 국사곡 제7사지
86 63 오산곡 마애여래상
86 64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
87 65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
94 72 금오정
94 73 상사바위
95 74 사자봉
95 75 남산부석
88 66 승소곡 절터
88 67 천동곡 천동탑
89 68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90 69 칠불암 마애불상군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코스



고위산 가는 길

동도 남산의 남쪽에
한 봉우리가 홀연히 솟아 있는데 속칭 고위산이라 한다.
금오봉과 마주하여 남쪽으로 이어지며 해발 494m로 남산의 최고봉이다.
동쪽 봉우리에는 봉화대와 신선암, 칠불암이 있고,
계속하여 봉화대능선으로 이어져 이영재를 지나 금오봉으로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천왕지봉을 거쳐 정씨 시조묘로 나아가고,
멀리 마석산과 치술령을 마주보고 있다.
남서쪽으로는 용의 등에 해당되는 바위 능선과 용두암(龍頭巖)으로 이어져
천룡사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으며,
천룡사지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면 기승지(奇勝地)인 열반계가 있고,
서쪽으로 내려가면 와룡통천(臥龍洞川)과 와룡폭포가 있다.
북서쪽으로는 열반재와 황발봉으로 이어지는 능선,
북쪽으로는 이무기 능선과 쌍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 고위산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으나, 대표적인 길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전에서 칠불암을 지나 고위산으로
2. 금오봉에서 봉화대능선을 거쳐 고위산으로
3. 용장에서 열반곡을 거쳐 고위산으로
4. 용장에서 이무기능선을 올라 고위산으로
5. 용장에서 은적암을 거쳐 고위산으로
6. 와룡사에서 고위산으로
7. 열암곡에서 고위산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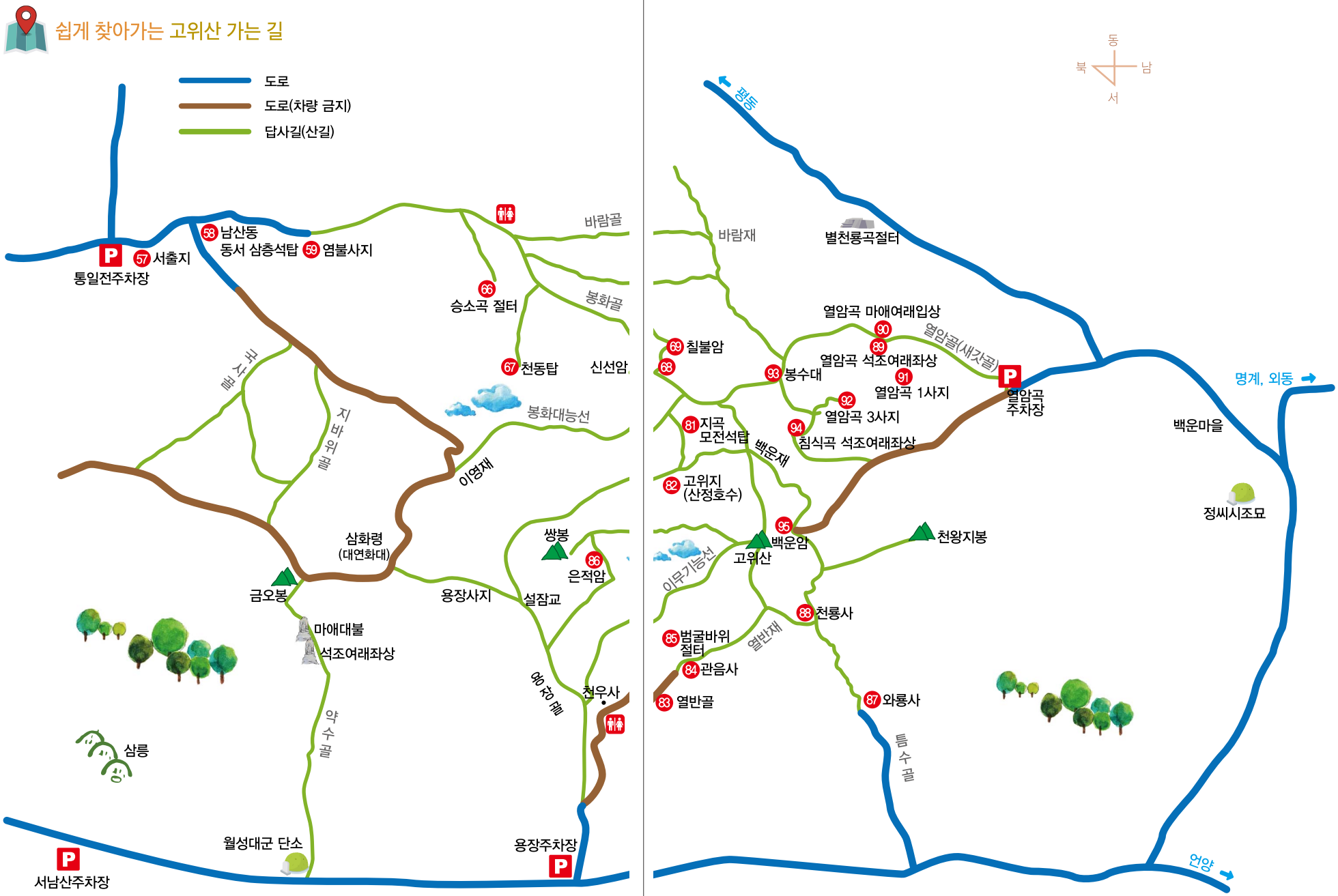
22 고위산 가는 길
24 쉽게 찾아가는 고위산 가는 길
80 ㊼ 서출지
82 ㊽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83 ㊾ 염불사지
88 ㊿ 승소곡 절터
88 (67) 천동곡 천동탑
89 (68)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90 (69) 칠불암 마애불상군
100 (81) 지곡 모전석탑
100 (82) 고위지

101 (83) 열반골
101 (84) 관음사
102 (85) 범굴바위 절터
102 (86) 은적암

103 (87) 와룡통천과 와룡사
104 (88) 천룡사

106 (89) 열암곡(새갓골) 석조여래좌상
107 (90) 열암곡(새갓골) 마애여래입상
108 (91) 열암곡 1사지
109 (92) 열암곡 3사지
109 (93) 봉수대
110 (94) 침식곡 석조여래좌상
111 (95) 백운암과 백운대

쉽게 찾아가는 고위산 가는 길



삼국유사 찾아가는 길

남산은 불교유적의 보고이자 신라인들의 영산이며, 신라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다. 남산에는 온갖 전설이 남아 있고, 신라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역사의 산이며, 선조들의 숨결이 가득한 민족문화의 산실이다. 이 산 주변에는 신석기 말기부터 사람이 살았고, 박혁거세 거서간이 탄강한 나정과 초기 왕궁, 나을신궁, 왕릉이 즐비하며, 도성을 지켜온 남산신성을 비롯한 4곳의 산성과, 망국의 한이 서린 포석정지가 있어, 신라 천년의 역사와 함께 한 산이라 할 수 있다.

아득한 옛날부터 남산 속, 바위 속에는 신들이 머물면서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준다고 신앙되었고,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는 산 속, 바위 속의 신들이 부처와 보살로 바뀌어 불교의 성산으로 신앙되어 왔다. 이러한 신앙은 『삼국유사』에 많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비파바위의 부처님이 망덕사의 낙성재에 누추한 옷차림으로 참석하였는데, 왕이 그 누추함을 업신여기자, 왕을 꾸짖고는 홀연히 남산 바위 속으로 숨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초라한 모습으로 광주리에 마른 생선을 담아 들고 나타난 거사를 경흥국사의 시종이 나무라자, 말을 타고 호사스럽게 지내는 경흥국사를 크게 꾸짖고는 다시 남산 속으로 숨어버린 문수보살의 이야기도 있고, 충담스님은 삼화령 미륵세존에게 차 공양을 올린 후, 경덕왕에게 「안민가」를 지어 올려 군신과 백성들이 서로의 본분을 다할 때 나라가 태평하다고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화들은 곧 남산과 바위 속에는 부처와 보살이 머물면서 권세 있는 자나, 존경받는 지식인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는 호되게 꾸짖고 가르침을 주고는 다시 산 속, 바위 속에 숨었다가, 백성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보살펴 준다고 신앙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신앙은 예술로 승화되고 표현되어, 골마다 절이 세워지고, 바위마다 불상이 조성되며, 수많은 탑이 세워져 불국토를 이루었던 것이다.

30 삼국유사 찾아가는 길
32 쉽게 찾아가는 삼국유사 찾아가는 길
34 ① 월정교
35 ② 도당산
36 ③ 천관사지
38 ④ 오릉
40 ⑥ 나정
42 ⑧ 남간사지
44 ⑩ 창림사지
46 ⑪ 포석정
60 ㉙ 삼화령
64 ㉝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69 ㊶ 인왕동사지
79 ㊹ 헌강왕릉
80 ㊼ 서출지
82 ㊽ 양피사지
83 ㊾ 염불사지
93 ㊶ 남산신성
104 ㊽ 천룡사
112 남악
113 경흥우성
114 ㉜ 비파바위
115 ㊻ 금광사지
115 ㊵ 국사방
116 쑥두덤골

쉽게 찾아가는 삼국유사 찾아가는 길

월정교①

사적 457호

월정교는 신라 천년 궁성이었던 월성을 감싸고 흐르는 문천 위에 놓인 다리다. 서라벌의 남쪽에서 왕경의 도심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었다. 또한 왕궁에서 남산신성과 남산의 수많은 절들로 가는 통로이다. 이 다리를 건너면 인용사, 천관사, 나정과 신궁, 창림사, 포석정, 오릉, 삼릉 등 수 많은 역사유적과 만나게 된다.

『삼국사기』에 "경덕왕 19년(760) 2월 궁궐 남쪽 문천 위에 월정(月淨)·춘양(春陽) 두 다리를 놓았다." 하였다. 당시 신라는 18만호 규모의 국제적인 대도시였고, 천년 역사 중 정치적·문화적으로 가장 안정되고 번영하던 시기였다.

이후 고려 충렬왕 6년(1280)에 수리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520년 이상 사용되었던 다리이다. 발굴조사결과 4개의 교각과 길이 63m, 폭 12m로 회랑 형태의 누각형 다리임이 확인되어 그렇게 복원하였다.

경덕왕 24년(765) 3월 3일 충담스님이 이 다리를 건너 귀정문(歸正門)에서 경덕왕을 만나 차 한 잔 올리고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올렸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시고,
백성들은 어린아이라 여기시면,
백성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줄 알리이다.
굶실거리며 사는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스스로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면,
나라 안이 가히 되어 감을 알리이다.
아 ~ 아 ~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은 태평 할 것입니다.

원효대사께서 남산을 내려와서 요석궁으로 들어갈 때 물에 빠진 다리는 19m 아래에 있던 유교(楡橋:느릅나무다리)였다.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1)에서 걸어서 4분

도당산과 화백정②

남산에서 북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의 끝머리에 솟은 산이 도당산이다. 세 봉우리로 이루어진 작은 산이며 월성에서 마주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산이다. 이 산에는 원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성의 흔적이 남아 있어 도당토성으로 불리어지며,

『삼국유사』 <진덕왕>조에 기록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곳에서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령지의 우지암으로 추정되고 있다.

28대 진평왕때 알천공·임종공·술종공·호림공·염장공·유신공이 남산의 우지암에 모여 나랏일을 의논하였다. 이때 큰 범 한 마리가 좌중에 뛰어 들었다. 모두 놀라 일어났으나 알천공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담소하면서 범의 꼬리를 잡아 땅에 메쳐 죽였다. 알천공의 완력이 이와 같아 윗자리에 앉았으나, 여러 공들은 유신공의 위엄에 감복하였다. 신라에는 네 곳의 신령스러운 땅이 있어 나라의 큰일을 의논할 때 그곳에 모여 의논하면 반드시 이루어졌다. 첫째는 동쪽의 청송산이요, 둘째는 남쪽의 우지산이요, 셋째는 서쪽의 피전이요, 넷째는 북쪽의 금강산이다.

2016년 남산탐방길을 조성하면서 화백정을 세워 놓으니, 이곳에서 월성과 월정교 등 신라도성이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화백(和白) - 『新唐書(신당서)』「東夷列傳 新羅(동이열전 신라)」편에 있다.
...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
(나라에)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의논하는데, 이를 화백이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의견이 다르면 그만두었다.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1)에서 걸어서 10분

천관사지③

사적 34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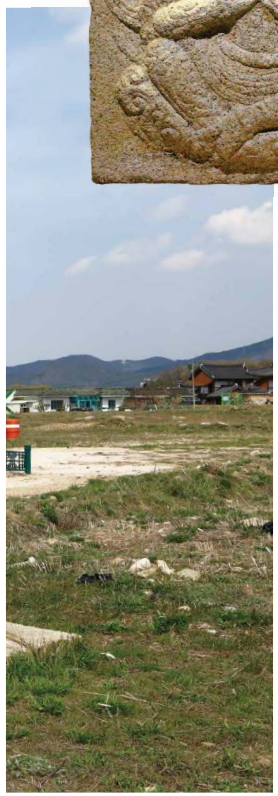
절터는 도당산 서쪽 기슭에 있으며 신라시대 김유신이 사랑하던 기생 천관(天官)의 집을 절로 바꾼 곳이라고 고려시대 이인로의 『파한집(破閑集)』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김유신은 어머니 만명부인의 엄한 훈계를 명심하여 함부로 남과 사귀지 않았지만, 하루는 우연히 기생 천관의 집에 유숙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훈계를 들은 뒤 천관의 집에 들르지 않았다. 그 후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말이 이전에 다니던 길을 따라 천관의 집에 이르렀다. 김유신이 잘못을 깨닫고 타고 갔던 말의 목을 베고 안장을 버린 채 돌아 왔다. 훗날 김유신은 삼국을 통일한 뒤 사랑하였던 옛 여인을 위하여 천관의 집터에 절을 세우고 그녀의 이름을 따서 천관사(天官寺)라 하였다. 절의 역사는 알 수 없으나 고려 중기 『파한집』에 동도(東都)에 천관사가 있다고 하여, 당시까지는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36대 혜공왕 16년(780)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자 상대등이던 김양상과 김경신이 난을 진압하였으나, 왕은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김양상이 왕위에 오르니 선덕왕(780~785)이다.

이찬 김주원이 처음에 상재(上宰)가 되고 왕은 갓간으로서 이재(二宰)에 있었는데, 꿈에 복두를 벗고 흰 갓을 쓰고 12현금(거문고)을 들고 천관사 우물 속으로 들어갔다. 점을 치게 했더니 "복두를 벗은 것은 벼슬을 잃을 징조요, 현금을 든 것은 목에 칼을 쓸 징조요, 우물 속으로 들어간 것은 옥에 갇힐 징조입니다"했다. 왕은 몹시 근심하여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때 아찬 여삼이 와서 꿈을 다시 풀이하기를 "복두를 벗은 것은 위에 앉는 이가 없음이요, 흰 갓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쓸 징조요, 12현금을 든 것은 12대손까지 왕위를 이어갈 징조요, 천관사 우물에 들어간 것은 궁궐에 들어갈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왕이 "위에 주원이 있는데 어떻게 왕위에 오를 수 있단 말이오?" 아찬이 "비밀히 북천신에게 제사지내면 좋을 것입니다"하니 이에 따랐다. 얼마 후 선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은 김주원을 왕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그의 집이 북천 북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냇물이 불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이에 왕이 먼저 궁에 들어가 왕위에 오르자 대신들이 모두 와서 새 임금에게 축하를 드리니 이가 원성대왕이다.



이후 멸망 때까지의 18왕들은 모두 대왕의 후손이었으니 꿈의 응험이었다.

원성왕의 이야기에서 볼 때, 천관사는 신라의 왕위계승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성왕을 전후한 시기에 천관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사찰로, 한 여인이 살던 집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관(天官)은 일관(日官), 해관(海官) 등과 같이 왕에게 정치적인 자문을 담당하던 관리로, 여인의 이름이 아닌 천운(天運)을 살피던 샤먼(shaman) 성격의 제관(祭官)일 것으로 추정된다.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있던 천관사는 발굴조사하고, 특이한 모습(이중기단에 팔각 탑신과 팔각 옥개석)의 삼층석탑을 복원하였다. 또한 팔부중상이 있는 전형석탑의 부재도 절터에 남아 있으며, 일부는 박물관에 옮겨졌다.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걸어서 6분

오릉④

사적 172호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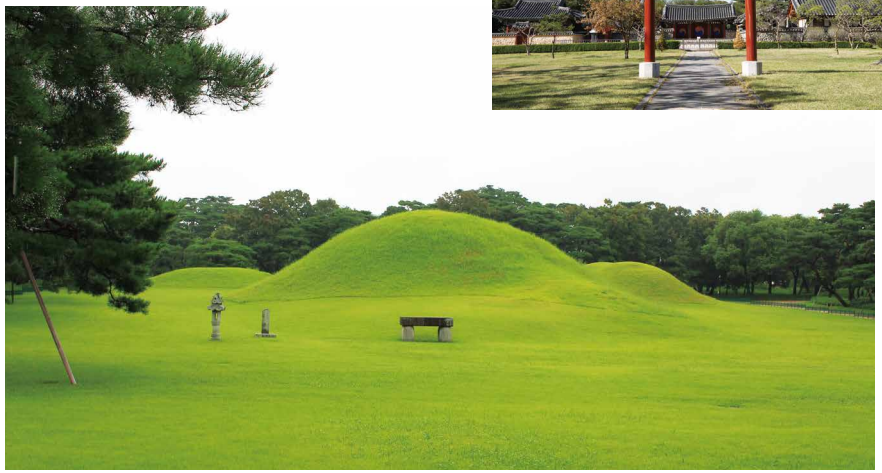
나라를 다스린 지 61년 되던 해 왕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7일 뒤에 그 유체가 땅에 흩어져 떨어졌다. 왕후도 세상을 떠났다. 나라 사람들이 합하여 장사지내려고 하니 큰 뱀이 나타나 쫓아다니면서 방해하므로 다섯 몸뚱이를 각각 장사지내어 오릉이 되었고, 또한 사릉이라고 하니, 담엄사 북쪽 능이 이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시조왕, 2대 남해차차웅, 3대 유리이사금, 5대 파사이사금을 사릉에 장사지냈다."* 하여, 『삼국유사』와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조용하고 넓은 경내에는 6기의 고분이 모여 있으며, 조선 세종 11년(1429)부터 제향을 올리던 숭덕전(崇德殿)과 그 뒤쪽에 알영비가 탄생한 알영정이 있다.

또한, 숭덕전 앞 홍살문과 주차장 일대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전불칠처가람의 하나인 담엄사지로 알려져 있다.

경주시 탑동 231-1



월암종택⑤

국가민속문화재 34호

조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 때 가장 먼저 창의(倡義:국난을 당했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하신 김 호 장군(1534~1592)의 고택이다. 장군은 1570년 무과에 급제하고 훈련원봉사를 끝으로 20여 년의 관직을 사직하고 낙향하여 있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경주의 각 군현을 다니면서 민심의 안정을 꾀하고 적진을 공략하였다. 큰 공을 세워 부산 첨사에 제수되었으나, 1592년 8월 경주 노곡전투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전사하여 임지에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영조 34년(1758) 다시 형조참판에 추증되었다.

종택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민가 건물 중 하나로 옛 건축 수법과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안채, 왼쪽에 아래채, 오른쪽 뒤편에 가묘가 배치되어 있다. 오른쪽 높은 곳에 사랑채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안채의 구성은 '一'자형 외줄박이 홑집으로 단순하지만 대청 고방(庫房) 앞에 문짝을 달았다는 점과, 아래채 굴뚝이 부뚜막 한 곳에 둔 것이 특이하다. 이곳은 신라시대 절터로서, 지금의 건물은 17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주변에 통일신라시대의 여러 석조물들이 있고, 마당의 우물뚜껑돌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후손이 살며 가풍을 이어가고 있다. 고즈넉한 분위기에 인심도 후하여 쉬어가기 좋다. 고택 체험도 할 수 있다.

경주시 식혜골길 35

나정⑥

사적 245호

신라시조 박혁거세거서간이 탄강하신 전설을 간직한 우물이 있던 자리라고 알려져 왔었다. 신라가 세워지기 전 경주 일대는 진한의 땅으로 육부촌장들이 나누어 다스리고 있었다.

전한 지절 원년 임자(BC69) 3월 초하루에 육부의 조상들이 알천의 언덕 위에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도 덕 있는 사람을 찾아 군주로 삼아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하여야 하지 않겠소!"하였다. 이에 높은 곳에 올라 남쪽을 바라보니 양산 아래 나정의 우물가에 이상한 기운이 땅에 드리우고, 흰 말 한 마리가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곳을 찾아 살펴보니, 자줏빛 알 한 개가 있었다. 알을 깨어보니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동천에서 목욕을 시키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따라서 춤을 췄다. 이에 그 아이를 혁거세왕이라고 이름하고 호를 거슬한이라고 했다.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

최근까지 소나무 숲 가운데 조그마한 비각이 하나 있었다, 그 뒤에 주춧돌로 보이는 네 개의 돌이 규칙적으로 사방에 둘러져 있었고, 가운데는 우물을 덮은 것으로 알려진 넓은 판석이 놓여있었다. 비석은 조선 순조 3년(1803)에 세워졌다. 2002년 나정의 비각을 다시 지으려고 일대를 발굴하면서 그동안 추정해온 나정의 신비로움이 실체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완전한 팔각형 기단을 갖춘 건물터(한 변 8m 정도, 지름 20m, 넓이 300㎡)와 그 주위를 둘러싼 4각의 담장 유구가 발견되었다. 이 밖에도 연화문과 수막 새, 암막새 등 특수 기와도 출토되었다. 팔각의 건물 유적과 우물 등이 있었다는 것은 이곳이 제사 터이며, 신궁으로 가장 중요시되던 공간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신화로만 여겨졌던 신라 건국이 실존의 역사로 확인된 발굴이었다. 이 터에 신궁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경주시 탑동 700-1

육부전⑦

옛날 진한의 땅에 육촌이 있었다. 첫째는 알천 양산촌이니, 촌장은 알평이다. 처음에 표암봉에 내려오니, 이가 급량부 이씨의 조상이 되었다. 둘째는 돌산 고허촌이니, 촌장은 소벌도리이다. 처음에 형산에 내려오니 이가 사량부 정씨의 조상이 되었다. 셋째는 무산 대수촌이니, 촌장은 구례마이다. 처음에 이산에 내려오니 이가 점량부 손씨의 조상이 되었다. 넷째는 자산 진지촌이니, 촌장은 지백호이다. 처음에 화산에 내려오니 이가 본피부 최씨의 조상이 되었다.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이니, 촌장은 지타이다. 처음에 명활산에 내려오니 이가 한기부 배씨의 조상이 되었다. 여섯째는 명활산 고야촌이니, 촌장은 호진이다. 처음에 금강산에 내려오니 이가 습비부 설씨의 조상이 되었다. 『삼국유사』 <신라시조 혁거세왕>

육부전은 신라 건국의 주체였던 육부촌장들의 위패를 모시고 춘추로 향사를 지내는 곳으로, 1970년에 건립하였다. 『삼국사기』에는 성씨의 순서와 이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이씨, 최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 그러나 육부전에는 『삼국사기』 <신라본기> <시조>조의 육부순서에 따라 알천양산촌(은열왕, 이알평), 돌산고허촌(문열왕, 최소벌도리), 취산진지촌(감문왕, 정지백호), 무산대수촌(문의왕, 손구례마), 금산가리촌(장열왕, 배지타), 명활산고야촌(장무왕, 설호진) 순으로 위패를 모시고 있다.

경주시 남간길 3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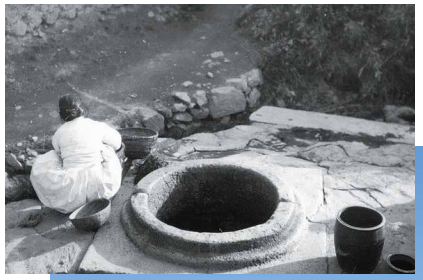
남간사지⑧

당간지주 · 보물 909호

『삼국유사』 <원종흥법 염촉멸신>조에 "원화 연간에 남간사의 승려 일념이 촬향분예불결사문을 지었는데, 이 사실이 자세히 실려 있으니 … "
법흥왕 14년(527) 왕이 불법을 크게 일으키고 이차돈이 순교한 내용을 남간사의 승려 일념이 원화 연간(806~820)에 이차돈의 무덤에 향을 피워 예불을 올리는 모임을 결성하고 결의문을 지어 비를 세웠는데, 비문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실려 있다는 기록이다.

『삼국유사』 <혜통항룡>조에는 "승려 혜통은 그 씨족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벼슬로 있을 때 그의 집은 남산 서쪽 기슭인 은천동 어귀(지금의 남간사 동리)에 있었다. 어느 날 집 동쪽 시내에서 놀다가 수달 한 마리를 잡아 죽이고 그 뼈를 동산에 버렸다. 이튿날 새벽에 나가보니 그 뼈가 없어져 핏자국을 따라 찾아가니 뼈는 살던 굴로 되돌아가 새끼 다섯 마리를 안고 쭈그리고 있었다. 한참이나 바라보고 이상히 여겨 감탄하고 망설이다가, 마침내 속세를 버리고 출가하여 이름을 혜통으로 바꿨다."

경주시 남간길 65



위 이야기로 보아, 남간사는 통일 후 31대 신문왕 이후, 41대 헌덕왕대 이전에 창건된 것을 알 수 있다. 남간마을 곳곳에 절터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목탑터, 석탑재, 하수구, 팔각대석, 주춧돌, 장대석들이 흩어져 있으며, 신라 때부터 최근까지 사용되던 우물이 있고, 마을의 남쪽 들판에는 남산에서 유일한 당간지주가 우뚝 서 있다. 당간지주는 절에 행사가 있을 때 불보살의 위덕을 표시하는 깃발을 올리는 당간을 지탱하는 돌기둥이다. 높이 3.6m이며, 위로 올라 갈수록 폭이 좁아져 안정감을 준다. 당간을 고정시키기 위해 홈을 판 '十'자형 간구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이다. 당간지주에서 바라보는 절터는 그 옛날 이 절이 얼마나 웅장하였는지 실감나게 한다.

일성왕릉⑨

사적 173호

일성이사금(재위 134~151)은 재위 중 북쪽 변방으로 침입하는 말갈을 막았다. 특히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며 식량은 백성들이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모든 주·군에서는 제방의 수리를 완전하게 하여 논밭을 널리 개척하게 함으로써 농본정책을 폈고, 백성들이 금은주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여 사치를 못하도록 하였다. 무덤은 밑뿌리에 돌을 돌려 봉분을 보호하도록 했고, 위로 흙을 쌓아 만든 원형봉토분이다. 왕릉은 1730년경 박씨 종중에서 열조(烈祖) 현창사업으로 지정되었다.

보광사(경주시 남간길 99)에서 걸어서 3분

창림사지⑩

탑·보물 1867호

창림사지는 나정에서 탄강하신 박혁거세와 알영비를 받들어 길렀던 신라 최초의 궁궐터이다. 통일 후 옛 궁궐터에 절이 세워졌는데, 김생이 지은 창림사비가 있었다고 하여 38대 원성왕 7년(791) 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다. 4단으로 이루어진 넓은 절터에는 삼층석탑과 석탑재, 수많은 주춧돌, 쌍귀부, 석등연화대 등이 남아있다.

절터에 우뚝하게 솟아 있는 삼층석탑은 남산에서 가장 큰 석탑이다. 상륜부가 없어졌음에도 높이는 6.5m에 달한다. 상륜부가 있었다면 9m에 이르는 거대한 탑이 된다. 절터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풍광이 시원하게 한눈에 들어온다. 탑의 규모도 엄청나지만 팔부중상이 가장 먼저 새겨진 석탑이기도 하다. 상층 기단에 아수라, 용, 천, 마후라가(뱀)만 남아있는데, 이 탑을 시작으로 팔부중상이 새겨진 탑들이 서울과 지방에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탑은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8세기 중엽에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파괴되어 쓰러져 있던 것을 1979년에 없어진 부분을 보충하여 복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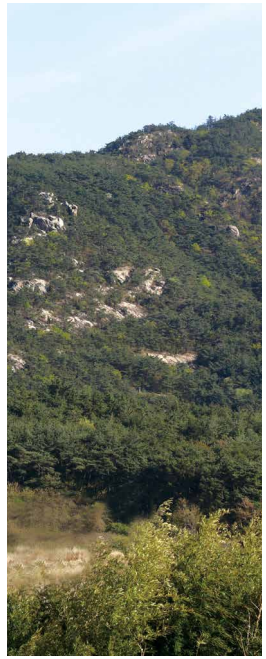
이 탑과는 별도로 아래에 위치한 절터에서 팔부중상이 새겨진 쌍탑이 발굴되었는데, 이 탑은 1824년 석공들이 묘지석의 공정을 줄이려고 무너뜨리면서, 「무구정탑원기」가 발견되어 46대 문성왕이 발원하여 855년에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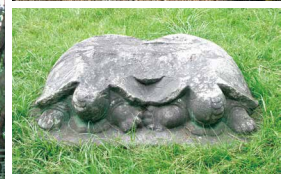
『삼국유사』 <전후소장사리>조에는 "당 대중5년(851) 당나라에 갔던 사신 원홍이 불아(佛牙)를 가져왔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신라 문성왕대이다"라고 하였고, 『고려사』에는 "현종 12년(1021) 여름 오월 무자일(戊子日)에 왕이 상서좌상 이가도에게 명하여 경주 고선사의 금라가사와 불정골(佛頂骨), 창림사 불아(佛牙)를 가져다 내전에 함께 안치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851년에 모셔온 부처님 치사리(齒舍利)가 855년 창림사 무구정탑에 납입되었다가, 1021년 고려 왕궁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탑에서 출토된 「창림사무구정탑원기」는 추사 김정희가 자신의 문집에 베껴 두었고,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었으나, 1968년 경기 이천 영원사의 대웅전 기둥 아래에서 출토되었다가, 2011년 확인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금은 수원 용주사 효행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다.

창림사지는 그 유물과 유적이 발견된 범위를 보아 남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절이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이곳에서는 석탑 외에도 앙증맞을 정도로 귀여운 쌍귀부가 남아있다. 곡선이 강조되어 부드럽게 느껴지기도 해서 무열왕릉의 귀부와는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창림사지(경주시 배동 산 6-1. 남간사지 또는 포석정에서 걸어서 15분)





포석정⑪

사적 1호

포석정은 신라의 멸망을 상징하는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알려져 왔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두 가지 이야기가 남아있다.

신라 49대 헌강왕이 "**포석정에 갔을 때 남산신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는데 좌우에서는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신이 나타나 앞에서 춤을 추니 왕도 춤을 추면서 형상을 보였다. 신의 이름을 상심이라고도 했으므로 지금까지 나라 사람들은 이 춤을 전해서 어무상심 또는 어무산신이라 한다**"하였다.

또, 55대 경애왕 4년(927) **가을 9월 후백제 견훤은 고울부(영천)를 점령하였다. 경애왕은 위기를 당하여 고려 태조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견훤은 구원병이 미쳐 이르기 전 겨울 11월 갑자기 서라벌로 쳐들어 왔다. 이때 왕과 왕비, 궁실의 종친들은 포석정에서 잔치를 베풀고 즐겁게 놀고 있어, 적의 군사가 닥치는 것을 깨닫지 못하여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왕은 붙잡혀 군영에 이끌려 나와 핍박당하여 자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려 건국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신라를 타락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역사의 왜곡으로 보인다. 적군이 곧 들이닥칠 급박한 상황에서 이웃 나라에 구원요청을 하고, 겨울에 야외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1989년 발견된 『화랑세기』에 의하면, **진평대왕과 세종전군이 포석사**(鮑石祠)**에 나아갔다**는 일화, **문노가 죽자 포석사에 신으로 모셨다**는 기사, **김춘추와 문희가 길례**(吉禮)**를 치렀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포석정은 호국신을 모시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던 곳으로 추정된다. 경애왕도 이곳에서 호국신에게 제사지내고 기도하다 견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리라.

구불구불한 돌 홈 사이에 물을 흐르게 하고 그 위에 술잔을 띄웠다는 것은 제례 의식을 행하던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유상곡수의 연회는 353년 3월 중국 동진의 난정에서 왕희지가 행했던 기록이 있으나, 동양 삼국에서 남아 있는 유상곡수의 흔적은 포석정 유구가 가장 오래되었다.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지마왕릉⑫

사적 221호

지마이사금(재위 112~134)은 5대 파사이사금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받아 23년간 재위하면서 가야·왜구·말갈의 침입을 막았다. 무덤의 외형은 비교적 규모가 큰 원형봉토분으로 남산에서 뻗은 경사면을 이용하여 높은 곳에 만들었을 뿐 별다른 특징이 없다. 왕릉은 1730년경 박씨 종중에서 열조(烈祖) 현창사업으로 지정하였다.

경주시 배동 4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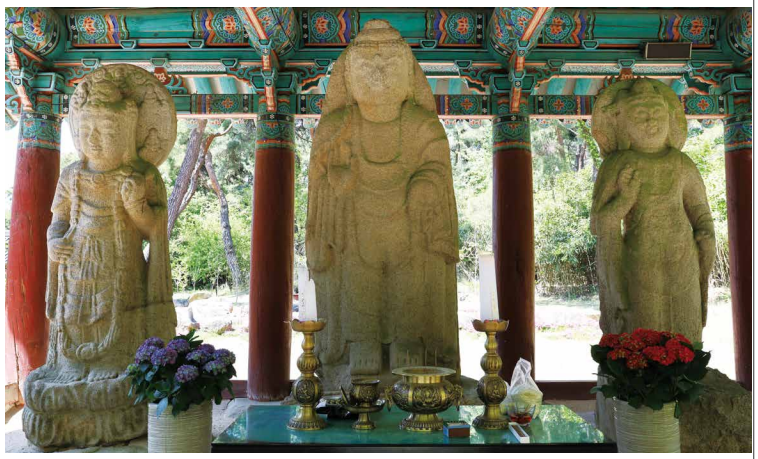
태진지⑬

태진지는 남산기슭에 조성해 놓은 생태공원이다. 작은 연못을 중심으로 수생식물들이 가지런히 계절마다 제 멋을 뽐낸다. 구상나무, 산철쭉, 꽃창포, 왕원추리, 제비붓꽃, 남개연, 부레옥잠, 세모고랭이, 구름미나리아재비 등을 볼 수 있다. 하늘과 산, 나무, 꽃들이 연못과 어우러져 그윽한 풍경을 만드는 곳. 데크와 지붕있는 정자, 벤치가 곳곳에 있어 잠시 앉아 풍경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다.

삼불사주차장(경주시 포석로 692-25)에서 걸어서 2분

배동석조여래삼존입상⑭

보물 63호



삼불사 옆에 있는 이 석불은 주변에 흩어져 묻혀 있던 것을 1923년 지금의 자리에 모아 세운 것이다. 본존불은 높이 2.75m이며 좌우의 보살상은 높이 2.28m, 2.2m 이다. 삼존이 모두 명랑하고 천진스러워 아기들처럼 보인다. 풍만한 얼굴에 크게 반원을 그린 눈썹이 깊이 패어졌고, 그 밑에 눈두덩이 부풀어 올라 가느스름한 눈자위에 그늘을 지우면서 두 눈이 천진스럽게 웃음 짓는다. 짧은 코 아래 두툼한 입술, 그 양가에 언덕을 이룬 두 뺨에 화사한 미소가 피어난다. 두 눈썹 사이에 백호가 뚜렷하고, 나발은 구슬띠 처럼 표현되어 있다. 네모난 발은 평평하게 대좌를 밟아 편안하고, 두꺼운 가사에는 굵은 옷주름이 듬성듬성 U자형의 대칭으로 표현되어 있다. 수인은 시무외인(施無畏印: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약속)과 시여원인(施與願印:원하는 바를 모두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삼국시대 불상은 대개 이러한 수인을 하고 있는데 통인이라 한다. 좌협시보살상의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왼손은 정병을 힘껏 움켜쥐고 있다. 가느스름한 작은 눈이며 조용한 코, 상현달 모양으로 내민 입술은 모두 조그맣게 표현된 데 비해 두 뺨은 널따랗게 언덕을 이루었다. 보름달 같이 둥그런 얼굴에 부드럽고도 강한 미소가 넘친다. 두광은 장식이 없고 머리에는 관대를 두르고 삼면두식(三面頭飾)으로 장식되었다. 목에는 세 개의 영락(瓔珞)이 달린 목걸이를 하고 가슴에는 승기지가 비스듬하게 가려져 있다. 우협시보살상은 이중의 연화대 위에 서서 오른손은 영락을 잡고 왼손은 경책을 쥐고 있다. 몸은 삼굴자세를 하고 있으며, 어깨는 약간 움츠리고 있다. 얼굴은 둥글고 눈은 가느스름하여 두 눈에 웃음이 서려있고, 코는 삼각형으로 짧고 입술은 조금 큰 편인데 양쪽 가장자리가 깊게 파여져 두 뺨에 언덕을 이루면서 부드러운 웃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둥근 두광의 테두리에는 두 줄의 선을 돌리고 5구의 화불을 새겨놓은 것이 특이하다. 세 줄로 된 영락은 아래쪽에 큰 연꽃이 한 송이 달려 있고, 허리를 감은 군의(裙衣) 자락을 동여맨 끈이 화려하게 드리워져 있다. 본존불과 좌협시 보살은 7세기 중엽, 우협시 보살은 7세기 후반에 조성된 고신라불상의 대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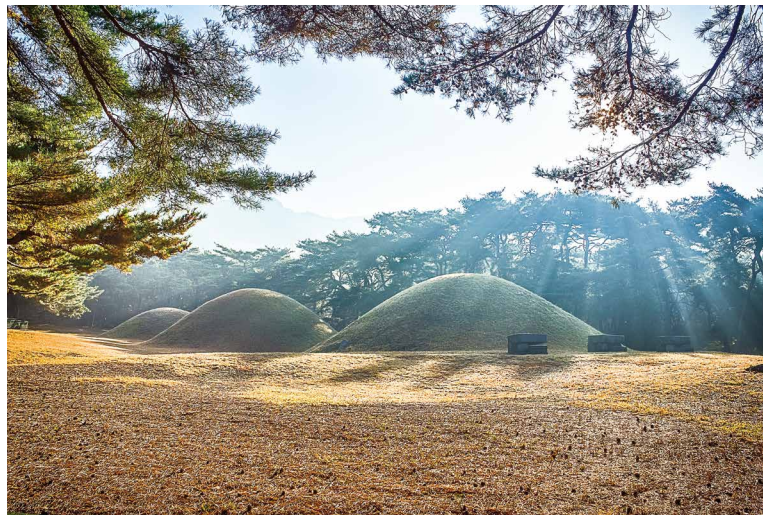
경주시 포석로 692-25

삼릉⑮

사적 219호

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이 세 왕릉은 아래서부터 8대 아달라왕(154~184), 53대 신덕왕(912~917), 54대 경명왕(917~924)의 능으로 주변이 송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능의 구조는 신덕왕릉이 1935년 도굴된 후 조사에 의하면, 깬 돌로 축조한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으로 확인되어 모두 횡혈식석실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실(玄室:주검이 안치되어 있는 방)은 정방형을 하고 있으며, 남벽 중앙에 널길을 설치하였고, 높이 35cm, 길이 2m의 자연석 시상대가 놓여 있어 합장릉으로 보인다. 무덤 내부의 북·동·서 벽면에 높이 1.4m 높이로 12폭을 상하로 나누어 24면에 일정한 순서 없이 주·황·백·군청·감청의 5색을 배색하였다. 이는 신라 고분에서 채색이 확인된 유일한 무덤이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 왕릉들은 1730년경 박씨 종중에서 열조(烈祖) 현창사업으로 지정하였으나, 『삼국사기』에는 아달라왕의 장지 기록은 없으며, 신덕왕은 '죽성에 장사 지냈다(『삼국유사』에는 화장하여 잠현 남쪽에 묻었다)'고 하였으며, 경명왕은 '황복사 북쪽에서 장사지냈다(『삼국유사』에는 황복사 북쪽에서 화장하여 성등잉산 서쪽에 뿌렸다)'고 하였다.

서남산주차장(경주시 포석로 647)에서 걸어서 4분



경애왕릉⑯

사적 222호

경애왕(재위 924~927)은 53대 신덕왕의 아들이며, 54대 경명왕이 후사 없이 죽자, 동생으로 왕위에 올랐다.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는 이미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다. 왕위에 오른 후 고려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는 등 고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후백제를 견제하려는 정책을 폈다. 재위 4년(927) 11월 포석정에서 견훤의 습격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마친 왕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는 포석정에서 연회를 베풀다가 견훤의 침공을 당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927년 9월에 견훤이 고울부(영천)를 점령하니 왕은 고려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11월에 견훤이 침공한 정황 등을 보았을 때 왕은 포석사(鮑石祠)에서 호국신에게 제사지내고 기도하다 잡혀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순왕은 왕의 시신을 수습해 남산 해목령에 장사지냈다 한다. 이 능은 원형봉토분으로 약간 크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으며, 1730년경 박씨 종중에서 열조(烈祖) 현창사업으로 지정하였다.

서남산주차장(경주시 포석로 647)에서 걸어서 7분

입곡 석불두⑰

유형문화재 94호

이 불상은 원래 거신광배를 갖춘 여래입상이었으나 허리 아래와 광배 일부, 양손이 없어졌다. 복련으로 장식된 연화대좌에 불상의 발을 끼웠던 직사각형의 구멍이 있어 입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머리는 굵은 나발이며, 육계는 우뚝 솟아 근엄해 보이면서도 부드럽고, 균형 잡힌 얼굴에 이목구비가 분명하다.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며, 법의는 통견이고, 오른손은 가슴 위로 올려 엄지와 중지·약지를 서로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떨어졌다. 거신광배의 원형 두광 일부는 파손되었으며, 광배 전면에는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는 화불과 화염문을 화려하게 배치하였는데, 화불들은 연화대좌에 앉아 합장하고, 천상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탄력이 넘치며, 화려한 조각 수법 등으로 보아 석굴암 본존불에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는 신라 최성기에 제작된 우수한 여래입상이다. 현재 남아 있는 상반신의 높이는 127cm로 완형은 3m에 이르는 대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세기 중엽에 조성되었다.

서남산주차장(경주시 포석로 647)에서 걸어서 1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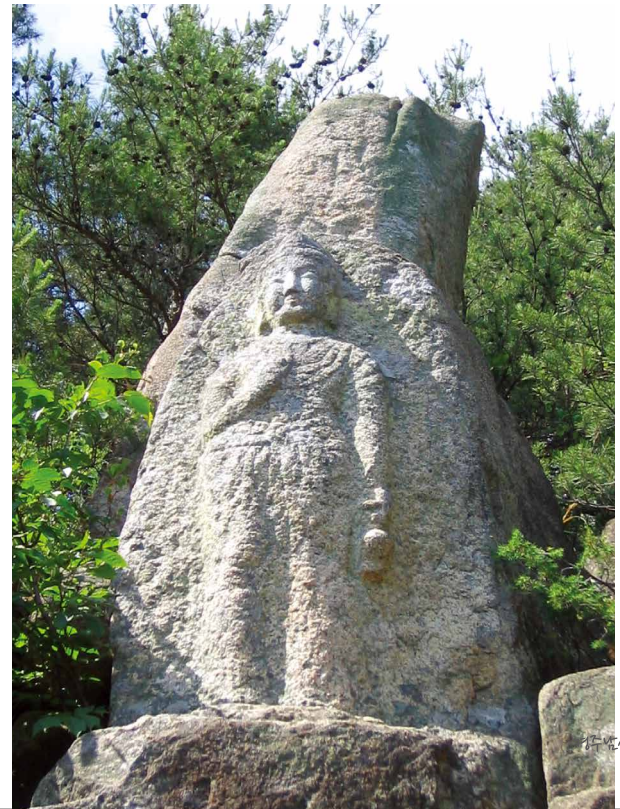
냉곡 석조여래좌상⑱

삼릉에서 등산로를 따라 500m 쯤 올라가면 길 옆 바위 위에 머리 없는 석불좌상이 있다. 높이 1.6m, 무릎 너비 1.56m나 되는 큰 좌불상이다. 계곡에 묻혀 있다가 1964년 발견되어 지금의 장소에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멸이 거의 없고 옷 주름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머리가 없어지고 두 무릎이 파괴되어 수인은 알 수 없다. 편안히 앉은 자세며 힘 있게 주름 잡힌 삼도, 당당한 가슴, 넓은 어깨, 탄력 있는 조각, 위풍당당한 자세로 보아 8세기 중엽 신라 전성기의 불상이다. 특히 왼쪽 어깨에서 가사 끈을 매듭지어 무릎 아래로 드리워진 두 줄의 영총수실은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매듭 공예가 먼 신라 때부터 전해 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부처님의 승기지(속옷) 역시 예쁜 매듭으로 묶여져 있다. 이 불상의 대좌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거칠게 치석되어 있어 특이하다. 이 불상은 본래 지금처럼 어느 곳 큰 바위 위에 걸터앉아 자연과 어우러져 있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⑲

유형문화재 19호

머리 없는 석조여래좌상에서 북쪽(왼쪽) 산등성이를 쳐다보면 뾰족한 바위기둥들이 솟아 있는데 그 중 한 바위에 빙그레 미소를 머금고 하계를 내려다보고 있는 관세음보살입상이 새겨져 있다. 살결이 풍만한 얼굴은 미소를 머금었고 오른손은 설법인을 하고 왼손은 정병을 들고 있다. 머리에 쓴 보관에는 화불을 배치하여 관세음보살임을 표시하였는데 목걸이와 가사를 동여맨 끈은 나비 날개처럼 매듭을 짓고 그 자락이 아래로 드리워져 있다. 발가락 끝에까지 피가 도는 듯 섬세하게 조각된 이 불상은 따스한 촉감을 일으키는 복련(覆蓮) 위에 서 계신다. 이 관세음보살상이 서 있는 자리에는 전각을 지을 만한 곳도 없고 기와조각도 떨어진 것이 없으니 처음부터 노천불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을 비바람이 치는 노천에 세운 것은 무슨 뜻일까? 바위 벼랑에 불상을 새기고 산기슭에서 올려다보며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내려오시는 그 감격을 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려 함이 아니었을까? 광배를 따로 만들지 않고 뒤쪽의 비스듬한 바위를 광배 삼아 보살상을 조각했기에 방금 하늘에서 하강한 듯한 모습이다. 이 불상이 가장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는 순간은 석양 해질 무렵이다. 단풍이 드는 가을철 석양 때가 더욱 좋다. 보살상의 높이는 154cm, 어깨너비는 54cm이며, 9세기에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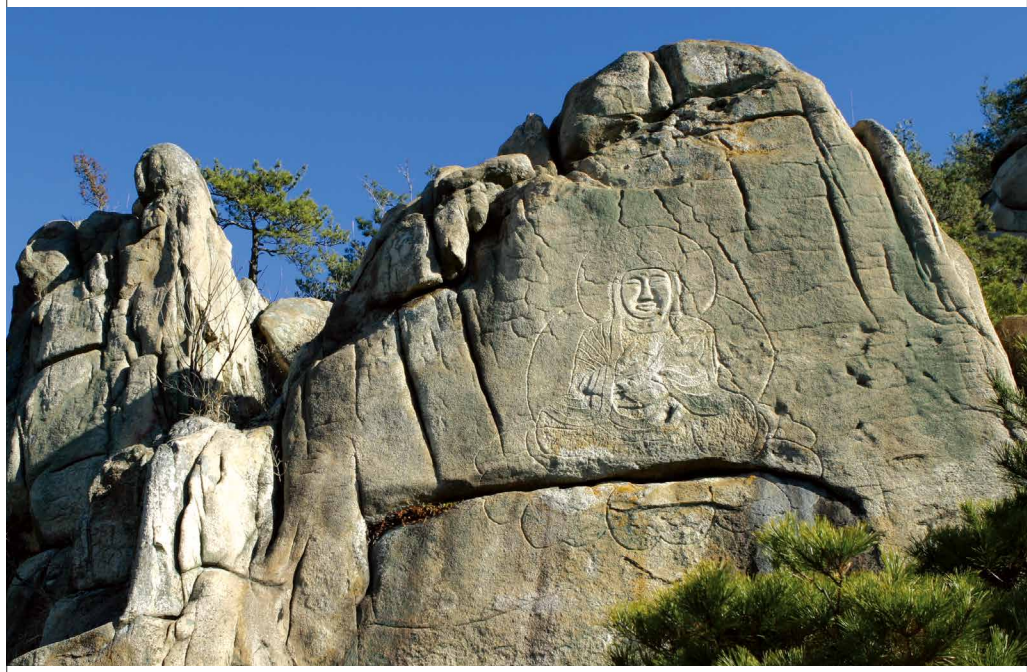
삼릉계곡 선각육존불⑳

유형문화재 21호

계곡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골짜기 왼쪽에 자리 잡은 넓은 바위에 선으로 새겨진 불상이 있다. 동서로 펼쳐진 넓은 바위 면에 선으로 새겨져, 마치 신라시대의 불교 그림을 보는 듯하다. 동쪽(안쪽) 바위 면에는 설법하고 있는 석가모니 삼존불을 새기고, 서쪽(바깥쪽) 바위 면에는 아미타삼존불을 새겨, 현생과 내생을 나타내었다. 아미타불의 수인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수인이며, 좌우 보살상은 한 쪽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 가득히 연꽃을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우협시 보살상은 연화좌대를 생략하여 바위 속에서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친 바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선각으로 조성하여 더욱 신비감이 느껴지는 조각이다. 바위 윗면에 목재를 결구(結構)한 흔적과 빗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길을 파 놓았고, 바위 앞면에 많은 기와조각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목조 전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세기에 조성되었다.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㉑

유형문화재 159호



선각육존불에서 바위 위 등성이로 180m 쯤 올라가면 높이와 너비가 각 10m 쯤 되는 넓은 바위절벽이 서쪽을 향해 솟아 있다. 그 암벽 중앙에 지름 2.5m 쯤 되는 연꽃 대좌 위에 전법륜인을 하고 앉아 계신 여래상이 있다. 신체는 모두 선각으로 나타내고 얼굴만 깎아 내어 돋을새김으로 표현하였다. 두 눈썹과 눈은 아주 가깝고 코는 길고 입술은 두텁고 커서 균형 잡힌 얼굴이라 할 수 없으나 소박한 위엄이 있다. 광배는 두광과 신광을 모두 표현하였다. 연화대와 광배 등은 굵은 선으로 그었고, 옷주름 같은 것은 가는 선으로 변화를 주었다. 상 전체에서 재주를 부리지 않은 소박함을 느낄 수 있는데, 머리 위의 육계, 얼굴의 투박함, 귀부분 등 세련된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 미완성으로 보인다. 남산의 마애불 중 가장 늦은 10세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여래좌상 옆의 바위는 부부가 서로 안고 있는 모습 같아 부부바위라 불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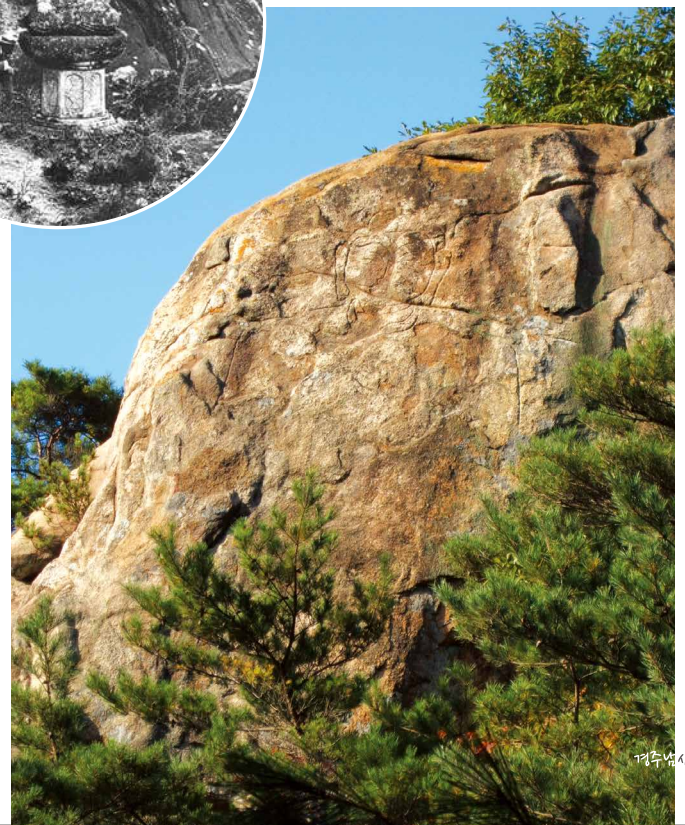
삼릉계 석조여래좌상㉒

보물 666호

선각여래좌상에서 오른쪽으로 난 능선 길을 따라 120m 정도 가면 솔숲에 많은 바위 무리가 있고, 그 가운데 순백 화강암으로 조성된 여래상이 화려한 연화대석 위에 앉아 계신다. 연화대좌는 투박하게 팔각으로 깎은 하대석과 면마다 안상(眼象)을 새긴 중대석을 놓고 그 위에 화려한 보상화 연꽃을 올려놓았다. 안상이란 귀인들이 앉는 평상을 말하는 것이니 중대석 위는 절대로 존엄한 세계라는 뜻이다. 이렇게 존귀한 평상 위에 보상화로 장식된 화려한 둥근 연꽃송이를 얹어 놓았으니 이 연꽃은 수미산 위에 핀 하늘의 꽃송이인 것이다. 이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대석이다. 보통 불상의 하대석에는 복련을 새기는데, 이 불상은 하대석을 팔각으로 거칠게 깎고 말았다. 불상이 바위 속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듯하다. 이 불상 주위에는 건물을 지었던 흔적이 보이지 않아 처음부터 노천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 조화되지 않을 경우 불상이 눈비를 맞더라도 전각을 짓지 않았던 옛 사람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광배의 안쪽에는 부드러운 넝쿨 잎을 새기고 바깥쪽은 힘 있게 타오르는 불꽃무늬를 새겼다. 광배는 윗부분이 조금 깨진 채로 불상 후면에 세워졌으나 1963년 겨울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버려, 2008년 12월 상호와 광배를 복원하였다. 8세기 후반에 조성된 불상이다. 불상 앞 쪽 아래 평평한 곳에 있는 작은 단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옮겨진 탑의 원위치이다. 바위를 탑의 기단으로 삼아 세운 삼층석탑이다.(옆 사진)

선각마애불㉓

석조여래좌상에서 오른쪽 개울을 건너면, 상선암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나타난다. 개울 건너에서 바라보면 석조여래좌상의 뒤쪽 30여 m의 바위 절벽 면에 얼굴 부분만 선각으로 새겨진 마애불상이 있다. 부드러운 선으로 새겨져 원만한 상이다. 바위 면에 비해 불상이 너무 커서 본래부터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던 듯하다. 바위 속에 숨어 있던 부처님이 이 길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에게 살며시 모습을 드러내 반겨주는 듯한 모습은 아닐까? 9세기에 조성된 불상이다. 이 바위의 오른쪽 바위 절벽 중턱에는 1915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석조약사여래좌상이 있었다. 그 곳에는 기와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작은 건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상선암 마애선각보살상㉔

상선암은 옛 절터에 90여 년 전 세워진 사찰이다. 절 뒤쪽 부서진 바위에 하반신만 선각으로 남아 있는 조각이 있는데, 화려한 옷주름과 구슬리본 등이 새겨져 있어 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완전할 경우 6m 정도 되는 큰 보살상이다.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㉕

유형문화재 158호

상선암에서 120m 쯤 올라가면 거대한 자연 암반의 벽면에 6m 높이로 양각된 불상이 있다. 이 여래좌상은 남산에서 두 번째로 큰 불상이다. 얼굴의 앞면과 귀 부분까지는 높은 돋을새김으로 원만하게 새겨진 반면, 머리 뒷부분은 투박하게 바위를 쪼아 내었다. 짧은 목에 삼도는 없고, 건장한 신체는 네모난 얼굴과 잘 어울린다. 오른손은 가슴 앞에서 설법인을 짓고,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하여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불상의 몸부분은 거칠고 억세게 선각하였고, 좌대 부분은 부드러워지다가 희미하게 사라져 버린 듯한 모습이다. 대좌는 중대석이 생략된 채 앙련과 복련이 서로 맞붙어 있으며, 앙련의 연잎 안에 다시 화문(花紋)을 장식하였다. 이러한 조각 수법은 불교가 바위신앙과 습합하여 바위 속에서 부처님이 나오시는 순간을 표현하였다고 생각된다. 입체감이 없는 신체표현, 힘이 빠진 옷주름 선 등으로 보아 9세기 불상양식을 반영하는 거대 불상이다. (지금은 낙석 위험으로 길을 돌아가도록 하여 바둑바위를 지나서 상사바위에서 내려다 보아야 한다.)

바둑바위㉖

냉골 암봉 바위산 꼭대기에는 금송정터라고 전해오는 건물터가 있다. 그 옆 바위 벌판에는 옛날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을 두며 놀았다고 하며, 『동경잡기』(1669년)에는 신라때 옥보고가 거문고를 켜던 곳이라고 한다. 전망이 좋아 서라벌 벌판과 북남산이 모두 보인다.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상사바위를 돌아보고 이곳에서 왔던 길을 돌아 내려가거나, 삼불사 방향으로 내려가면 된다.

상사바위와 소석불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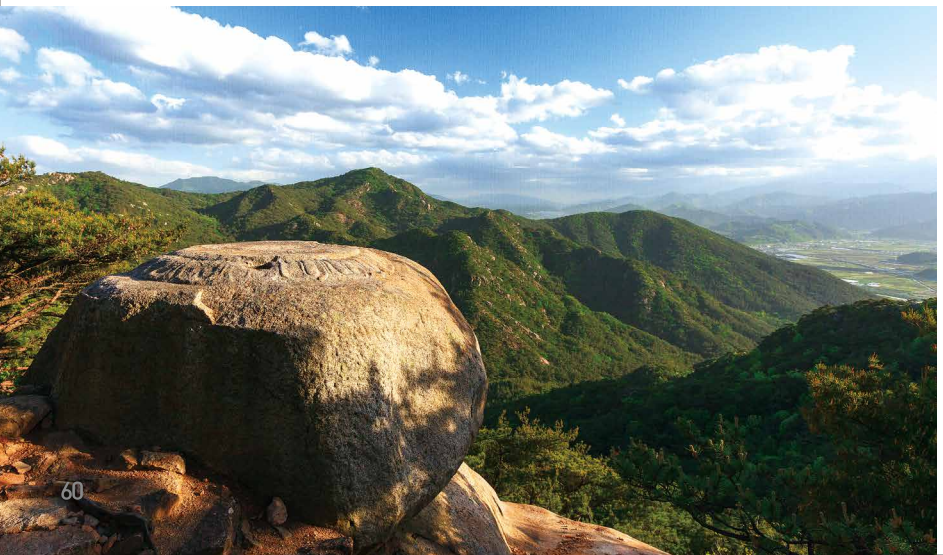
상선암 뒤로 높이 솟아있는 남산신 상심이 살고 있는 바위로서 동쪽면은 남근석과 기도처, 남쪽면은 산아당으로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들 낳기를 기도하는데 영험이 있다. 1856년에 새긴 산신당(産神堂)이라는 명문이 남아있다. 남산신 상심은 신라 49대 헌강왕이 포석정에 행차했을 때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기도 하였다. 상사바위의 동쪽 면은 기도용 감실이 있고 그 앞에 머리와 연화대를 잃어버린 작은 석불이 1구 있는데, 남산에서 발견된 가장 작은 석불이다. 통인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고신라 불상일 가능성도 있으나 마모가 심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상사바위 앞 공간도 옛 절터이다. 여기서 금오산 정상까지는 20분 정도 걸린다.

금오산 정상[28]

해발 468m로서 이곳은 냉골, 포석계, 지바위골, 비파골, 약수골 등의 분수령이 된다. 용장사지 가는 길은 화장실쪽 도로로 내려가는 것이 좋다.

대연화대(삼화령)[29]

용장골 정상에 있는 높은 암반 위에 거대한 연화대좌가 있다. 그 위에는 웅려무비한 솜씨로 큰 연꽃이 새겨져 있다. 본래는 그 위에 불상이 안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 봉우리는 용장사 쪽으로 뻗어내린 장엄한 산맥과 남으로 뻗어내려 고위산에 연결되는 산맥, 금오산정에서 굽이쳐 오는 세 갈래의 큰 산맥을 모아 꽂송이처럼 솟아오른 봉우리이기 때문에 삼화령이라고 한다. 이 봉우리에 올라서면 앞으로는 고위산이, 동쪽으로는 토함산 불국사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단석산이, 남서쪽으로는 가지산, 영축산 준령이 바라보인다. 대좌 앞으로도 한 단의 계단이 더 마련되어 있지만 몇 걸음 아래가 낭떠러지라 겨우 참배가 허락될 정도의 여유만 있는 곳이다. 아마도 이곳을 천혜의 성스러운 부처님 땅으로 여겨 불상과 연화대를 새겨 그대로 예참 정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27대 선덕여왕 때 생의스님이 찾아내고, 35대 경덕왕 때 충담스님이 차공양을 올리고 안민가를 노래하던 삼화령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용장계곡으로 내려가다가 건너다보는 모습도 절경이다.



삼화령에 대하여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생의사 석미륵>조에

선덕왕 때에 생생의는 도중사에 살았다. 꿈에 한 스님이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묶어 표를 하게 하고 남쪽 골짜기에 와서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스님이 꺼내어 고개 위에 옮겨 주시오"하였다. 꿈에서 깨자 그는 벗과 함께 표해 놓은 곳을 찾아 땅을 파니 돌미륵이 나왔으므로 삼화령 위로 옮겨 놓았다. 선덕왕 13년(644) 그곳에 절을 세우고 살았는데 뒤에 생의사라 했다. 충담스님이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 차를 달여서 공양한 분이 바로 이 부처다.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765)에 오악삼산의 신들이 때때로 나타나 대궐 뜰에서 왕을 모셨다. 3월 3일 왕이 귀정문 누에 올라 좌우에 말하기를 "누가 길에서 위업과 풍모를 갖춘 스님 한 사람을 데려올 수 있겠느냐"하였다. 이때 마침 위의가 있고 깨끗한 대덕 한 분이 길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스님을 왕에게 데려 오니 왕이 "내가 말하는 위의 있는 스님이 아니다"하고 돌려보냈다. 다시 한 스님이 있었는데 허술한 옷을 입고 삼태기를 메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다. 왕이 보고 기뻐하여 누각 위로 맞이하였다. 통 속을 보니 차를 다리는 도구가 들어 있었다. 왕은 물었다. "그대는 누구요?" "충담입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오?" "소승은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께 차를 달여 올리는데 지금도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에게도 차 한 잔 나누어 주겠는가." 스님이 이내 차를 달여 드리니 차 맛이 이상하고 찻잔 속에서 이상한 향기가 풍겨 오른다. 왕이 말하기를 "내 일찍이 들으니 스님의 기파랑을 찬미한 사뇌가가 그 뜻이 매우 깊고 높다고 하던데 과연 그러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다스릴 수 있는 노래를 지어 주시오."하니, 이내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쳤다. 왕은 아름답게 여겨 그를 왕사로 봉하니 스님은 두 번 절하고 굳이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

안민가는 이러하다.
임금은 아비요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시고,
백성들은 어린아이라 여기시면
백성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줄 알리이다.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스스로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면
나라 안이 가이 되어 감을 알리이다.
아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은 가이 태평하리이다.

<빈녀양모>조에는

효종랑이 남산 포석정 혹은 삼화수리에서 놀고자 하니 문객들이 모두 급히 달려왔으나 오직 두 사람만이 뒤늦게 오므로 효종랑이 그 까닭을 물으니 ...

<빈녀양모>조에서 보듯이, 삼화령 또는 삼화수리는 화랑들의 심신단련장으로도 활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효종랑은 56대 경순왕의 아버지다.

통일전주차장(경주시 칠불암길 6)에서 등산 1시간 20분

탑 기단석㉚

용장사지 최상부에 있는 석재 기단인데, 탑의 기단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제단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용장사곡 삼층석탑㉛ 보물 186호

용장사지 동쪽 능선 위에 자리하여 이 계곡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3층 옥개석까지 남아 있으며, 높이 4.5m이다. 멀리서 보면 350m 높이의 바위 산 전체를 하층기단으로 삼은듯하여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수미산꼭대기에 탑을 세운듯하다. 바위에 홈을 파고 6cm 정도 되는 괴임을 2단으로 마련하였다. 기단의 한 면은 1장의 큰 석재로, 나머지 3면은 2매의 석재로 결구시켰다. 탱주는 한 개 이다. 위에는 탑신괴임 2단이 마련되었고, 기단갑석은 2매의 판석으로 되어 있다. 탑신과 옥개석은 각각 1매의 석재로 되어있고, 2층 탑신은 1층에 비해 체감 효과를 크게 주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꾀했다. 옥개받침은 모두 4단으로 되어 있고 옥개석의 윗면에는 탑신괴임이 2단씩 마련되어 있다. 상륜부는 모두 없어졌고 삼층 옥개석 가운데에 찰주를 세웠던 구멍이 남아 있다. 1924년에 쓰러져 있던 탑을 복원할 때 2층 탑신 상부에서 네모난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이 탑은 거대한 바위산을 기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꼭 올려다보아야 한다.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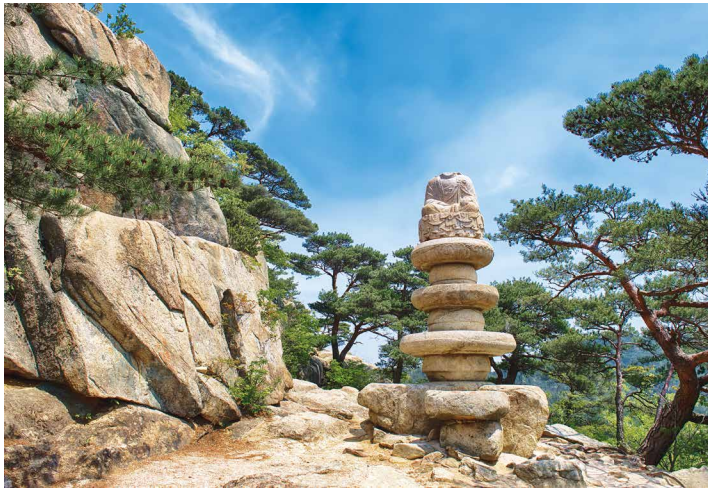
보물 913호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뒤쪽에 높이 5.5m, 폭 3.6m 가량 되는 바위면이 남향을 하고 있다. 그 바위면에 고운 연꽃 위에 결가부좌하고 항마촉지인을 한 여래상이 있다. 이 마애불은 얕은 돋을새김으로 되어 있는데 대좌의 연꽃을 보면 가운데 꽃잎은 비교적 크게 나타내고 양 가장자리로 가면서 차츰차츰 작게 하여 끝에서는 구름처럼 사라지도록 하였다. 불상은 풍만하고 건장한 위엄을 느끼게 하고 결가부좌로 앉은 두 무릎과 넓은 두 어깨는 당당하다. 상호는 머리를 반분한 자리에 눈썹이 길게 그어졌고 양 눈썹에 이어 아래로 뻗어 내린 예리한 콧등은 얼굴 길이의 ⅓쯤에서 고운 코를 형성하였다. 굳게 다문 입술은 양가에 힘을 주어 긴장된 표정인데 풍성한 두 뺨과 군살 어린 턱의 부드러움은 자비롭기 그지없다. 육계는 얼굴과 조화롭게 덩실 솟았고 머리카락은 나발로 표현되어 있다. 옷자락은 속이 다 비칠 것 같은 얇은 느낌으로 잘게 주름을 잡아 놓고 있다. 두광은 무늬 없이 두 겹의 원으로 표현되었고 신광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광 좌측에 명문이 2줄로 10여 자 있으나 판독이 어렵다.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㉝

보물 187호

마애여래좌상 앞에는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삼륜의 대좌에 머리가 없는 좌불이 있다. 지대석은 자연석의 윗면만 고르게 가공하여 쓰고 있는데 지대석이자 곧 기단으로 보인다. 높이 1m 남짓한 기단 위에 둥글게 다듬은 북 모양의 중대석을 얹고, 그 위에 쟁반 모양의 둥근 반석을 놓았다. 다시 그 위에 중대석과 반석을 놓았고, 세 번째의 중대석을 결구시키고 앙련의 둥근 반석대좌를 마련한 위에 화려한 연꽃방석을 얹고 결가부좌로 앉은 불상을 모셔 놓았다. 불상의 높이는 연꽃방석 밑에서 목까지가 141cm이고 대좌의 총 높이는 3m에 달한다. 불상은 결가부좌로 앉고, 오른손은 선정인, 왼손은 무릎 위에 얹어 땅을 가리키는 인상을 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양어깨를 덮고 흘러내린 가사 깃 사이엔 승기지가 비스듬히 가슴을 가리고 매듭이 맵시 있게 조각되어 있다. 또 왼쪽 어깨에 드리워진 가사끈의 수실 때문에 이 불상을 승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흘러내린 가사의 자락들이 물결처럼 출렁이며 무릎을 덮고 흘러내려 상현좌를 이루고 있는 것도 특이하다. 『삼국유사』의 〈현유가해화엄(賢瑜伽海華嚴)〉조에 의하면, **옛날 용장사에 유가종의 대덕이신 대현스님이 계셨는데, 그 절에는 미륵장륙상이 있어, 대현스님이 그 미륵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돌면, 미륵부처님 또한 대현스님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부처님이 바로 대현스님께서 기도하면서 돌던 그 미륵부처님이 아닐까 한다. 이 불상이 미륵불이라면, 자연석 하층기단은 수미산이요, 기단석 위 첫 둥근 반석은 제석천왕의 도리천, 두 번째 반석은 야마천이 되며, 마지막의 연화 원반대좌는 미륵보살이 계시는 도솔천이 아닐까. 8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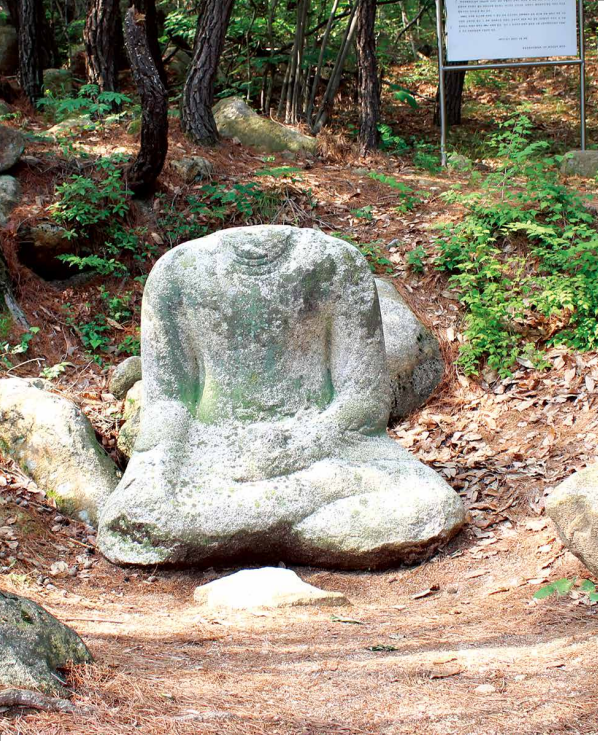


탑재와 석등대석㉞

현재는 기단갑석과 2층 옥개석, 자연 암반의 석등대석만 남아 있다. 이 탑재로 보아 이곳에도 석탑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며, 석등대석은 밤에 이곳을 찾는 사람을 위한 등대로서의 석등이다. 이곳에서 올려다보는 삼층석탑은 하늘의 부처님 나라를 우러러보는 듯한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절경이다.

용장사지㉟

용장골 어귀에 있는 마을 이름이 용장리이고 계곡 이름도 용장골이니 모두가 용장사에서 비롯한 이름들이다. 용장사는 이 계곡의 주인격일 뿐 아니라 남산 전역에서도 손꼽히는 대가람이었다. 용장골의 남쪽 면은 수리산을 정상으로 하여 흘러내린 여러 갈래의 계곡들로 되었는데 열반골의 기암과 괴석들이며 은적암 부근의 삼각봉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금오산에서 뻗어 내린 여러 산맥들로 구성된 북쪽 면에는 이렇다 할 잘생긴 봉우리들이 별로 없다. 하지만 용장사가 자리 잡은 이 봉우리는 거대한 바위들로 첩첩이 솟아 있다. 용장사는 어느 때 폐사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초 설잠스님(매월당 김시습)이 이곳에 머물면서 《금오신화》를 썼다고 하니 조선 중기까지는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은 절터 축대들과 기와 조각들만이 폐허를 뒹굴고 있다.



용장계 절골 석조약사여래좌상㊱

설잠교를 지나 하산하다가 절골 이정표가 있는 곳에서 150m 정도 올라가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무너진 축대가 2곳이 있고 좀 더 올라가면 큰 축대가 나타난다. 법당터 한가운데 남향으로 앉으신 이 불상은 산에서 흘러온 모래와 자갈돌에 묻혀 있었던 것을 1940년에 발굴 조사한 것인데, 머리와 광배는 찾지 못하고 대좌와 몸체만 발견되었다. 불상은 결가부좌로 앉아 왼손에 약 그릇을 들고 오른손은 촉지인상을 나타내어 약사여래임을 나타내고 있다. 조각의 선은 부드럽고도 유려하게 흘러내리고 있으며, 신체에 탄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9세기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삼단으로 된 이 불상의 대좌는 불상 아래에 묻혀 있으며, 남산에서 셋 밖에 없는 희귀한 네모난 대좌이다. 주변에 석탑 옥개석 1점과 하층 기단석이 남아있다.

약수계곡 마애입불상㊲

유형문화재 1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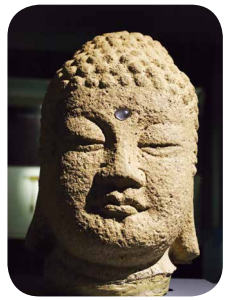
산세가 가파르고 큰 바위 기둥들이 솟아 있는 가운데 가장 큰 바위 남쪽 면에 여래입상이 새겨져 있다.

두 손의 엄지와 장지를 마주 대어 왼손은 가슴에 올리고, 오른손은 배 앞에 들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 어깨에서 가슴으로 비스듬히 비껴 내린 가사의 옷 주름이 점점 크고 넓게 물결치며 흘러내려와 강하게 휘어진 상현달 모양으로 끝을 맺었다. 그 아래로 가늘게 수직선을 그으며 군의(裙衣) 자락이 흘러내려 발등을 덮었다. 양쪽 팔에 걸쳐 수직으로 드리워진 옷자락의 주름들은 어깨에서 무릎까지 힘차게 그어져서 직선과 곡선의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거대한 바위를 깎아 높이 8.6m의 불상의 몸체를 이루고, 머리와 두 발은 별도의 돌을 다듬어 붙였는데, 머리와 오른발은 없어져 버렸고, 목 부분으로 추정되는 바위(삼도가 새겨져 있다)가 80여 m 아래에 풀숲 속에 뒹굴고 있다.

9세기에 조성되었다.

약수곡 석조여래좌상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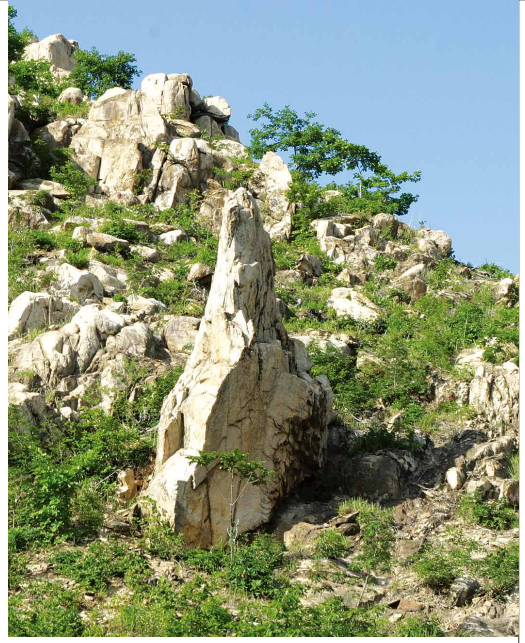
불상의 뒷면에 남아있는 축대는 계곡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하대석이 축대 위에 남아 있어 이 불상은 그 위에 안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대석은 24잎의 복련으로 되어 있고, 중대석은 안상을 새기고 그 속에 사천왕상을 새겼으며, 상대석은 앙련을 조각하였는데, 연잎마다 두 개의 고사리 모양이 마주하여 꽃잎을 만들고, 그 안에 해무리로 장식한 화려한 앙련이다.

불상은 결가부좌의 항마촉지인상이며, 가사는 편단우견으로 얇은 옷주름이 풍만하면서도 탄력 있는 몸체를 감고 흐른다.

이 불상은 일제강점기 청와대로 옮겨간 이거사지 석조여래좌상과 똑같은 불상으로 확인되었으며, 2019년 겨울에 머리가 발견되어 곧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9세기 초에 조성되었다. 불상의 왼쪽 능선 너머 산비탈에는 남산에서 가장 큰 축대(높이 6m, 길이 20m 정도)의 대석단 절터가 있다.

비파바위㊴



비파골은 32대 효소왕 때 망덕사의 낙성재에 비파바위(琵琶巖)의 부처님이 누추한 옷차림으로 참석하였는데, 왕이 그 누추함을 업신여기자, 왕을 꾸짖고는 진신석가(眞身釋迦)의 모습으로 바뀌어 홀연히 남산 바위 속으로 숨어버렸다는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 곳으로서, 비파바위와 불무사지·석가사지, 무너진 삼층석탑 2기가 남아 있다.

석가사지는 계곡 가에 축대가 남아있고, 불무사지는 능선 중턱 바위 절벽 위에 절터가 확인되었다. 삼층석탑재는 골짜기에서 가장 위쪽 능선의 무덤 주변에 탑재들이 흩어져 있다.

주변에 하얀 화강암의 기암괴석이 누각처럼 솟아 있는 가운데 높이 6m 정도 되는 비파바위가 솟아 있다.

비파곡 삼층석탑㊵

유형문화재 448호

삼층석탑은 높이 3m 정도 되는 통일신라시대의 일반적인 석탑이지만, 거칠게 다듬은 바위를 기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올려 보면 거대한 바위 봉우리에 탑이 솟아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 탑에서 바라보면 가암들[佳巖] 모두가 한 눈에 내려다보인다. 바위산 봉우리에 자그마한 탑을 세우므로 해서 가암들을 수호하는 탑을 만든 것이다.

석탑 옆 바위에는 지름 21cm, 깊이 15cm 정도 되는 둥근 구멍이 패어져 있는데, 석등을 세웠던 자리로 보인다. 밤에 석등에 불을 밝히면, 이 등불이 가암들을 비추고, 가암들 어디에서라도 이 탑이 우러러 보이게 된다.

이 탑은 주변에 무너져 있던 것을 1층 탑신 괴임과 2·3층 탑신을 새로 보충하여 2002년 복원하였는데, 1층 탑신 상부에서 너비 12cm, 깊이 6cm의 사리공이 확인되었다. 절터는 탑의 동쪽 계곡에 남아 있다.

인왕동 사지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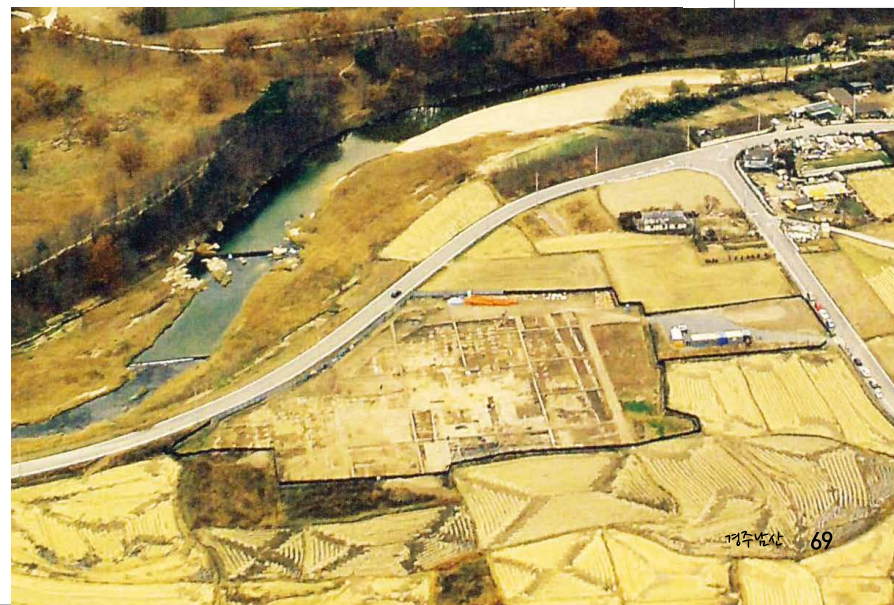
사적 533호

『삼국유사』〈문무왕 법민〉조에 인문이 옥중에 있을 때 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절을 지어 인용사라 하고 관음도량을 열었는데 인문이 돌아오다 바다 위에서 죽으니 미타도량으로 고쳤다. 지금까지도 그 절이 남아 있다.

김인문(629~694)은 문무왕의 동생으로 22년 동안 당나라에서 외교활동을 펼치며 숙위(宿衛)하였다. 신라와의 싸움에서 패한 당 고종이 인문을 옥에 가두니 왕은 강수를 시켜서 석방해 달라는 글을 지어 당 고종에게 보냈다. 고종은 애절한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인문을 방면하였다. 인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라 사람들이 그를 위해 인용사를 짓고 관음도량을 열었다. 인문이 귀국 도중 바다 위에서 죽어 미타도량으로 고쳐 극락왕생을 빌었다하니, 인용사는 신라인들의 눈물과 정성으로 이룩된 절이다.

발굴조사 결과 통일기의 쌍탑가람으로 확인되었고 인용사로 볼 수 있는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절 앞 연못에서는 연꽃씨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지금은 인왕동 사지로 이름을 바꾸었다.

월정교주차장(경주시 천원2길 10)에서 도보 5분



춘양교지(일정교)㊷

사적 457호

경덕왕 19년(760) 월정교와 함께 세운 다리이다. 춘양은 봄의 햇살이니 이는 곧 동쪽다리이며 동·서편 교대와 날개벽 그리고 3개의 교각이 확인되었다. 길이 55m, 폭 12m, 교량의 높이 5.5m이다. 3개의 교각은 물 흐름의 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뱃머리형으로 만들었다. 교대와 교각은 모두 화강암을 다듬어 만든 돌다리로, 그 모양과 크기, 돌못 사용법, 퇴물림식(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안으로 들여쌓는 방식) 축조법, 석재의 색깔과 재질이 모두 월정교와 같다. 신라의 우수한 교량 축조기술을 알 수 있으며, 왕경의 규모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에는 일정교(日精橋)가 춘양교라 하였다.

박물관 옆에 새로운 왕경지구가 확장되면서 이를 잇는 왕경대로가 만들어 진다. 황룡사를 지나 박물관 쪽으로 폭 23m의 차도·인도·배수로가 구분된 계획도로다. 여기에서 연결된 도로가 일정교와 연결된다. 도로의 유구는 박물관내 미술관 1층에 본래 모습으로 전시되고 있다. 남산신성에 왕궁의 대규모 물류기지인 장창이 있었다. 왕경대로에서 일정교를 통한 물류수송 또한 남산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교량이다. 이 다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문화를 비하하기 위하여 효불효교 또는 칠성교라는 이름으로 전설이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정순임 판소리연구소㊸

보라색 갈퀴 꽃이 무너진 일정교 돌다리 사이에서 물감을 뿌린 듯 넝쿨 지어 피었다. 조그마한 집이 예쁜 정원과 잘 어울린다. 우리나라 최초 4대로 이어진 전통예술 판소리 명가1호 '취송당정순임판소리연구소'이다.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다. 문천의 갈대가 다리 입구에서 바람의 소리를 전할 때 걸쭉한 명창의 소리 한마디 들으면서 걸어가니 어깨춤이 절로난다.

상서장㊹

기념물 46호

남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상서장은 낭산 서북쪽에 있는 독서당과 함께 고운 최치원(857~?) 선생의 유적이다.

경문왕 때(868년) 12살의 나이로 당나라에 유학하여 장안에서 공부한지 7년 만에 과거에 급제하였다. 881년 산동지방에서 일어난 황소의 난 때 지은 〈격황소서〉로 당나라에서 널리 문장가로 이름을 드날렸다.

이후 헌강왕때 신라로 돌아 왔으나, 골품제의 한계와 국정의 문란으로 뜻을 펼 수가 없었다.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리고 많은 저술과 비문을 남겼는데, 그 중 <계원필경>은 우리나라 최고의 시문집이다.

『삼국사기』〈열전〉에 의하면, 선생은 고려 태조가 비상한 사람으로 천명을 받아 장차 나라를 열 것을 알고 편지로 문안하였는데, 그 글 중에 "**계림은 황엽이요, 곡령은 청송이라**"는 구절이 있었다. 고려 현종 때 선생이 고려 건국에 숨은 공로가 있다하여 내사령의 벼슬과 문창후라는 시호를 추증하고 문묘에 배향하였다. 그 후로 살던 집을 「상서장」이라 하였으니 태조 왕건에게 글을 올린 집이란 뜻이다. 또는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린 곳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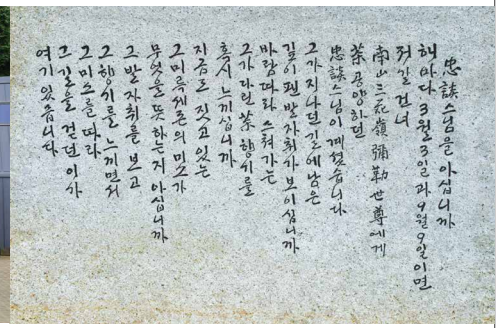
경주시 인왕동 276-3

새벽비㊺

한글학자로서 한글 보급을 통해 민족의 얼을 심는 데 평생을 바친 선각자이셨다. 우리말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일깨우고, 외국어의 남용에 맞서 평생 가르침을 베푸시던 최햇빛 할아버지, 이 땅에 한글의 꽃 활짝 피는 날, 그 향내, 사랑하는 겨레의 노래, 하늘 땅 끝까지 메아리 치리라. 외로운 길 걸으시면서 들려주시던 말씀 **'밤길도 오래 걷다 보면 새벽을 맞이한다.'**

고청기념관㊻

함북 주을에서 겨레의 얼을 찾아 경주로 오신 고청 윤경렬 선생님.
일찍이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게 하려고, 세계 최초로 어린이 박물관학교를 열고, 천년고도의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신라문화동인회를 창립하고, 문화유산보전활동을 펼쳤으며, 경주의 수많은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지키셨고, 특히 경주남산의 유적을 직접 조사하여 널리 홍포하신 고청 윤경렬 선생의 생가이며, 기념관이다.



불곡마애여래좌상㊼

보물 198호

너비 4.5m, 높이 3.2m 쯤 되는 바위에 무지개 모양의 감실을 파고 시골 할머니 같은 부처님을 새겨 놓았다. 얼굴은 고부조로 새기고, 신체는 약간 낮게, 대좌는 저부조로 조성하였다. 편평한 신체, 크고 둥근 얼굴은 명상에 잠긴 듯이 다소곳이 숙이고, 낮은 육계와 소발의 머리는 미끄러지듯 귀와 어깨를 덮었다. 뭉툭한 코, 툭박진 눈은 그림자가 어려 부드러운 눈썹과 명상에 잠긴 듯한 눈매를 그려낸다. 도톰한 입술, 뺨 등은 부드러운 볼륨으로 부풀어 있다. 네모난 어깨, 넓은 무릎은 육중하면서도 안정된 구도를 취하고 있다. 통견의 법의 사이로 드러난 가슴은 사각형으로 표현되었고, 깊고 강렬한 선각으로 새긴 옷 주름은 소매 사이로 흘러내려 폭포수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수인은 선정인으로 추정 되고 있다.
신라인들은 바위에 부처를 새긴 것이 아니라, 바위 속의 부처를 찾아내었다. 좁은 굴속에 있으면서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시골 할머니가 돌로 만든 집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불상은 불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조각의 고식, 육계와 어깨, 수인과 소매, 옷 주름의 간결하고 거친 조각, 상현좌, 발 조각의 고졸함 등으로 보아 고신라시대의 신라에서 가장 오랜 석불(마애불)로 꼽혀지고 있으며, 흔히 석굴사원의 선행 양식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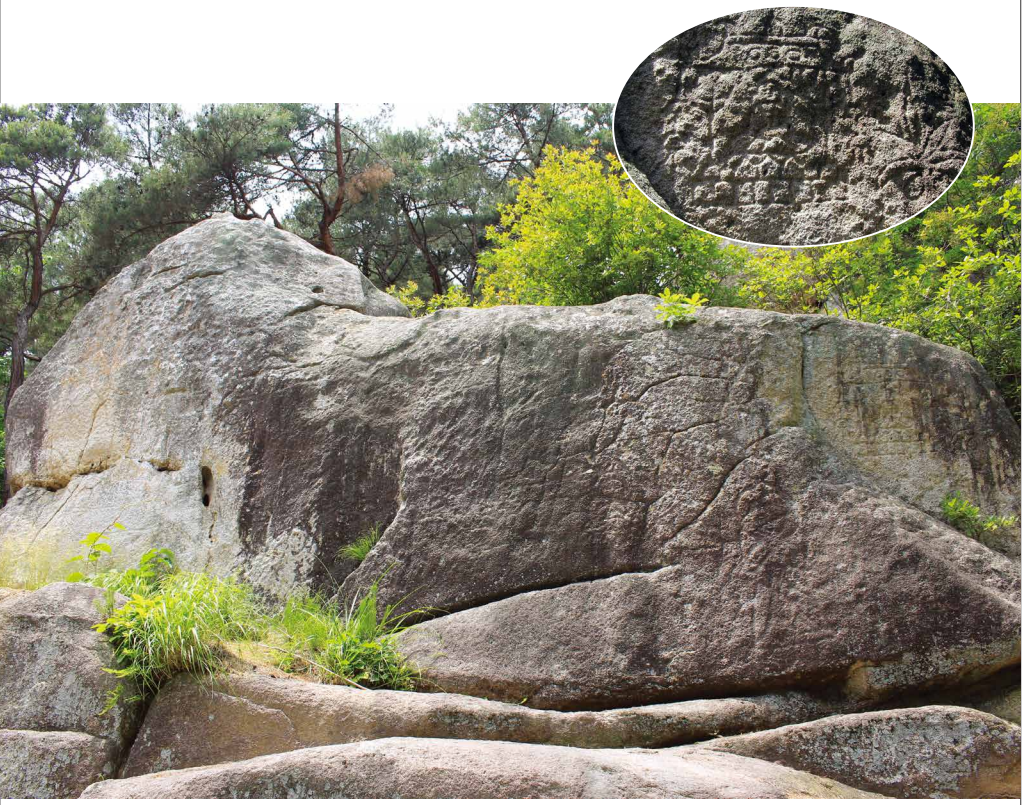
경주시 인왕동 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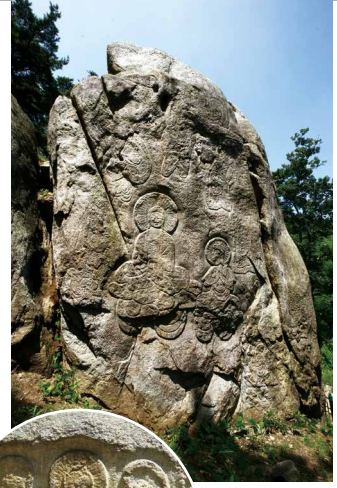
탑곡 제1사지 마애조상군㊽

문화재자료 695호

탑골마을 입구 오른쪽에 월정사가 있다. 절 뒤쪽으로 50여 m 정도 산중턱 바위에 1994년 발견된 마애불상군이 있다.
마애불은 동면과 남면에 새겨져 있다. 동면에는 전각 안에 안치된 불상 1구와 코끼리 모습의 사리 이운상, 5층 목탑과 소형 불상 9구가 새겨져 있다.
남면에는 선각의 삼존불입상이 복련의 연화대좌 위에 새겨져 있다. 불보살상의 상체는 결실되어 현재 허리아래 부분만 남아 있다. 법의의 옷주름과 영락 장식을 확인 할 수 있다. 수많은 상이 새겨져 있으나 정확한 모습과 만든 시대를 알 수 없다.

경주시 배반동 1132-69





옥룡암과 탑곡 마애불상군㊾

보물 201호

옥룡암은 작고 아담한 절이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저항지식인들이 머물렀던 절이다. 이육사도 1942년 7월부터 석 달을 이곳에 머물렀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유달리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절 뒤 높이 10여 m, 둘레 30여 m 바위 암벽에 사방으로 돌아가며 환상적인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바로 올려다 보이는 북면에는 9층 목탑과 7층 목탑이 있고 그 가운데 연화대 위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이 계신다. 탑 위에는 비천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날고 있다. 신라시대의 목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동면에는 본존과 보살, 하늘에서 날아 내려오는 일곱 구의 비천상이 있다. 불보살상 좌측 아래에는 돗자리를 펴고 앉아 공양 올리는 스님상이 있다. 가히 환상적이며 그림 같다. 면적이 좁은 서면에는 부처님 한 분과 비천 두 구가 있다. 부처님 위의 비천상은 흔히 신라여인의 모습이라고 한다. 남면에는 삼존불과 함께 독립된 불상이 있다. 삼존불은 화목한 가족을 연상케 한다. 우협시 보살은 경직된 모습이고, 좌협시 보살은 부처님에게 응석을 부리는 듯하다. 남면에만 목조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4면에 새겨진 불상과 탑들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회화적이다.
마당 남쪽에는 삼층석탑 1기가 우뚝 서 있다. 9세기 말에 조성된 탑이다. 이 절터에서 「神印寺」란 기와 명문이 출토되었다 하여 「신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신인사는 신인종의 명랑스님이 당나라의 군사를 몰아내기 위해 사천왕사에서 기도 중 부처님의 힘을 빌기 위해 이 바위에 만다라적인 부처의 세계를 조성하여 건립한 사찰이 아닐까?

경주시 배반동 1132-69

보리사 마애석불[50]

유형문화재 193호

대나무 숲길을 지나 가파른 오르막을 150m 쯤 올라가면 경사가 급한 산허리에 높이와 너비 2.4m 정도 되는 바위에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앞을 향해 약간 굽어 있는 바위 벽면에 거신광의 감실을 파고 불상을 새겨 놓았다. 나발은 앙증맞을 정도로 귀엽고, 얼굴은 밝은 미소를 띠고 있다. 신체는 부드럽고 무릎과 대좌를 새긴 솜씨는 다소 둔하다. 생글생글 웃으며 반겨주신다. 연꽃 위에서 밝은 미소를 머금은 모습으로 넓은 서라벌 벌판을 굽어보고 계신다. 건물을 세울 수도 없는 이 가파른 곳에 왜 불상을 조성하였을까?

부처님의 자리에서 앞으로 내다보면 저 멀리 보문들과 낭산의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펼쳐진 광경이 풍요롭고 가슴이 활짝 열린다. 이 곳에서 언제나 서라벌을 굽어 살피시며 이 땅의 백성을 보살펴 왔으리라. 9세기 말에 조성된 불상이다.

경주시 배반동 산 66-1

미륵곡 석조여래좌상[51]

보물 136호

보리사는 남산 일대에서 가장 큰 절이다. 옛 절터에 근세에 다시 세운 절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서라벌 경관이 장관이다.

이 절 왼쪽에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이 있다.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전형(典形) 불상이다.

대좌는 억센 복련 연꽃과 팔각의 중대석, 탐스런 앙련으로 된 삼단대좌, 결가부좌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긴 눈을 가늘게 내리 뜨고 있다. 종교적인 신비감이 어린다. 이마엔 백호의 흔적이 남아 있고 입가엔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신다. 옷자락은 석굴암 불상보다는 다소 거칠지만 유려하게 흘러내린다.

거신광으로 된 광배는 화려하다. 화려하고 부드러운 화염문, 여섯 송이의 연꽃으로 장식된 두 줄기의 선으로 신광을 나타내었고, 또 다섯 송이 연꽃으로 두광을 장식하였다. 7구의 화불(化佛)은 구불거리며 솟아 오른 줄기 위에 핀 연꽃에 앉아 계신다. 연화화생(蓮花化生)이다. 전체 높이 4.36m, 불상높이 2.44m이다.

광배 뒷면에는 약사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약그릇을 들고 계신다. 앞면의 여래상은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고, 뒷면의 약사여래상은 9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배반동 산 66-1

경북천년숲정원[52]

보리사 입구에는 옛날 나룻배가 닿던 곳이라 하여 갯마을이라 한다. 길은 경북천년숲정원을 가로 질러 이어져 있다. 각종나무들이 이름표를 달고 맞이하니 마음 또한 시원해진다.

경북천년숲정원은 41ha의 넓은 터에 910종의 수목을 보유하여, 자연학습교육장을 만들어 놓았다. 산림전시실, 야생화 꽃밭, 무궁화동산, 습지 생태연못 등 시설을 갖추어 갈봄여름 없이 꽃피워 반겨주니 꼭 들러 보아야 할 곳이다.

경주시 남산동 725-2

화랑교육원과 석조감실[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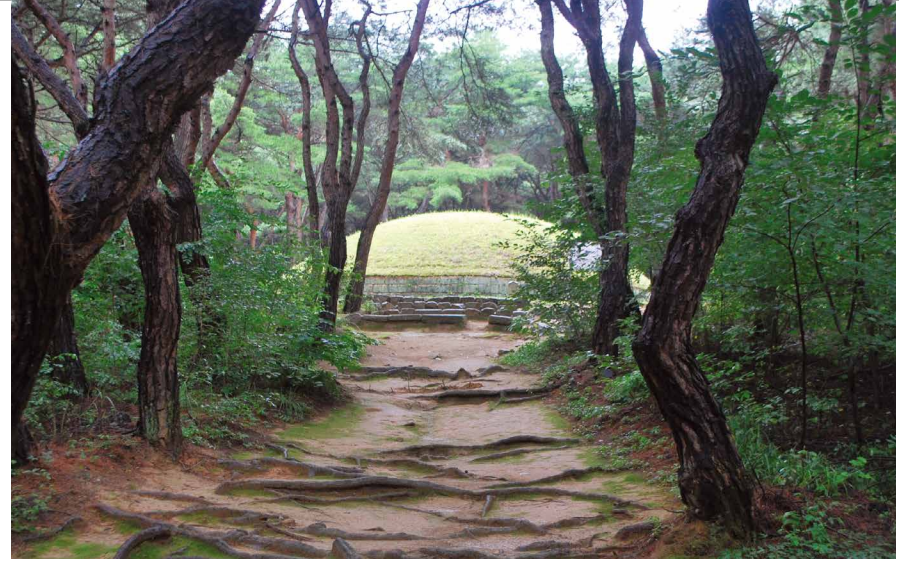
문화재자료 6호

화랑교육원은 화랑의 혼이 삼국통일의 기본 정신이었기에 후손들에게 화랑의 얼을 계승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바른 품성의 인재양성을 위해 1973년 설립하였다.

곧은 기상의 소나무가 울울창창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고, 일천바위가 굽어보는 곳에서, 천하를 호령할 새로운 화랑이 심신을 수련하는 곳이다.

운동장과 건물사이 솔숲 속에 판자 같은 바위로 조립한 석굴 같은 감실이 있다. 별로 다듬지 않은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삼고, 그 위에 네모꼴 판석 4매를 결구하여 공간을 만들었다. 받침돌 위로 양쪽 옆면과 뒷면을 높이 세운 뒤에 그 위로 덮개돌을 얹어 앞쪽을 트이게 했다. 감실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길쭉하고 둥근 연화대좌이다. 이 연화대좌로 인하여 불상이 안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경주시 남산동 830-5



헌강왕릉[54] 과 정강왕릉[55]

사적 187호 · 사적 186호

헌강왕(憲康王, 875~886) 시대는 신라말의 태평성대였다. 서울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들은 연이어져 있고, 초가는 없었다. 숯으로 밥을 짓고, 풍악과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비와 바람도 사철 순조로웠다. 일본왕이 사신을 보내 조빙하기도 하였다. 동해용왕의 아들 처용이 왔고, 남산신이 내려와 춤을 추기도 하였다. 왕릉은 흙으로 쌓아올린 원형봉토분으로서 밑둘레에는 장대석을 4단으로 쌓아 보호석으로 삼았다.

정강왕(定康王, 886~887)은 헌강왕의 동생으로 재위 2년(887) 봄 정월에 황룡사에서 백고강좌를 열고 강설(講說)을 들었으며, 이찬 김요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재위 2년에 후사(後嗣) 없이 병환으로 돌아가시니 여동생 진성여왕(眞聖女王)이 왕위에 올랐다. 왕릉은 헌강왕릉과 비슷하지만 밑둘레 호석이 3단이다.

두 왕릉 모두 도로에서 150~200여 m 거리로서, 구불구불한 소나무 숲길은 남산의 또 다른 경관이다. 특히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소나무와 어우러진 모습은 빼어난 풍경이다.

헌강왕릉에서 정강왕릉까지는 도로로 나가지 말고 솔 숲길을 걸어보자.

통일전주차장
(경주시 칠불암길6)에서 도보 3~5분

통일전[56]

남산은 화랑들이 몸과 마음을 닦던 성지와도 같은 산이다. 신라는 660년 백제를 병합하고, 668년 고구려를 멸하였으며, 676년 이 땅에 주둔하던 당나라 군사를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삼국문화를 융합하여 통일신라 문화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통일전은 1977년 삼국통일의 역사적 성업을 완수한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장군의 업적을 길이 찬양하고 화랑의 호국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발전하는 조국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조성되었다. 세 통일 영웅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고, 회랑에는 삼국통일의 기록화가 전시되어있다. 또 삼국통일기념비와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장군의 사적비가 있다.

무엇보다도 남산의 동쪽 벌판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여 좋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노랗게 물드는 가을이면 더없이 아름답다.

경주시 칠불암길 6

서출지[57]

사적 138호

통일전주차장 남쪽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 연못가에서 배롱나무 꽃이 만발할 때 남산과 함께 바라보는 이요당(二樂堂)의 경치는 한 폭의 수채화다.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 핀다.

이 연못에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21대 비처왕(소지왕)이 즉위한 지 10년 되던 해(488) 정월에 왕궁을 명활성에서 월성으로 옮겼다. 신하들을 거느리고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할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쥐가 사람의 말로 이르기를, "이 까마귀 가는 곳을 찾아 가 보시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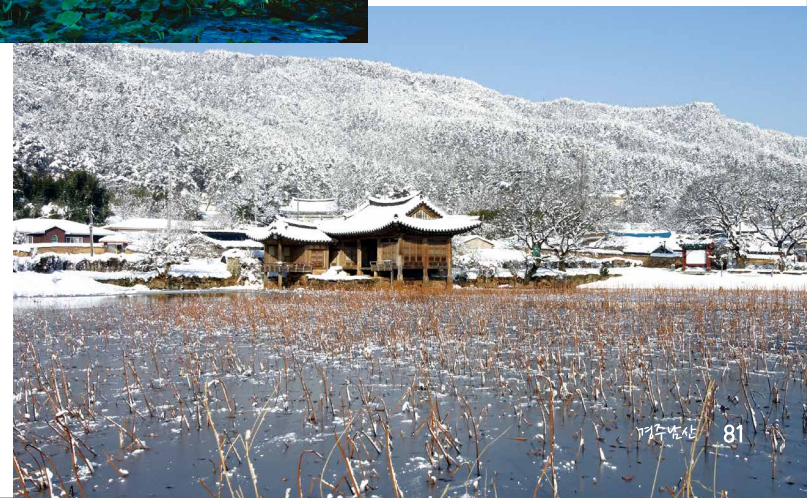
왕은 기사(騎士)에게 명하여 까마귀를 따라가게 하였다. 남산 동쪽 피촌(양피사촌)에 이르러,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문득 까마귀가 날아간 곳을 잃어버렸다. 이때 한 늙은이가 못 속에서 나와 글을 올리니, 겉봉에 쓰여 있기를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을 것이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것이다」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떼어보지 않고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겠다."하니,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하였다. 왕이 그렇다고 여겨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 「거문고갑을 쏘라」고 쓰여 있었다. 왕이 궁중으로 돌아와 거문고갑을 쏘니, 내전의 분수승(焚修僧)과 궁주(宮主)가 몰래 간통(奸通)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형하였다.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해마다 정월 상해(上亥). 상자(上子). 상오일(上午日)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꺼려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정월 16일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을 지어 제사 지내니, 지금까지도 이를 행하고 있다. 이후 이 못을 서출지(書出池)라고 이름하였다.

이 이야기는 신라의 전통적인 토속 신앙과 불교의 갈등, 불교의 수용을 둘러싼 신라 왕실과 귀족 집단의 대립, 내지는 소지왕에 반대하는 왕실 내부 세력에 대한 제거를 상징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연못에 1664년 임적선생이 이요당(二樂堂)을 짓고 연꽃과 배롱나무를 심어 자연을 즐기며, 선비의 고고한 심성을 수련했다.

봄에는 매화,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이 어우러지고, 여름에는 백일홍과 연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노란 은행나무잎과 단풍이 아름답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겨보자. 연못 주변에는 조명을 더하여 밤에도 아름답다.

경주시 칠불암길 6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양피사지)[58]

보물 124호

『삼국유사』의 염불스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양피사지로 추정되는 곳에 동서로 삼층석탑 2기가 서 있다.

서탑은 이중기단으로 된 일반적인 양식으로, 석가탑에 버금가는 조화와 균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탑이다. 상층 기단에는 팔부중상을 조각했다. 팔부중은 본래 힌두의 신들이었지만 불교에 수용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 되었다. 남면 오른쪽의 건달바상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신인데 사자탈을 쓰고 있으며, 왼쪽 아수라 상은 얼굴이 셋이고 팔이 여덟개로 손마다 무기를 들고 있으며 위로 올려든 손에는 해와 달이 들려있고, 배 앞에 있는 손에는 해골이 들려 있다.

동면 왼쪽의 야차상은 귀신 나라의 왕으로 염주를 입에 물고 손으로 헤아리고 있다. 오른쪽은 용왕으로 머리에 용관을 썼고 손에는 여의주가 들려 있다. 북면에는 얼굴 좌우에 소머리와 말머리가 달려있는 긴나라와 뱀의 신 마후라가가 새겨져 있으며, 서면에는 금강저를 들고 있는 천(天)과 주둥이가 독수리 부리로 된 새의 신 가루다가 새겨져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동탑은 광대한 이중의 지대석 위에 세운 전탑의 양식을 띠고 있는 모전석탑이다. 동탑은 꿋꿋하고 힘차게 솟아있어 남성답고 서탑은 부드럽고 화려하여 여성스럽다.

이 탑은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처럼 형식을 달리하는 쌍탑으로 알려져 왔으나, 양쪽 탑의 지면의 높이가 다르고, 동서축이 달라서 별도의 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경주시 남산동 226-2

염불사지(念佛寺址)[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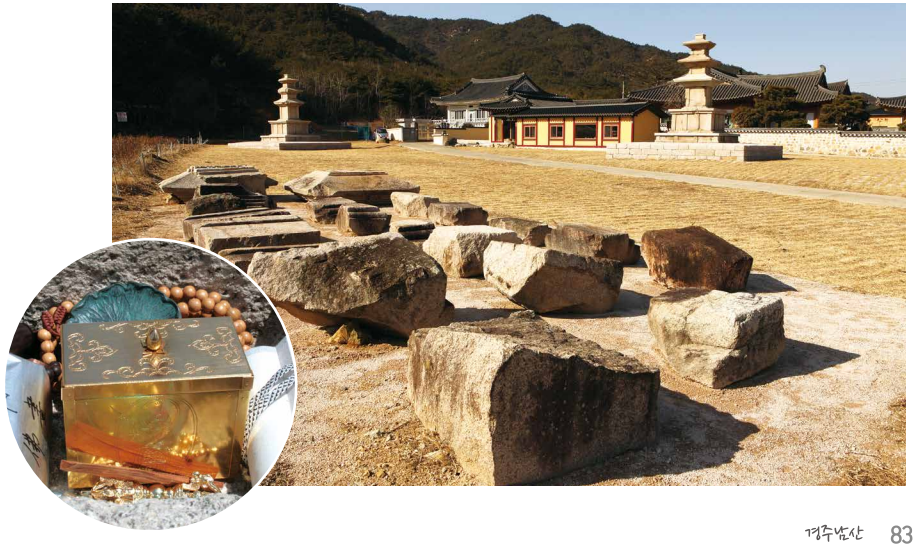
양피사지에서 다시 남으로 700여 m 가면 절터에 탑 2기가 있다. 1기는 불국사역 앞 공원에 있었고, 1기는 밭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을 2009년 본래 자리에 복원했다.

탑은 이중 기단 위에 장중하게 세워졌으며 층간 체감율과 옥개석, 탑신 사이의 공간이 넓어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다. 상하층 기단 모두 탱주(撐柱)가 2개씩 새겨져 있어 석가탑과 같은 시대인 8세기 중엽의 탑이다. 탑은 본래 자연스런 바위처럼 된 돌무더기 위에 세워져 있었으나, 복원하면서 깎은 돌로 반듯하게 축대를 쌓아 올려 본래의 모습을 잃어 버렸다.

『삼국유사』 <염불사>조에 의하면 "남산 동쪽 기슭에 피리촌이 있고, 동네에는 피리사라는 절이 있었다. 절의 스님은 늘 아미타불을 염하는데 그 소리가 성안에까지 들려 360방 17만호에 들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 높고 낮음이 없는 소리는 한결같이 낭랑하여 모두가 그를 공경하여 염불스님이라 불렀다. 그가 중자 소상(塑像)을 만들어 만장사에 모시고 그가 본래 살던 피리사를 염불사로 고쳐 불렀다. 이 절 옆에 또 절이 있는데 마을 이름을 따서 양피사라 했다." 한다.

이 탑은 복원할 때 스리랑카 종교부장관이 친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봉안하였다.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다. 염불스님의 염불소리가 실바람을 타고 낭랑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경주시 칠불암길 125



국사곡 삼층석탑[60] 유형문화재 447호

일주도로의 국사곡 입구에서 계곡을 따라 350m 정도 들어가면, 이정표와 갈림길이 있다. 북쪽에서 흘러오는 개울을 따라 300m 정도 올라가면 계곡에 거대한 2중 축대가 있고, 축대를 지나면 오른쪽 언덕위에 커다란 축대위에 삼층석탑이 솟아 있다. 지금은 거대한 축대를 쌓아 탑의 지반을 받치고 있지만, 주변의 바위들을 보아 본래는 얼기설기 쌓여진 돌무더기 위에 솟아 있는 탑이었을 것이다. 이 탑은 복원 전 북쪽으로 질서정연하게 무너져 있어 인위적으로 파괴된 것을 알 수 있다. 기단 일부와, 1층 탑신괴임과 노반을 새로운 돌로 보충하여 2002년 복원하였다. 3층탑신 윗면에 한 변 14.5cm, 깊이 7.5cm의 방형사리공이 확인 되었다. 이 탑은 단층기단인데, 기단의 탱주(撐柱)가 사면 모두 별석으로 조성된 점과 탑 주변으로 2겹의 부석(敷石)을 깐 것이 특이하다. 석탑은 단층기단이고, 옥개석 층급받침이 4단인 점 등으로 보아 9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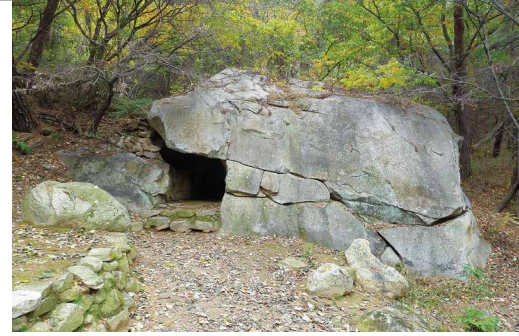
탑 주변에는 흩어져 있던 석재들을 정리해 두었는데, 2종의 연화대석으로 보아 2구 이상의 석조불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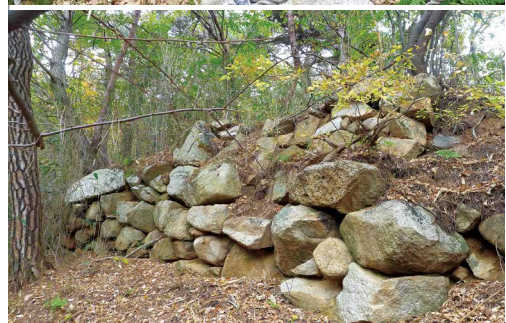
이곳의 절터는 탑 아래와 탑의 오른쪽 개울 건너에 넓은 터가 3단으로 펼쳐져 있고, 긴 축대도 남아 있다.

굴바위 절터[61]

국사곡 입구에서 계곡을 따라 800m 정도 올라가면 오솔길 좌우로 축대가 펼쳐져 보이고, 아담한 시골집 마당 같은 터가 나타난다. 이곳이 국사곡 제5사지 굴바위 절터이다. 이곳의 굴바위는 최근까지 무속인이 기도하던 곳으로 사용되었다. 아마 신라시대에는 수행자가 굴 입구를 막고 무문관(無門關)으로 삼아 수행 정진하던 곳이었으리라.

마당에는 무속인이 쌓은 돌탑과 제단이 있고, 그 곳에서 산 정상을 올려 보면 남산부석이 까마득히 솟아 하늘에 걸려 있는 듯이 보인다. 이곳에서 산길을 따라 100m 정도 올라가면 개울가 큰 바위아래에도 무속인이 정성들여 기도하던 곳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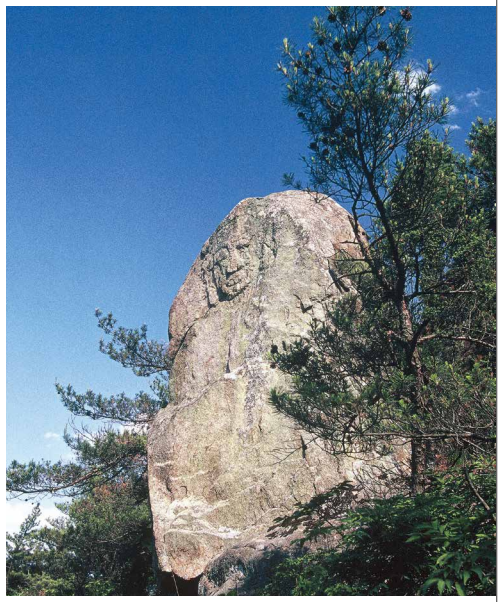


국사곡 제7사지[62]

굴바위 절터에서 굴바위의 오른쪽을 끼고 능선으로 올라가면 상사바위로 오르게 된다. 능선에 올라서서 150m 정도 올라가면 오른쪽 계곡 넘어 능선에 국사곡 7사지가 있다. 축대는 높이 2.5m, 길이 17m가 남아 있으며, 축대 위에는 마당의 빗물을 모아 내는 배수석 1매가 남아 있다. 절터에는 주춧돌 1매, 석탑 기단면석 1매, 1층 탑신석, 옥개석 1매가 남아있으며, 옥개석 층급받침이 4단인 것으로 보아 9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절터는 동서 10m, 남북 12m 정도 되며, 왼쪽 능선에는 고깔바위, 오른쪽 능선에는 상사바위와 남산부석이 있고, 뒤로는 절벽이 둘러싸고, 앞으로는 조양들이 펼쳐져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다.

오산곡 마애여래상[63]



남산동 마을에서 국립공원 초소까지의 도로 오르막 오른쪽 숲속에 듬성듬성 숨어 있는 바위들은 모두 고인돌이다. 40여 년 전에는 부근에 30여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5~6기 정도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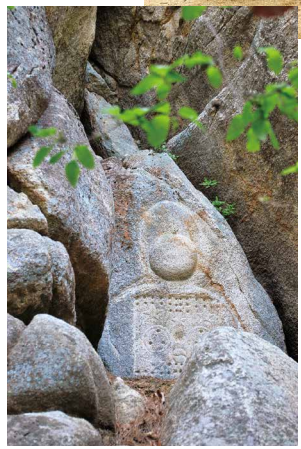
국립공원 초소에서 350m 정도 올라가면 왼쪽 개울 건너 산중턱에 높이 5m, 너비 2.5m 정도 되는 바위가 하나 솟아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름달처럼 둥근 불상 얼굴이 보인다. 얼굴은 둥글고, 코는 크고 납작하며, 눈은 두툼하고, 입은 두텁고 서투른 솜씨이지만 친근감이 가는 불상이다. 얼굴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불상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토속적이고 소박하며 친근감이 가는 불상이다. 이 불상이 있는 자리에는 경사가 가파르고 절터는 없다. 옛날 서라벌에서 언양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길목을 보살펴주시는 부처님으로 신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길에서 오른쪽 능선 넘어 골짜기에 개선사지가 있어 그 곳에서 바라보면 이 불상이 건너다보이므로 개선사 불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64]

문화재 자료 600호

지암곡 입구에서 300m 정도 들어가면 길 아래 다랭이 논의 흔적이 보이고 길은 갈라진다. 이정표에서 왼쪽 길을 따라 개울을 건너면 농바위 골이 된다. 골짜기 정상부에 농[衣籠]처럼 생긴 바위가 있다. 개울 옆길을 150m 정도 올라가면 개울 건너에 길이 13m, 높이 4m 정도 되는 축대가 있다. 사방이 산으로 막혀 좋은 전망은 없으나, 명상하기에 좋은 아늑한 곳이다. 절터에서 70m정도 골짜기 안쪽 언덕위에 삼층석탑이 있다. 단층기단에 3층이며 옥개석 층급받침은 4단이다. 옥개석은 3매가 모두 남아 있었지만, 탑신석과 노반은 모두 없어졌던 것을 탑의 비례에 맞추어 새로운 돌을 보충하여 2003년 복원하였다. 이 탑은 기단부 각 면의 면석(面石)과 탱주(撐柱)·우주(隅柱)의 조합된 조각 형식이 달라 면마다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9세기에 조성되었다.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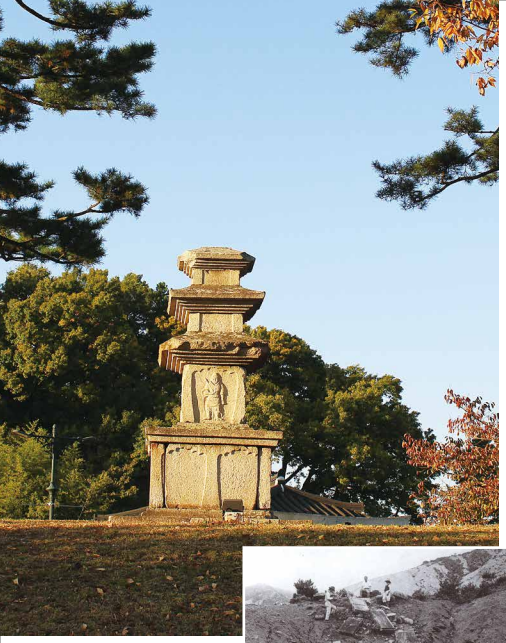
유형문화재 449호

2사지와의 갈림길의 이정표에서 100m 정도 본 계곡으로 올라가면 계곡에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가 작은 지바위이며, 건너편 능선에는 거대한 축대가 2단으로 보인다. 이 일대가 지암곡 1사지이다. 이 곳에는 조선시대 기와편들만 보이고 다른 유물은 없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300m 정도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면 민묘 위 넓은 터에 삼층석탑이 보인다. 이 탑은 탑신과 옥개석이 모두 주변에 남아 있어 노반만 보충하여 2003년 복원하였다. 자연괴석을 기단으로 삼아 그 위에 2단의 탑신괴임을 놓고 삼층탑을 올렸다. 옥개석의 층급받침은 4단이며, 상승감이 크다.

탑에서 향 우측 숲속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바위가 앞을 가로 막는다. 이 바위가 큰 지바위 이며, 바위 앞면의 대밭 속 경사지가 신라시대의 절터이다. 앞을 바라보면 작봉(鵲峰) 너머 조양들이 펼쳐지고, 멀리 토함산 준봉이 조산(祖山)으로 솟아 있는 명당이다.

큰 지바위의 높은 중간부분 바위 사이 동굴에는 무속적인 마애조각이 있으나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또한 근대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속적인 상 1구와 솜씨가 다소 떨어지는 불상 1구가 있다.



승소곡 절터[66]

칠불암 오르는 길 간이화장실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500m 정도 들어가면 계곡 막바지에 절터가 있다. 큰 바위산을 배경으로 하고 뻗어 내린 산맥들이 겹겹으로 터를 감싸고 둘러막은 아늑한 곳이다. 건물터는 남북으로 두 곳에 넓게 펼쳐져 있다.

이 절터에서 삼층석탑 1기가 무너져 있었는데, 1941년 경주박물관으로 옮겨 복원하였다. 하층기단과 상층기단에는 각 면마다 안상을 2개씩 새기고, 1층 탑신에는 면마다 안상을 새겨 그 안에 사천왕상을 조각하였다. 9세기에 조성된 높이 361cm의 아담한 탑이다.

천동곡 천동탑[67]

칠불암 입구 화장실에서 개울을 2번 건너고, 오르막을 오르다 2번째 민묘에서 오른쪽 숲속으로 500m 정도 올라가면 절터가 있다.

천동골에는 폐탑재 1개소, 디딜방아터 1개소, 금당지, 천동탑 2기, 선방터 1개소가 남아있다.

금당지의 축대는 일부가 무너졌는데, 천동탑은 금당지 정면에 1기가 세워져 있고, 계곡 쪽의 무너진 축대에 1기가 뒹굴고 있다.

천동탑은 자연석에 가까운 돌기둥에 각각 작은 감실을 100여 개씩 파놓은 특이한 모양이다. 계곡 이름이 천동골로 불리는 것은 이 돌기둥이 중국 석굴의 천불동을 본뜬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68]

보물 199호

신선암은 칠불암 삼존불의 배경이 되는 바위의 높은 벼랑 위에 있다. 칠불암 마애불상군의 옆으로 난 길을 따라 바위 절벽을 오르면 기묘한 바위들이 절경을 이루고 있다. 길이 매우 험하다. 마치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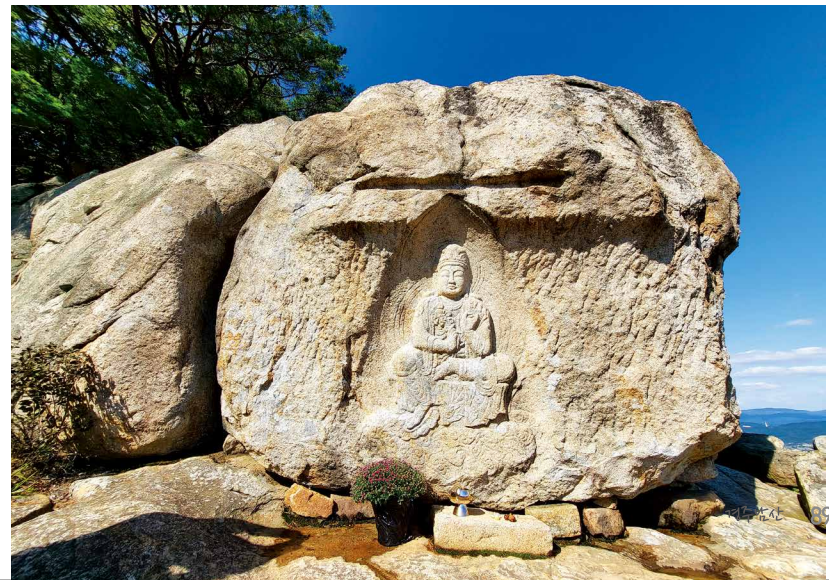
힘들게 올라 마침내 넓은 바위산 중턱에 닿으면 수십 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진다. 이곳을 돌아가면 우뚝 솟은 바위가 있는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이 새겨져있다. 서라벌 벌판이 한눈에 펼쳐져 가슴이 확 트이는가 싶더니, 뒤돌아서 보살상과 마주치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진다.

보살상의 모습 또한 신비롭다. 보리수 잎 모양의 감실을 파고 구름 위에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 편안히 앉아 계신다. 오른손엔 꽃가지를 들고 왼손은 설법인(說法印)을 하고, 도솔천 하늘을 유유히 노니시는 모습이다. 표정 또한 미소를 머금은 듯, 아닌 듯 초연한 모습이다.

잠시 앉아 보살상의 눈높이로 세상을 보면 나도 또한 도솔천에 있는 듯하다. 이곳이 바로 서라벌 남산의 도솔천이다. 세상은 푸른 소나무 파도를 지나 서라벌의 넓은 바다에 맞닿아있다. 멀리 산봉우리들이 농담(濃淡)을 달리하며 섬처럼 떠 있다. 어느덧 시끄럽던 마음도 가라앉고 이 순간만큼은 유유자적 보살상과 함께 도솔천 하늘을 노닐고 싶다. 이곳에 도솔천의 미륵보살을 새긴 옛 신라인들도 같은 마음이었을까?

수십 길 낭떠러지 위에 놓인 바위에 새겨진 이 보살상은 남산에 있는 불상들이 어떻게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지 잘 보여 준다. 남산의 불상들은 조각가의 솜씨를 뽐내기 위하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었다. 신라의 석공들이 바위 속에서 부처의 모습을 찾아내었을 뿐 …

이 보살상은 보통 관세음보살로 보고 있으나, 도솔천의 미륵보살로 보는 것이 주변 모습과 더 어울릴 것 같다. 신라불교미술의 전성기인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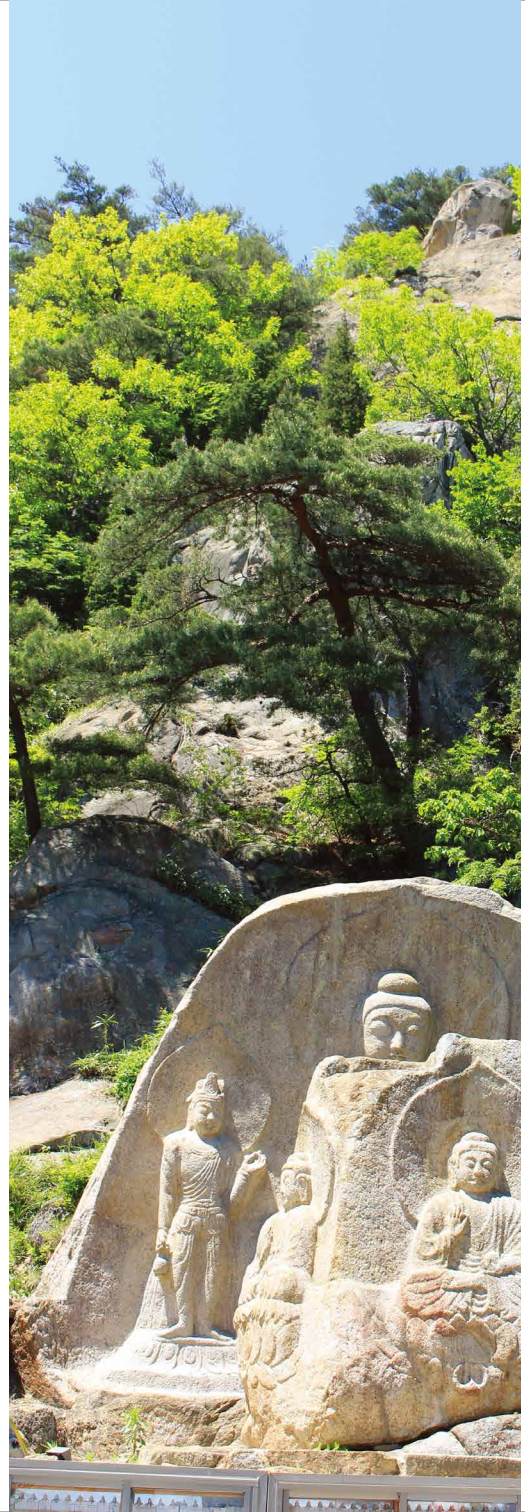
칠불암 마애불상군[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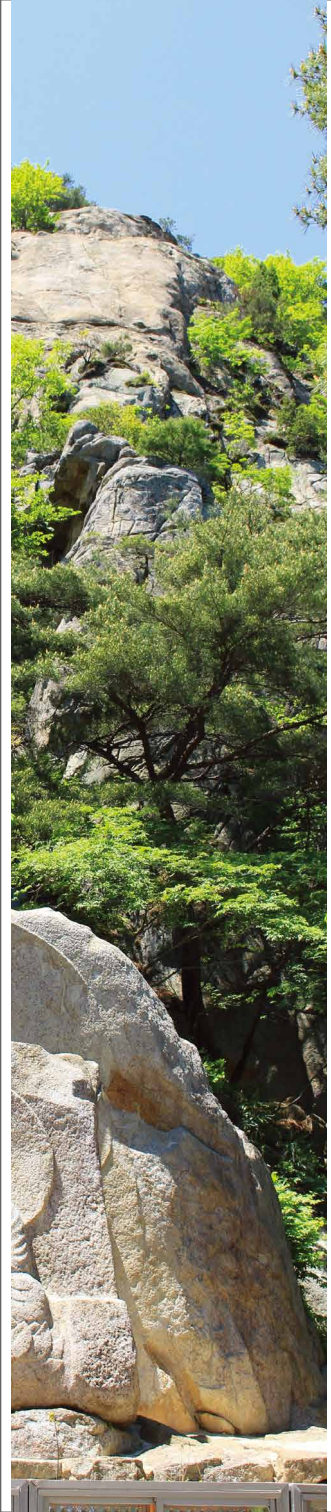
국보 312호

남산의 마애불상 가운데 걸작 중의 걸작으로 꼽히는 칠불암 마애불상군과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까지는 염불사지에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야 한다.

칠불암 마애불상군은 동남산에서 깊은 골짜기로 꼽히는 봉화골에 있으며, 사방불과 삼존불 등 일곱 불보살상이 남아 있는 곳에 근세에 한 암자를 지었고 칠불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되는 힘차면서도 화려한 기와무늬며 귀인들이 기도 드리고 중병을 고쳤다는 비석조각들로 보아 나라에서 경영하던 큰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신라 때 절 이름은 알 수 없다. 절은 경사가 가파른 험한 산등성이에 세워졌다. 절터에 올라서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거대한 바위 절벽의 불상군이 압도적으로 두 눈에 가득 찬다. 바위 절벽 중턱에 좁은 터를 만들기 위해 돌 축대를 이단으로 쌓았다. 그 위에 터를 조성하고 바위를 병풍처럼 깎아 석가삼존불을 높은 돋을새김으로 새기고, 그 앞에 단을 쌓아 바위에 사방불을 새겼다. 동면은 동방유리광세계 약사여래이고, 서면은 서방정토극락세계 아미타불이다. 남면과 북면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남산에 화현한 화엄불국토이다.





높이 5m, 너비 8m로 병풍처럼 솟아 있는 절벽 바위 면에 거의 입체상만큼이나 높은 돋을새김으로 새겨진 삼존불은 규모와 솜씨 모두 남산불상 중 으뜸이다. 석굴암 불상보다 이른 통일신라 불교미술 발전기의 불상 중 최고 걸작으로 꼽힌다. 이 불상들은 신라불교미술의 발전기로 꼽히는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조성된 것으로 그 시대 최고의 걸작이다.

지금까지 이 불상들은 중심주굴(中心柱窟 : 굴의 중심에 불상을 새긴 기둥이 있는 석굴)의 형식으로 보아 왔으나, 앞의 사방불은 부근에 쌓여져 있는 석탑 옥개석과 함께 1층 사방불탑이었으나, 절이 폐사가 된 후 어느 때인가 마애삼존상 앞에 축대를 쌓고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자세히 관찰하면 마애삼존상과 사방불의 조각에는 시대를 달리하는 양식적 특징이 보인다.

- 칠불암 찾아가기 -

염불사지 석탑 앞에서 칠불암으로 향하는 등산로가 잘 나 있다. 염불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간다. 1시간 소요. 칠불암에서 약 10여분 올라가면 신선암이 있다. 왕복 2시간40분 소요. (통일전에서는 3시간 20분, 대형차량은 통일전 주차장 이용)

경주시 칠불암길 125

전 삼화령[70]

1923년 출토되어 1925년 박물관으로 옮겨진 삼존불이 출토된 곳이다.
이 곳을 삼화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혹은 용장계곡의 대연화대를 삼화령으로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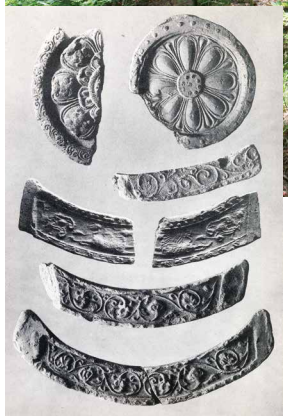
『삼국유사』「생의사 석미륵」조에
선덕왕대에 생의스님은 항상 도중사에 있었는데 꿈에 한 승려가 그를 데리고 남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묶어 표를 해 놓게 하고는 산 남쪽 골짜기에 와서 "내가 이곳에 묻혀 있으니 나를 파내서 고개 위에 올려달라"고 했다. 꿈에서 깨자 그는 친구와 함께 표해 놓은 곳을 찾아 골짜기에 이르러 땅을 파보니 돌미륵이 나오므로 삼화령 위로 안치하였다. 선덕왕 13년(644년) 그곳에 절을 세우고 생의사라 했다.(충담스님이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차를 다려서 공양한 부처다)

『삼국유사』「경덕대왕 충담사 표훈대덕」조에
경덕왕 24년(765) 3월 3일 귀정문 누각 위에 올라 좌우 신하들에게 "길에서 위엄과 풍모가 있는 스님 한 분을 데려오라"고 했다. 한 스님이 납의를 입고 등에 나무통을 지고 남쪽에서 오고 있었는데,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남산 삼화령에 있는 미륵 세존께 차를 다려 공양하고 돌아오는 충담이었다. 왕은 충담이 다려 바친 차를 마시고 난 뒤 백성을 편히 다스릴 수 있는 노래를 지으라 했다. 충담스님은 명을 받들어 노래를 지어 바치니, 안민가라.(61쪽에 있음)

남산신성[71]

사적 22호

『삼국사기』에 "진평왕 13년(591) 7월에 남산성을 쌓았는데, 둘레가 2,854보였다." 하였고, 1934년 발견된 「南山新城碑」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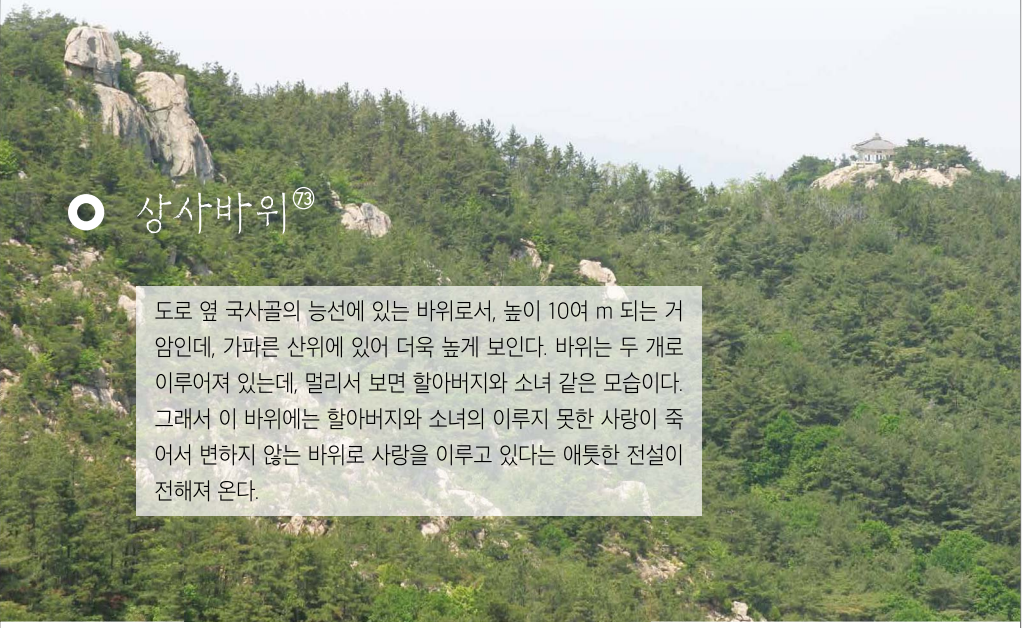
『삼국유사』에는
*"문무왕이 왕위에 올라 남산에 큰 창고를 설치하였는데 길이가 50보이고 너비가 15보이다. 이곳에 미곡과 병기를 저장하였다. 이것이 우창(右倉)이며, 천은사 서북쪽 산 위에 있는 것이 좌창(左倉)이라 한다."*하였고, *"혜공왕 4년(768) 7월 3일 대공강간이 반란을 일으켜 서울과 5도 주군의 96강간이 서로 싸워 나라가 크게 어지러웠다. 신성의 장창이 불에 탔다."*하였다.

26대 진평왕 때 쌓은 남산신성은 4850m가 확인되고 있으며, 지금도 곳곳에 벽돌처럼 쌓은 성벽이 남아 있다.
문무왕 때 설치한 우창은 통일된 왕국의 위엄의 상징이었고, 혜공왕 때 불타고 다시 짓지 못한 것 같다. 지금도 우창 터에는 이 때 타다 숯이 된 탄화미가 나오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 잡지 제사조에 의하면,
*"12월의 인일(寅日)에는 신성의 북문에서 팔자(八祖:농사를 도와준 8신)를 제사하되, 풍년에는 대뢰(大牢)를 쓰고 흉년에는 소뢰(小牢)를 썼다. 입춘 후 해일에는 명활성 남쪽 응살곡에서 선농을 제사하고, 입하후 해일에는 신성의 북문에서 중농을 제사 한다."*하여 신성의 북문이 신성스러운 곳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금오정(金鰲亭)⑫

1966년 남산관광일주도로가 준공된 이후 경주시에서 세운 정자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동으로는 토함산 불국사와 조양들, 북으로는 남산의 북쪽 능선, 봉우리들과 신라 천년의 궁성인 월성과 도성, 서로는 단석산과 내남의 가암들이 펼쳐져 보인다.



상사바위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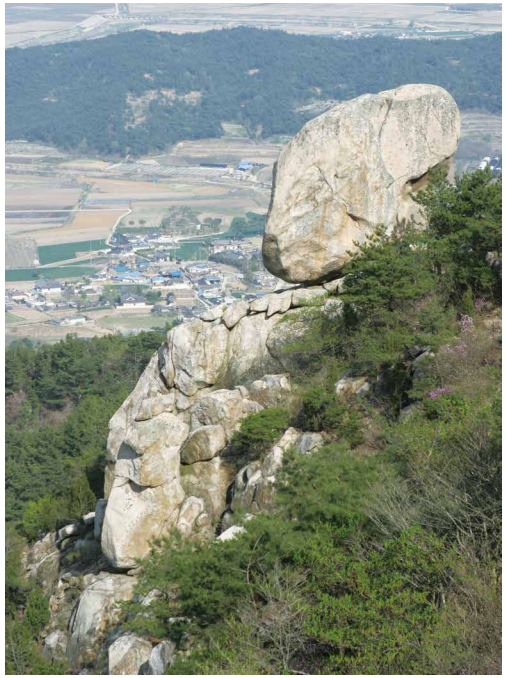
도로 옆 국사골의 능선에 있는 바위로서, 높이 10여 m 되는 거암인데, 가파른 산위에 있어 더욱 높게 보인다. 바위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멀리서 보면 할아버지와 소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이 바위에는 할아버지와 소녀의 이루지 못한 사랑이 죽어서 변하지 않는 바위로 사랑을 이루고 있다는 애틋한 전설이 전해져 온다.

사자봉⑭

남산에서 가장 위엄 있는 봉우리이다. 사자봉(獅子峯)이라는 명문이 있으나 시대를 알 수 없다. 도로 준공시 국토건설단에 의해 팔각정이 세워 졌으나, 얼마 되지 않아 벼락 맞아 무너졌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서라벌의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
도로는 경주남산을 관광화하기 위하여 국토건설단을 동원하여 1966년 11월 25일 완공하였다. 준공시 공식 명칭은 <남산관광일주도로>이다.

남산부석⑮

바위 절벽 위에 부처님 머리 같은 큰 바위가 얹혀 있어 마치 대좌불(大坐佛) 처럼 보인다. 부처님 머리가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아 부석(浮石)이라 부른다. 이 부근의 바위들은 불상처럼 생긴 모양이 많다. 여래상·보살상·나한상·좌상·입상 등 갖가지 모습의 부처님들로 산봉우리가 가득 차 있으니, 아래서 쳐다보면 하늘 세계의 부처님 궁전 같고, 올라가면서 바라보면 부처님 세계로 올라가는 것 같고, 올라가서 앉아보면 스스로 부처가 되어 부처님 나라에 있는 듯하니, 이 산을 부처님들이 머무는 산으로 신앙한 신라 사람이 된 듯하다.



지암곡 마애선각여래입상[76]

금오산 정상에서 용장계곡으로 넘어가는 고개 마루 도로 옆 봉우리 아래에 있다. 높이 솟아오른 높이 약 8m, 너비 약 5m 정도의 바위 면에 높이 3.5m 정도의 선각으로 새긴 마애불로 동쪽의 토함산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머리는 계란형에 가까운 긴 타원형으로 두 눈과 코는 얕게 도드라진 선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양쪽 귀는 어깨까지 내려온 모습이다. 법의는 편단우견이며, 오른손은 'ㄴ'자 모양으로 꺾어 가슴 앞에 모았으며, 왼손은 손바닥이 앞으로 보이도록 시무외인(施無畏印; 두려움을 없애주겠다는 약속의 손 모양)이며, 법의 자락은 손을 감싼 채 길게 늘어져 있다. 법의는 양쪽으로 길게 층단을 지면서 내려오는데, 마치 날개처럼 흘러 내렸다. 하반신에 조각된 군의(裙衣 ; 불상의 속에 입는 치마 같은 옷)는 12줄의 선에 의해 11개의 주름이 있고, 각 주름은 2단으로 층단이 지고 있다. 발은 가운데에서 모아 발끝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조각되었다. 상의 왼편 중간에는 입상을 향하는 모습의 작은 좌상 1구가 새겨져 있다.

불상은 마모가 심하지만 법의의 주름 선으로 보아 고신라 불상으로 추정하기도 하나, 확실하지 않다. 2005년 2월에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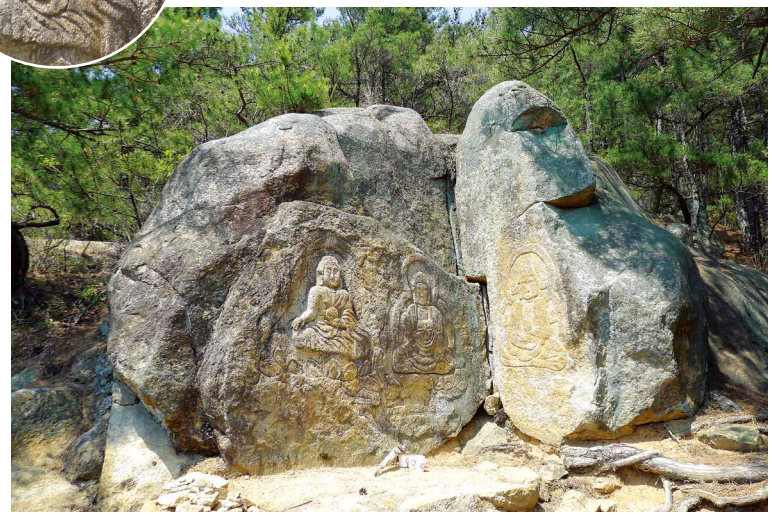
윤을곡 마애불좌상[77]

유형문화재 195호

남산신성 성벽 밑의 산비탈에는 많은 바위들이 솟아있는데, 그중 조금 큰 바위가 삼신바위라고 부르는 불상이 조성된 바위이다. 바위는 묘하게 'ㄱ' 자형으로 꺾여 절벽을 이루고 솟아있다.

좁은 면에는 약 그릇을 받쳐 든 약사여래상이 조각되어 있고, 넓은 면에는 조각 기법이 흡사한 여래상과 또 한분의 약사여래상이 조각되어 있다. 좁은 면의 약사여래상은 넓은 띠 모양의 광배를 조성하였는데, 두광과 신광에 각각 2구씩의 화불을 조성하였으나 솜씨는 다소 둔하다. 넓은 면의 여래상은 좁은 면의 약사여래상과 조각기법이 흡사하지만, 화불은 없다.

넓은 면의 약사여래상은 두 구의 불상과는 조각기법과 표현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두 구의 불상이 판화적인 조각이라면, 이 불상은 약간의 감실을 파고, 입체감을 살리려고 노력한 면이 역력히 보인다. 넓은 면의 여래상 좌측에 「태화구년을묘(太和九年乙卯)」라는 명문이 확인되어, 두 구의 불상은 835년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고, 또 한구의 약사여래상은 그 이후에 추가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많은 기와조각들이 흩어져 있어 이 바위 전체를 건물로 덮어 보호한 것을 알 수 있다.



부엉골 마애여래좌상[78]

포석계곡 부엉더미 맞은편 산허리에 마애여래좌상이 선각으로 새겨져 있다. 이 부근에는 묘한 바위들이 많이 솟아 있는데 불상이 새겨져 있는 바위는 자연으로 처마가 이루어져서 눈비를 맞지 않게 되어 있다. 불상은 넓은 연꽃 위에 결가부좌로 앉아 항마촉지인을 결하고 있는데, 얼굴이나 몸매가 정돈되고 안정감을 주는 편안한 상이다. 조각 선에 힘이 없고 부드럽기만 한 것으로 보아 신라 하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머리카락과 얼굴이 마모된 것인지 처음부터 섬세하게 조각되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광배가 조성되지 않고, 양련 연화대만 조각된 것으로 보아 미완성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불상 앞에는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불상의 윗면 바위에 석등대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산 아래 마을에서 남산을 올려다보며 남산 부처님에게 예배토록 조성된 불상으로 생각된다. 바위 면이 누른 빛깔로 되어 있어 석양 무렵 석양빛을 받으면 바위 전체가 황금빛을 발하여 황금불이라 부르기도 한다.

부흥사[79]

신라시대의 절터에 1970년대에 세운 절이다. 옛 유적은 모두 교란되었고, 대웅전 마당에 삼층 옥개석이 남아있어 옛 절터임을 알려주고 있다.

늠비봉 오층석탑[80]

유형문화재 555호

포석계곡의 두 줄기 여울물이 합쳐지는 사이에 늠비봉이라 불리는 삼각산이 솟아 있다.

늠비봉은 높이 270m 정도 되는 바위산이다. 여기 부풀어 솟아 오른 바위봉우리에 그랭이 기법으로, 아래 바위의 굴곡에 맞춰 윗돌을 다듬어 기단을 조성하고 오층탑을 쌓아 올렸다. 보통의 탑들은 돌의 면을 곱게 다듬는데 이 탑은 거칠게 정 자국을 남겼다. 때문에 자연적인 바위산에도 어울리고 인공적인 탑에도 어울리도록 기단부에서부터 인공을 생략하여 반 자연, 반 인공으로 처리하여 자연과 잘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7m도 채 되지 않는 탑이지만 270m나 되는 바위 봉우리와 연결되어 하늘과 통하는 높은 탑으로 승화된다. 계곡 어디서나 보이게 되니, 이 작은 탑으로 불국정토의 영감을 이 바위 봉우리에 세워 놓은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 숨 쉬는 남산의 아름다운 불국토가 펼쳐진다.

이 탑은 부여 정림사 5층 석탑과 같은 형식의 백제계통의 탑이다. 통일하대에 신라도성의 한가운데에 백제계통의 탑이 세워진 것은 무슨 까닭일까? 또한, 독립된 봉우리에 탑이 조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부흥사 대웅전에서 바라보면 마당 끝에 서 있는 탑처럼 보인다. 작은늠비절터에 속한 탑이다. 10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2002년에 복원되었다.

지곡 모전석탑[81]

보물 1935호

신선암 뒷 봉우리에서 산정호수로 내려가는 길 왼쪽에 민묘 1기가 있다. 이 민묘 주변이 절터이며, 민묘 안쪽 골짜기 건너에 모전석탑이 아담하게 서 있다. 2002년에 복원되었다.

단층 기단 위에 삼층으로 세운 전탑(벽돌탑)을 본뜬 석탑이다. 기단은 직사각형의 석재 여덟 개를 포개어 사각형으로 쌓았는데, 돌의 크기가 달라 돌과 돌들의 이음줄이 서로 어긋나게 표현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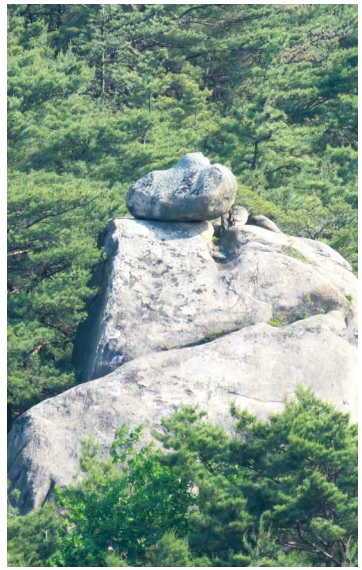
이층과 삼층 옥개석의 모서리에는 풍탁공이 남아 있는데, 아래에서 위로 뚫려 있다. 그런데 1층 옥개석은 풍탁공이 없다. 한 쪽 깨진 모서리를 보면 1층의 풍탁공은 위에서 아래로 뚫려 있는 것이 보인다. 또한 옥개석의 층급받침은 각층 4단 3단 2단이며, 삼층 탑신이 비스듬히 나뉘어져 3층과 2층의 옥개석에 붙어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다른 탑에서는 그 예를 보기 어려운 특이한 모습이다.

전체적으로는 남산리 삼층석탑의 동탑(82쪽 ㊽)과 같은 형식인데 규모가 약간 작고 시대도 조금 떨어진다. 9세기에 조성되었다.

고위지[82]

1950년대에 농업용수로 축조하였으나,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다. 남산 속에 있는 유일한 인공호수로서 깊은 용장계곡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어울려 신비감을 준다. 특히 억새가 피었을 때 주변 단풍과 어우러진 가을 산의 풍취가 아름답다.

열반골[83]



고위산 정상에서 서북으로 흘러 용장계의 본류로 흘러오는 큰 골짜기가 열반골이다. 이 계곡에서 열반재 고개를 넘으면 천룡사에 이른다. 이 계곡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온다.

옛날 신라시대 어느 재상에게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용모와 마음이 고와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꽃다운 나이를 맞이하니 많은 젊은 사내들이 사랑을 호소하고 때로는 금력과 권력으로 유혹하였다. 처녀는 마침내 번잡하고 시끄러운 속세를 떠나 열반의 세상에서 살 것을 발원하고 집을 나섰다. 부모의 사랑도, 여러 사람들의 선망도, 화려한 옷도, 맛있는 음식도, 속세의 인연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맑고 청정한 부처님의 세계로 찾아 들었다. 갱의암에서 머리를 깎고 먹물 옷을 갈아입고 골짜기로 들어섰다. 그러나 꽃같이 피어나는 살 향기를 감출 수는 없었다. 뭇 짐승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고양이바위, 개바위, 여우바위, 산돼지바위, 작은 곰바위, 뱀바위, 귀신바위 등 기묘한 바위들이 골에 가득 차 있다. 처녀는 무섭고 험난한 길을 헤치고 정진하여 마침내 산등성이 위에 올라 똥바위에서 똥을 누고(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변하였다는 것이고, 똥을 누었다는 것은 내면에 있는 번뇌의 찌꺼기까지 뱉어 내었다는 의미이다) 산 위에서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는 할미바위(지장보살)를 만나 그분의 안내로 고개를 넘으니 열반의 세계인 천룡사에 이르게 되었다 한다.

관음사[84]

옛 절터에 근세에 세워진 절이다. 주변에는 많은 기와조각들과 석탑 기단면석 1매, 옥개석 4매가 남아 있으나, 층급받침, 탑신 괴임 등이 달라 2개 이상의 석탑재로 보인다. 대웅전 부근에는 큰곰바위, 범바위, 용바위, 이무기바위, 거북바위 등이 보인다.

범굴바위 절터[85]

열반골은 두 갈래이다. 도로를 따라 관음사로 이어지는 골이 있고, 또 하나는 천우사의 왼쪽 이무기 능선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서 범굴바위로 오르는 골이다.
범굴바위는 골짜기에서 능선으로 이어지며, 큰 굴이 있어 범굴로 불리어 지며, 옛날에는 선방 토굴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근세에 와서는 무속인의 산신기도처로 오랫동안 애용되어졌다.
절터는 범굴바위의 건너편 대나무 숲 일대에 많은 축대가 있어 큰 사찰이었던 것이 확인된다.
계곡 위쪽의 길이 9m 정도의 절터 오른쪽에 2개의 옥개석이 있는데, 각각 옥개석 상면에 위층의 탑신이 붙어 있는 작고 아담한 삼층석탑으로 추정된다.
이 축대에서 북쪽 대나무숲 속에 비파바위가 있다. 『동경잡기』에 '**비파바위 - 금오산에 있다. 바위 위에 돌이 누어 있는데, 마치 비파의 형상이다.**' 라고 한 것이 이 바위이다. 한 때 이 곳이 『삼국유사』의 <진신수공>조에 나오는 불무사지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은적암[86]

은적암은 용장계곡 본류로 오르다가 은적골로 접어 들어가야 한다. 은적골 본류로 오르다가 다시 왼쪽 쌍봉 방향의 능선으로 오르면 2곳의 축대가 있다. 이곳이 은적암이다. 이곳은 능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배경은 별다른 것이 없지만, 앞으로 내다보이는 정경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선경이다. 이무기능선의 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안산을 이루고 있다. 은적암은 김시습이 한 때 은거하던 곳이라 하여 이름지어졌다고 전해진다. 절터에는 9세기의 석탑재가 남아 있어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유의건(1687~1760)의 은적암중건기가 남아 있어, 18세기에 중건되었다가 다시 폐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와룡통천과 와룡사[87]

경주 최부자의 7대 용암 최기영(1768~1834)이 1814년 채산조수(採山釣水 : 산에서 나물 캐고, 물에서 고기 낚는다.)하면서 은거하기 위하여 와룡암을 지었다. 주변에 진기한 나무와 화훼를 심고 물을 끌어다 못을 만들어 경관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서책을 쌓아두고 스스로 흡족한 삶을 즐기니, 각지 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후 법당을 만들고 목불을 모셔서 가문의 평안과 강녕을 기원하였으나, 1982년 실화로 법당은 소실되었다.
입구에 와룡통천(臥龍洞天) 비석이 있고, 계곡에는 와룡폭포가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고 있다. 경내에는 천룡사에서 옮겨온 것으로 전해지는 석종형 부도 2기와 석등 하대석이 있다.

천룡사[88]

『삼국유사』 <천룡사> 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동도의 남산 남쪽에 봉우리 하나가 우뚝 솟아 있는데, 속칭 고위산이라 한다. 산의 남쪽에 절이 있는데 속칭 고사(高寺) 혹은 천룡사라고 한다. 중국사신 양부구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이 절이 파괴되면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라 했다.

또 전하는 말에 옛날 단월(檀越 : 불교신도)에게 두 딸이 있어 이름을 천녀와 용녀라 하였다. 양친이 두 딸을 위하여 절을 세우고 이름으로 삼았다. 경지가 이상하여, 불도를 돕는 도량이었는데 신라 말에 파괴되어 폐허가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중생사의 관세음보살이 절을 멍여 기른 최은함의 아들이 승로였다. 승로가 숭을 낳고 숭이 시중 제안을 낳았는데, 제안이 이 절을 중수하여 없어졌던 절을 일으켰다. 그리고 성가만일도량을 설치하고, 조정의 명을 받아, 신서와 원문을 절에 남겨 두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자 절을 지키는 신이 되었는데 자못 신령스럽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나타내었다.

천룡사는 고신라시대에 창건되어 신라말에 파괴되었던 것을, 고려초 최제안이 중수하여 조선말 까지 법등이 이어졌던 절이다.

문헌자료와 발굴유물을 살펴보면, 중종 34년(1548) 건물을 중수하였고, 숙종 6년(1680) 분황사 보광전 중수에 도움을 주었고, 숙종 14년(1688)에는 『묘법연화경』을 간행하였으며, 이해에 『산중일기』를 쓴 정시한이 하루를 머물다 갔으며, 숙종 19년(1693), 숙종 33년(1707), 숙종 39년(1723)에 건물을 중수하였고, 영조 22년(1750)에는 법광사(포항) 석가불사리탑중수에도 도움을 주었던 기록이 있다.

또 천룡사는 산천경개가 좋아 일찍부터 수많은 문인들이 시문을 남겼는데, 조선초 김시습의 시로부터, 조선말 이능겸(1857~1929)의 시(登天龍寺二首)가 남아 있어 19세기 말까지 향화가 피워 올랐음을 알 수 있다.

경내에는 1994년 복원된 삼층석탑(보물 1188호)과 석조 2기, 귀부, 맷돌과 수많은 주춧돌과 석등대석 들이 남아 있어 사찰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절의 북쪽 부도밭에는 여러 기의 부도대좌가 남아 있으며, 이곳의 부도는 아래 연못 주변에 2기가 있고, 와룡사에 2기가 전한다.

이 절 위에는 일제 강점기에 세운 또 하나의 천룡사가 있다.

열암곡(새갓골) 석조여래좌상[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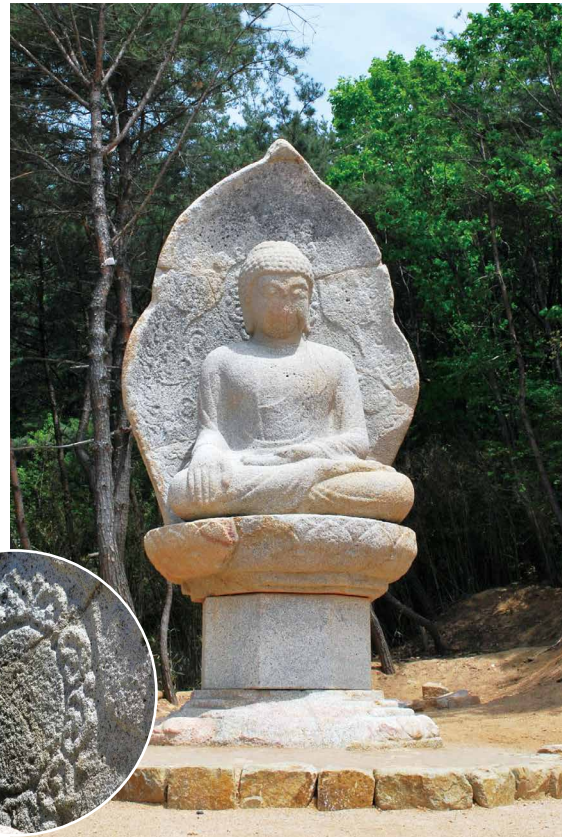
유형문화재 113호

산산이 부서진 불상이 오랜 세월 폐허가 된 절터를 지키고 있었다. 2005년 10월 경주남산연구소 회원에 의해 부처님 머리가 발견되어 2009년 복원되었다.

불상은 육계가 낮고, 나발은 큼직하게 표현되었고, 얼굴은 양감이 있지만 훼손이 심하다. 넓고 건장한 어깨와 부피감 있는 가슴을 넓게 벌리고 곧게 편 상반신 등 신체는 당당하면서도 안정감이 있고, 법의는 통견이며 비교적 얇게 표현되어 신체의 윤곽이 드러나고, 옷주름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다. 광배는 화염문이 있고 당초문과 함께 9구의 화불을 조각하였는데, 조각이 섬세하고 치밀하여 우수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대좌의 상대는 앙련을 3단, 중대 괴임은 3단, 하대는 복련으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정면관과 더불어 측면관이 강조되면서 불두가 신체에 비하여 크지 않은 안정적 비례의 조형감은 통일하대 불상조각의 위축되고 정형화 되는 양상과 구별된다. 풍만하면서도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신체 표현, 대좌와 광배의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조각, 몸에 밀착된 법의 등 석굴암 본존불에서 완성된 통일신라시대 조각의 양식과 수법을 따르는 8세기 말~9세기 초 제작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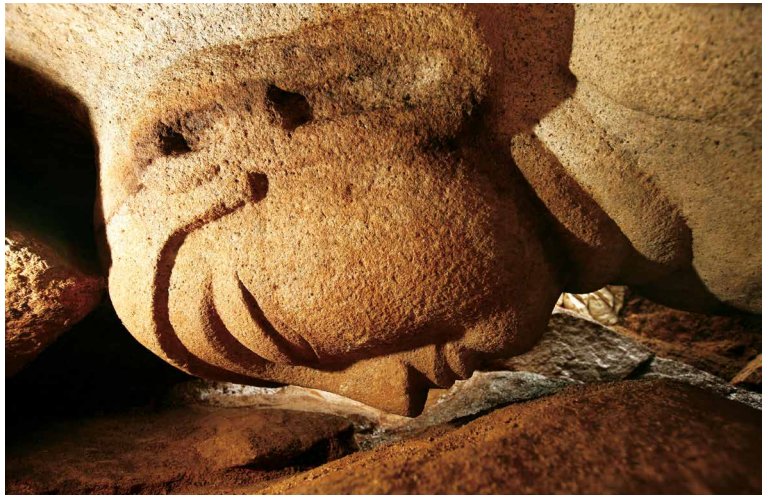
이 골은 새갓골이지만, 불상을 문화재로 등록하면서 열암곡 석불좌상으로 이름 하였다.



열암곡(새갓골) 마애여래입상[90]

석조여래좌상을 복원하기 위하여 발굴 조사 중 2007년 5월 엎어져 있던 바위 아래에서 부처님의 발 부분이 발견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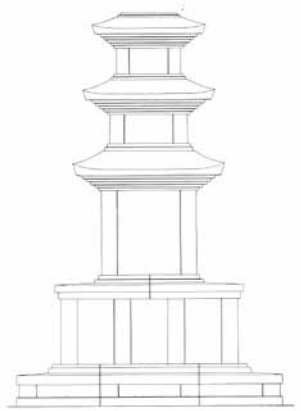
80톤 정도 되는 바위에 전체 높이 5.6m로 새겨진 남산에서 세 번째로 큰 마애불상이다. 육계는 높이 솟아있으며 소발이다. 얼굴은 타원형이며, 코는 오뚝하게 솟았으며, 눈은 아래로 내리 뜨고 있다. 입술은 도톰하고 부드럽게 처리되었고 귀는 매우 크게 표현 되어 있다. 삼도는 입체적으로 표현되었으며. 어깨는 넓고, 가슴은 펴고 있어 당당한 모습이다. 수인은 독특한 양식이다. 법의는 편단우견이고, 옷 주름은 9겹으로 표현되어있다. 발끝은 밖으로 향하게 벌리고 있어 부자연스러우며, 연화대좌는 5장의 꽃잎을 얇게 조각하고 있다. 불신은 4등신으로 머리가 크다. 우러러 볼 때의 비례감을 고려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연출하였다. 볼륨 있는 상호, 날카로운 눈매에서 느껴지는 엄숙함, 특이한 수인 등으로 볼 때 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열암곡 1사지[91]

열암곡은 양조암골로도 불리어 진다.
1사지는 열암곡 주차장에서 열암곡 석조여래좌상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서 왼쪽 능선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간 열암곡에 있다.
절터는 뻗어 내린 바위 능선의 끝에 기둥바위 들이 병풍처럼 솟아 있는 풍경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돌 축대는 2중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13×10m 정도로 마련된 아담한 절터이다.
산산조각 난 불상과 광배 대좌의 조각들이 축대 아래에 뒹굴고 있었으나, 최근 한 곳에 모아 정리하여 두었다.
항마촉지인을 한 불상은 머리, 허리, 어깨 등 철저히 파괴되어 조선시대의 배불(排佛)의 처절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불상대좌는 네모난 복련대석에 중판으로 된 갸름한 복련 연꽃이 새겨져 있고, 윗면에는 3단의 중대괴임이 새겨져 있다. 이 불상대좌는 남산에서 3개만 확인되는 방형대좌 중 하나이다.
파괴된 광배는 두광과 신광이 조각된 거신광인데, 두광에는 연꽃을 새겼고, 가장자리에는 화염문을 새겼는데, 간결하고 힘이 넘친다.

열암곡 3사지[92]



바위 같은 큰 돌을 'ㄱ'자로 꺾어 쌓은 웅장한 축대이다. 절터에서 바라보면 전망이 크게 열려 멀리 마석산과 치술령이 마주 보인다. 절터에는 큰 민묘가 1기 있으며, 축대는 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고 축대 아래 덩굴 속을 뒤져야 보인다. 근세까지 이곳에 양조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고 전해지며, 최근까지 1가구의 농가가 살고 있었다.
서쪽 언덕 위에 높이 6m 가량의 큰 석탑이 세워져 있었으나, 지금은 절터에 커다란 석탑 1층 옥개석이 있고, 나머지 탑재들은 허물어져 언덕 아래에 뒹굴고 있다. 탑이 있던 곳에는 민묘가 1기 자리 잡고 있어, 이 탑을 허물고 민묘를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어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탑의 복원도를 보면 이중으로 된 기단의 탱주가 모두 2개씩이며, 옥개석의 층급받침이 5단인 것으로 보아 8세기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에 남산의 남쪽 끝단 깊은 골까지 사찰이 조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절터의 앞쪽 대나무와 덩굴 속에는 화강암으로 다듬어 만든 오래된 옹달샘이 있다.
열암곡 2사지는 동쪽 계곡 건너에 있으며, 큰 축대 위에 넓이 30×24m 정도의 넓은 절터가 있으나, 기와조각 들만 흩어져 있다.

봉수대[93]

봉수는 낮에는 연기(烽;봉)를 피워 올리고, 밤에는 불(燧;수)을 피워 올려 변방의 병란이나 사변을 중앙에 알리던 시설이며, 이 곳은 조선시대 시설이다. 『동경잡기』에 의하면 **'고위산 봉수는 부의 남쪽 25리에 있으며, 동으로는 동악, 남으로는 소산, 서로는 내포점에 응한다'**고 하였다.

침식곡 석조여래좌상[94]

유형문화재 112호

이 골은 심수곡이라고도 하며, 이 절터를 마을 사람들은 석수암(石水庵)터라 한다. 절터 옆에 지금도 솟아나는 석간수(石間水)로 인하여 이름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몇 단으로 이루어진 절터는 최근까지 논으로 경작되다가 지금은 숲으로 우거졌다. 이 절터에 머리와 광배가 없는 불상이 있다.

목에는 삼도가 선명하고, 체구는 다소 빈약하지만 가슴은 양감으로 부풀어 올라 근육이 표현된 건장한 남자의 모습이다. 편단우견의 법의는 3단의 넓은 층단으로 거칠게 조각되었으며, 항마촉지인의 결가부좌로 앉아 있다. 대좌는 삼단으로 조성되었으며, 하대석은 거치른 복련이 8잎 조각되었고, 중대석에는 모서리 기둥이 없으며, 거대한 상대석은 지나치게 무거워 보여 균형이 맞지 않고, 연꽃은 팔엽 단판연화문 위에 화려한 꽃무늬를 장식하였으나 우수한 솜씨는 아니다. 9세기 말에 조성되었다.

백운암과 백운대[95]

백운암은 고위산 동쪽의 높은 바위산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곳에서 바라보면 가까이로는 천왕지산이 오른쪽으로 뻗어 있고, 멀리로는 마석산과 치술령이 마주하고 있는 구름 위의 선경이다. 현재의 백운암은 옛 절터에 근대에 세워진 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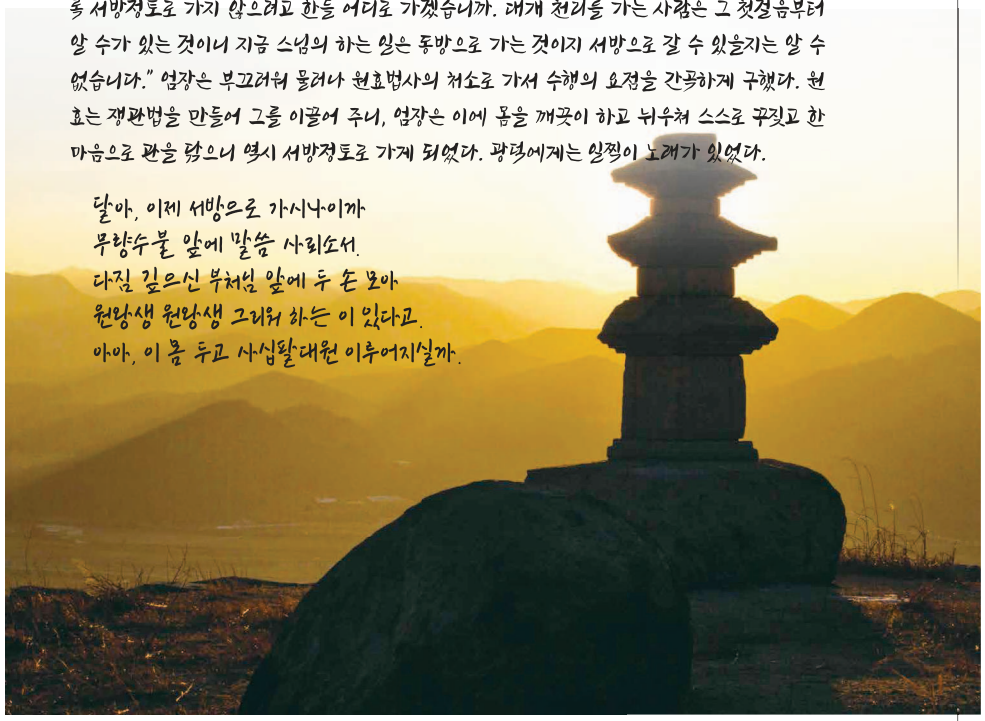
현 백운암 아래에 있는 절터는 큰 바위(1.5×2m)를 높이 5m 정도로 포개어 쌓아 놓은 웅대한 축대이다. 축대의 길이는 16m 정도 되고, 동면은 9m 정도 북으로 꺾였다가 다시 동쪽으로 20m 가량 되는 거대한 축대이다. 건축터는 축대 위에 너비 14m 정도 되는데, 기와 조각들이 수없이 흩어져 있어 거대한 사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절터의 동쪽으로 뻗어 내린 산맥은 약 20m 높이의 절벽을 이루어 놓고 아래는 급한 경사로 계속 뻗어내려 갔는데, 이 절벽 바위 위에 건물터가 있다. 바위 틈 사이로 약간의 축대를 보충하여 5×3.5m 정도의 작은 터이지만, 이 터에서 앞을 내려 보면 멀리 산봉우리들이 보일 뿐, 속세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곳이 백운대이다. 구름 위의 선경이다.

남악(南岳)

〈광덕과 엄장〉 문무왕 때 사문 광덕과 엄장은 서로 사이가 좋아 밤낮으로 약속하기를 "먼저 극락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알리도록 하자."고 하였다. 광덕은 신 삼는 것으로 업을 삼아 처자를 데리고 분황서리에 숨어 살았고, 엄장은 남악에 암자를 짓고 씨 뿌리고 농사 지으며 살았다. 어느 날 해 그림자가 붉은 빛을 띠고 소나무 그늘이 고요히 저물어가는데 창밖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서쪽으로 가니 그대는 잘 살다가 속히 나를 따라오라." 엄장이 문을 밀치고 나가 보니 구름 밖에서 하늘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밝은 빛이 땅에 드리워 있었다. 다음날 광덕이 사는 곳을 찾아갔더니 광덕은 과연 죽어 있었다. 그의 아내와 유해를 거두어 장사 지내고 부인에게 말했다. "남편이 죽었으니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소?" 광덕의 아내도 좋다고 하여 그 집에 머물렀다. 밤에 자면서 정을 통하려 하자 부인이 꾸짖어 말하기를 "스님께서 정토를 구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장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 물었다. "광덕도 이미 그러했거니 나 또한 어떻겠소?"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은 나와 함께 십여 년을 같이 살았지만 일찍이 하룻밤도 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거늘 어찌 몸을 더럽혔겠습니까. 매일 밤 단정히 앉아서 한결같은 소리로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또 흙은 십육관을 만들어 그 관이 무르잉고 밝은 달이 창에 비치면 때때로 그 빛에 올라 가부좌하였지요. 정성을 기울임이 이와 같았으니 비록 서방정토로 가지 않으려고 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개 천리를 가는 사람은 그 첫걸음부터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지금 스님의 하는 일은 동방으로 가는 것이지 서방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엄장은 부끄러워 물러나 원효법사의 처소로 가서 수행의 요점을 간곡하게 구했다. 원효는 쟁관법을 만들어 그를 이끌어 주니, 엄장은 이에 몸을 깨끗이 하고 뉘우쳐 스스로 꾸짖고 한 마음으로 관을 닦으니 역시 서방정토로 가게 되었다. 광덕에게는 일찍이 노래가 있었다.

달아, 이제 서방으로 가시나이까
무량수불 앞에 말씀 사뢰소서.
다짐 깊으신 부처님 앞에 두 손 모아
원랑생 원랑생 그리워 하는 이 있다고.
아아, 이 몸 두고 사십팔대원 이루어지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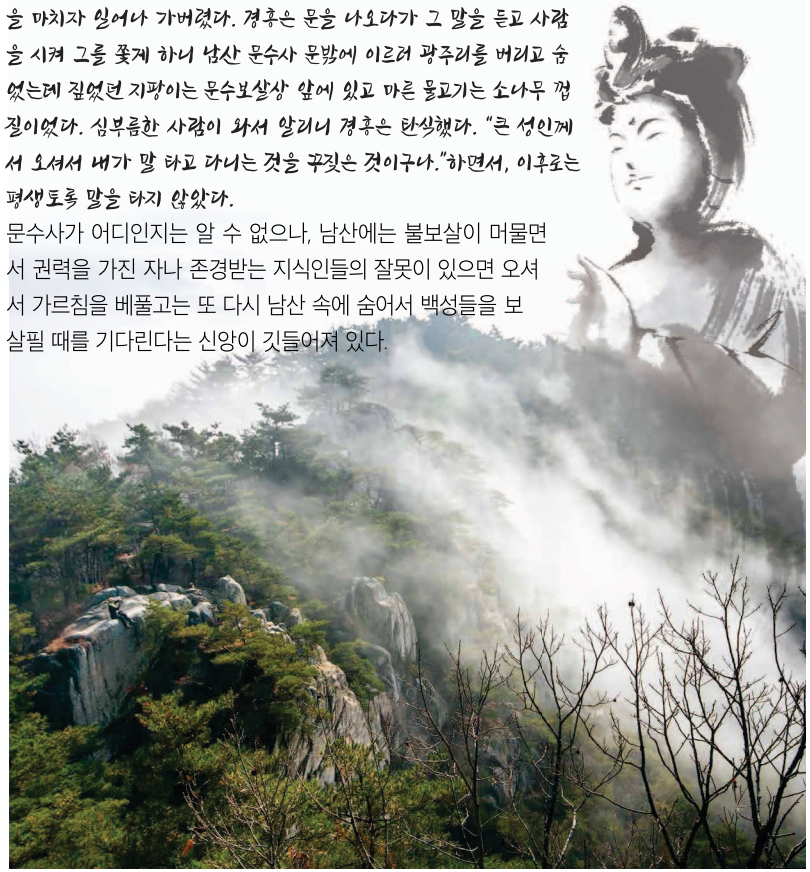


경흥우성 - 경흥이 성인을 만나다

〈경흥우성〉 신문왕 때 대덕 경흥의 성은 수씨이며 웅천주 사람이다. 나이 열여덟에 출가하여 삼장을 통달하니 명망이 일시에 높아졌다. 개요 원년(681) 문무왕이 장차 승하하려고 할 때 신문왕에게 유언으로 말하기를 "경흥법사는 국사가 될 만하니 내 명을 잊지 말라."하였다. 신문왕이 왕위에 올라 국로(國老)로 삼아 삼랑사에 머물게 했다. ...

경흥이 어느 날 대궐에 들어가려 하자 시종하는 이가 동문 밖에서 먼저 채비를 차리니 말과 안장이 매우 화려하고 신과 갓도 제대로 갖추었으므로 길 가던 사람들은 길을 비켰다. 그 때 한 거사가 볼품없는 모습으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등에는 광주리를 지고 와서 하마대 위에서 쉬고 있는데 광주리 속을 보니 마른 물고기가 있었다. 시종하는 이가 꾸짖기를 "너는 수행자의 옷을 입고 어찌 더러운 물건을 지고 있느냐."하였다. 거사가 말하기를 "두 다리 사이에 산고기를 끼고 있는 것보다 시장의 마른 고기를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허물이 되겠는가?" 말을 마치자 일어나 가버렸다. 경흥은 문을 나오다가 그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그를 쫓게 하니 남산 문수사 문밖에 이르러 광주리를 버리고 숨었는데 짚었던 지팡이는 문수보살상 앞에 있고 마른 물고기는 소나무 껍질이었다. 심부름한 사람이 와서 알리니 경흥은 탄식했다. "큰 성인께서 오셔서 내가 말 타고 다니는 것을 꾸짖은 것이구나."하면서, 이후로는 평생토록 말을 타지 않았다.

문수사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남산에는 불보살이 머물면서 권력을 가진 자나 존경받는 지식인들의 잘못이 있으면 오셔서 가르침을 베풀고는 또 다시 남산 속에 숨어서 백성들을 보살필 때를 기다린다는 신앙이 깃들어져 있다.



진신수공(참 부처가 공양을 받다)[39]

〈진신수공〉 장수 원년 임진(692) 효소왕이 즉위하여 처음으로 망덕사를 세워 당나라 황실의 복을 받들었다. 그 후 경덕왕 14년(755)에 망덕사 탑이 흔들리더니 이 해에 안사의 난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당나라 황실을 위하여 이 절을 세웠으니 마땅히 그 영험이 있는 것이다"하였다. 6년(697) 낙성회를 열고 왕이 친히 공양하는데 한 비구가 몹시 누추한 모습으로 몸을 움츠리고 뜰에 서서 청했다. "빈도도 이 재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왕은 허락하여 상 끝에 앉게 했다. 재가 끝나자 왕은 그를 희롱하며 말했다. "어디 사는가?" "비파바위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제 가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국왕이 친히 올리는 재에 참석했다고 말하지 말라." 스님은 웃으면서 "폐하께서도 영시 사람들에게 진신 성가를 공양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말을 마치자 몸을 솟구쳐 남쪽을 향하여 날아갔다. 왕이 놀라고 부끄러워 동쪽 언덕에 달려 올라가서 간 곳을 향해 절하고 사람을 시켜 찾게 하니 남산 삼성곡 홈은 대전천원에 이르러 지팡이와 바리때를 놓고 숨어 버렸다. 사자가 와서 복명하니 왕은 비파바위 밑에 성가사를 세우고 그 자취가 숨은 곳에 불무사를 세워 지팡이와 바리때는 두 곳에 나누어 두었다. 두 절은 지금도 남아 있으나 지팡이와 바리때는 없어졌다.

남산 바위 속에 계시던 부처님이 효소왕에게 백성들을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또다시 남산 바위 속으로 숨어 버린 이야기이다. 골짜기에는 비파바위와 석가사지, 불무사지가 확인되었고, 무너진 삼층석탑 2기가 흩어져 있다.

비파마을(경주시 앞비파길 35)에서 등산 40분

금광사지[96]

〈명랑신인〉 「금광사 본기」를 살펴보면, "법사 명랑이 신라에 태어나서 당나라로 건너가 도를 배우고 돌아오는데 바다 용의 청에 의해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황금 1,000냥을 보시 받아 땅 밑으로 돌아 와서 자기 집 우물 밑에서 솟아나왔다. 이에 자기 집을 내놓아 절을 만들고 용왕이 보시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장엄하니 유난히 광채가 났다. 그 때문에 절 이름을 금광사라고 했다."

나정 남동쪽 250m 거리에 있는 이곳은 금광제라는 저수지가 있었으나, 1966년 둑을 헐고 농경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석재들과 불상이 발견되어 절터로 확인되었으며, 저수지의 이름으로 보아 금광사지로 추정하고 있다.

나정(경주시 탑동 700-1) 앞 들

국사방[60]

〈영여사〉 실제사의 선 영여는 씨족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덕과 행실이 모두 높았다. 경덕왕이 맞아 공양을 드리려고 사자를 보내서 부르니, 영여는 대궐 안에 들어가 재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왕은 사자를 시켜 그를 절에까지 모시도록 했다. 그는 절 문에 들어서자 즉시 숨어 버려 있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사자가 와서 아뢰니 왕은 이상히 생각하고 그를 국사에 봉했다. 그 뒤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 절을 국사방 이라고 부른다.

동남산에 국사골이 있다. 이 골짜기에는 세 곳의 절터가 있고, 그 한 절터에 삼층석탑이 복원되어 있다. 명칭으로 볼 때 이 골짜기 어딘가 국사방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48대 경문왕 때 최광유의 시 「포석정주악사」에 "기원 실제 두절이 동서로 있는데, 그 가운데 포석정이 있다네"라는 구절이 있어 국사방이 포석정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겠다.

통일전주차장
(경주시 칠불암길 6)에서 등산 30분

쑥두덤골

〈선율환생〉 망덕사의 스님 선율은 시주받은 돈으로 『능엄반야경』을 이루고자 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음부의 사자에게 잡혀갔다. "너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에 무슨 일을 했느냐." 선율이 "저는 만년에 『대품반야경』을 만들려 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왔습니다." 명부의 관리가 "너의 수명록에 의하면 수명은 이미 다되었지만 좋은 소원을 마치지 못했다니 다시 돌아가서 보배경전을 이루도록 하라." 하고 돌려보냈다. 도중에 여자 하나가 울면서 앞에 와 절을 하며 말하기를 "저도 남염주 사람이온데 부모가 금강사의 밭 1묘를 몰래 빼앗은 일에 연루되어 명부에 잡혀와서 오랫동안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스님께서 돌아가시거든 우리 부모에게 알려서 속히 그 밭을 돌려주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참기름을 상 밑에 묻어 두었고 곱게 짠 베도 침구 사이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부디 그 기름을 가져다가 불등에 불을 켜고 베는 팔아 경폭으로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황천에서도 은혜를 입어 고뇌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율이 "그대의 집은 어디 있는가."하니 "사량부 구원사 서남쪽 마을입니다." 선율이 이 말을 듣고 가려는데 깨어났다. 이 때 선율은 죽은 지 이미 열흘이 되어 남산 동쪽 기슭에 장사 지냈으므로 무덤 속에서 사흘이나 외쳤다. 문동이 듣고 절에 가서 알리니 절의 스님이 와서 무덤을 파고 그를 꺼냈다. 선율은 그 동안의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는데 여자는 죽은 지 15년이 되었으나 참기름과 베는 완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선율이 여자가 말한 대로 명복을 빌어 주니 여자의 영혼이 찾아와서 "스님의 은혜를 입어 저는 이미 고뇌를 벗어났습니다."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고 감동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리하여 서로 도와서 『반야경』을 완성시켰다. 그 경전은 지금 동도의 승사서고 안에 있는데 매년 봄과 가을에는 돌려 읽어 재앙을 물리쳤다.

신라 때는 승려의 장례를 매장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곳이 염불사지 주변의 쑥두덤골이 아닌가 추정해 볼 따름이다.

남산팔경 (경주남산연구소 선정)

1. 황금대
2. 늠비봉
3. 삼릉솔숲
4. 냉골 암봉
5. 남산부석
6. 용장계곡
7. 칠불암과 신선암
8. 천룡고원

전망 좋은 10곳 (경주남산연구소 선정)

1. 바둑바위
2. 사자봉
3. 늠비봉
4. 삼화령(대연화대)
5. 신선암
6. 금오정
7. 잠늠골 삼층석탑
8. 황금대
9. 해목령
10. 고위봉

경주남산의 지정문화재

1. 국보(1점)
- 제 312호 칠불암마애불상군

2. 보물(16점)
- 제 63호 배동 석조여래삼존입상
- 제 124호 남산동 동·서삼층석탑
- 제 136호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 제 186호 용장사곡 삼층석탑
- 제 187호 용장사곡 석조여래좌상
- 재 198호 불곡 마애여래좌상
- 제 199호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
- 제 201호 탑곡 마애불상군
- 제 666호 삼릉계 석조여래좌상
- 제 909호 남간사지 당간지주
- 제 913호 용장사지 마애여래좌상
- 제1188호 천룡사지 삼층석탑
- 제1867호 창림사지 삼층석탑
- 제1935호 용장계지곡 모전석탑
- 제2071호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
- 제 호 전 염불사지동서삼층석탑

3. 사적(15개소)
- 제 1호 포석정지
- 제 22호 남산신성
- 제138호 서출지
- 제172호 오릉
- 제173호 일성왕릉
- 제186호 정강왕릉
- 제187호 헌강왕릉
- 제219호 배동삼릉
- 제221호 지마왕릉
- 제222호 경애왕릉
- 제245호 나정
- 제311호 남산일원
- 제340호 천관사지
- 제457호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 제533호 인왕동사지

4. 국가민속문화재(1점)
- 제 34호 경주 월암종택

5. 유형문화재(15점)
- 제 19호 삼릉계곡 마애관음보살상
- 제 21호 삼릉계곡 선각육존불
- 제 94호 입곡 석불두
- 제112호 침식곡 석불좌상
- 제113호 열암곡 석불좌상
- 제114호 약수계곡 마애입불상
- 제158호 삼릉계곡 마애석가여래좌상
- 제159호 삼릉계곡 선각여래좌상
- 제193호 보리사 마애석불
- 제195호 배리윤을곡 마애불좌상
- 제206호 백운대 마애불입상
- 제447호 국사곡 제4사지 삼층석탑
- 제448호 비파곡 제2사지 삼층석탑
- 제449호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
- 제555호 포석곡 제6사지 오층석탑

6. 기념물(2점)
- 제 46호 상서장
- 제 88호 용산서원

7. 문화재자료(5점)
- 제 6호 남산동 석조감실
- 제 13호 남간사지 석정
- 제600호 지암곡 제2사지 삼층석탑
- 제601호 기암곡 제2사지 동삼층석탑
- 제695호 탑곡 제1사지 마애조상군

경주남산 재미있게 보는 방법

1. 가장 좋은 방법

* 토·일·공휴일에 시행하는 경주남산유적답사안내(무료)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옆 119쪽 안내)

2. 혼자 또는 친구 끼리 찾아 갈 때

* 최고의 코스
  - 서남산(10쪽) (4:00 ~ 5:00 소요)
  - 삼릉골(10쪽) (2:30 ~ 3:30 소요)
  - 동남산 산책(14쪽) (3:00 ~ 4:00 소요)
  - 칠불암(신선암)(89~91쪽) (3:00 ~ 4:00 소요)
* 문화가 있는 힐링 코스
  - 남산탐방길(18쪽) (3:00 ~ 5:00 소요)
  - 삼릉 가는 길(6쪽) (3:00 ~ 4:00 소요)
  - 동남산 가는 길(14쪽) (4:00 ~ 5:00 소요)
* 남산안내소(서남산주차장 054-742-1942, 통일전주차장 054-743-1942)에서 지도와 약도, 가이드북을 얻어서 천천히 답사한다.

3. 안내해설사 동행(유료)

* 나(또는 단체) 만을 위한 안내해설사 동행 답사
* 남산 또는 경주의 어느 문화유산이라도 맞춤 코스로 안내 가능
* 경주남산연구소(http://www.kjnamsan.org/) [전문안내인 요청]에서 신청하시던가, 경주남산연구소(054-777-7142)에 전화 신청
* 코스는 상담하여 도와 드립니다.

경주남산 유적 답사 안내

안내	연중 시행	3~11월 시행					
코스	삼릉골	남산탐방길	동남산	서남산	남남산	삼릉 가는 길	동남산산책
시간	09:30 ~13:3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09:30 ~16:00	09:30 ~13:30	09:30 ~13:30
1 토	●					●	
일	●	●					
2 토	●						●
일	●		●				
3 토	●						
일	●			●			
4 토	●						
일	●				●		
5 토	●						
일	●						
공휴	●						
출발지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서남산 주차장	월정교 주차장	통일전 주차장

◎ **[삼릉골]은 연중 운영하며, 다른 코스는 3월~11월 운영**합니다.

◎ **남산달빛기행(별도 안내)**

- 모든 답사는 참가비 무료이며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여 해설합니다.
- 모든 답사 프로그램은 답사 전날까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은 (사)경주남산연구소 홈페이지(www.kjnamsan.org)에서 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에는 보다 세부적인 일정과 운영시간 등이 공지됩니다.

- 문 의 : 054-777-7142
- 제 공 : 전문해설사 동행 해설, 남산지도, 가이드북, 기념엽서 등
- 준비물 : 간식, 생수, 수건, 등산차림, (하루코스) 점심도시락 필수
- 참가비 : 없음

경주남산 내비게이션 주소 목록

지 역	목 적 지	주 소	주차비(1회)	비 고
동남산	불곡 입구	경주시 인왕동 180-3		
	탑곡 입구 주차장	경주시 배반동 1132-69		버스 가능
	탑곡 옥룡암	경주시 배반동 1114		
	보리사 입구	경주시 배반동 1132-60		
	보리사	경주시 배반동 산 66-1		
	산림환경연구원	경주시 남산동 725-2		
	화랑교육원주차장	경주시 남산동 830-5		버스 가능
	통일전주차장	경주시 칠불암길 6	무료	버스 가능
	남산리 탑(양피사지)	경주시 남산동 226-2		
	염불사지	경주시 칠불암길 125		
북남산	사마소	경주시 재매정길 47		
	월정교주차장	경주시 천원2길 11	유료(미정)	버스 가능
	상서장주차장	경주시 인왕동 276-3	무료	버스 가능
서남산	**오릉주차장**	경주시 탑동 231-1	대2,000, 소1,000	버스 가능
	월암고택	경주시 식혜골길 35		
	나정	경주시 탑동 700-1		주차시설 없음
	육부전주차장	경주시 남간길 37-10	무료	버스 가능
	일성왕릉	경주시 남간길 99		
	포석정주차장	경주시 남산순환로 816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지마왕릉주차장	경주시 배동 483-1		
	삼불사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92-25		
	서남산주차장	경주시 포석로 647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약수골 입구(월성대군단소)	경주시 포석로 534-1		
	황금알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508		
	약천오리식당	경주시 포석로 482		
	용장리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용장4길 10	대4,000, 소2,000	버스 가능
	틈수골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734-1		주차시설 없음
	용산서원	경주시 포석로 110-34		버스 가능
남남산	**열암곡주차장**	경주시 내남면 노곡리 299	무료	버스 가능

경주남산은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깃든 곳이며
탑상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민족문화의 산실이다.

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
慶州南山硏究所